

세종학당



부록 I 세종학당 자문위원 명단

부록 II 세종학당 관련 보도자료

세종학당

가나

●● 부록 I 세종학당 자문위원 명단 ●●

가나다순

	성 명	소속/직위
1	강재형	MBC 아나운서
2	강현화	경희대학교 교수
3	김성규	서울대학교 교수
4	김재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5	김준곤	삼일법무법인 변호사
6	박동호	경희대학교 교수
7	박영주	KBS 아나운서
8	백봉자	경희대학교 교수
9	손희하	전남대학교 교수
10	송향근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11	우정욱	행정자치부 장관정책보좌관
12	유희림	YTN 부장
13	이관규	고려대학교 교수
14	이미혜	화여자대학교 교수
15	이장협	국립극장 진흥부장
16	임지룡	경북대학교 교수
17	조향록	상명대학교 교수
18	최인호	한겨레신문사
19	최용기	국립국어원 국어진흥교육부장



●● 부록 II 세종학당 관련 보도자료 ●●

I. 세상이 보는 세종학당

1. 세종학당 관련 자료

(1) 국어발전 기본계획 토론회

[강원일보] 2007. 04. 05. 3면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 개최 【서울】한나라당 이계진(원주)의원은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립국어원과 공동으로 국어발전 기본계획 및 세종학당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의원을 비롯하여 신기남 김재운 김명자 박찬석 허천 심재엽 이재웅 최구식 정종복 배일도 김기현 등 국회의원, 김승곤 한글학회회장, 김승국 전단국대총장, 차재경 한글사랑운동본부회장, 오동춘 강서문인협회회장, 최주열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정부가 마련한 국어발전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과 실천 방안, 그리고 한국어 문화권역 확대의 일환으로 전 세계에 200여개의 세종학당을 설립하겠다는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계진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문화의 자랑거리인 한글이 온 누리를 주름잡으며 세계적인 언어로 거듭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민족을 한 울타리로 엮을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주현 기자 jhsong@kwnews.co.kr



(2) 김명곤 장관 새해 업무계획 발표 "동계올림픽 유치 등 5대사업에 역점"

[경향신문] 2007. 01. 12. 21면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이 11일 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김장관은 발표에 앞서 지난해를 회고하면서 "지난 3월말 부임하자마자 스크린 쿼터 축소로 인한 영화계 반발, 유진룡 전 차관 인사파동, 바다이야기 사건 등 큰일을 계속 겪었다"면서 "올해는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올해 역점 추진과제로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문화비전 2030 수립, 한류진흥 등 5가지를 꼽았다.

◇국제체육대회 유치성공을 위한 준비= 2014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개최 여부가 오는 2월 실사단의 실사를 거쳐 7월 과테말라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또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대구 유치와 2014년 아시안게임의 인천유치도 3월과 4월 각각 결정된다. 김장관은 특히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가 성사되도록 준비와 정책지원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비전 2030 수립= 지난해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김형국)가 미래, 문화예술, 문화산업, 체육, 관광 등 5개 분과에 걸쳐 마련한 초안을 토대로 해서 2030년을 목표로 한 장기문화정책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올 3월 미래학 경영학 정치학 등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과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문화장관을 초청, 국제문화포럼을 연다. 세계적인 문화흐름과 장기전망 안에서 문화정책의 틀을 새롭게 짚는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한 스타일을 바탕으로 한 한류진흥= 드라마 가요 영화 게임 등 대중 문화에서 시작된 한류를 한글 한옥 한복 한지 한식 한국음악 등이 포함된 '한 스타일'로 확대하고, 한류진흥과 전통문화의 산업화를 추진해 우리 문화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달 중 한 스타일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웃



◇한민족 문화대축전 개최= 올 9월말 한가위부터 한글날, 개천절, 문화의 날까지 약 한 달간 한민족 문화대축전을 연다. 지난해 한글날이 국경일로 승격된 것과 관련, 해외문화원과 현지대학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한글보급을 위한 '세종학당'을 설립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융합시대 대비= 최근 출범한 방송통신융합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급변하는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맞게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뉴미디어산업정책팀을 신설하는 등의 1차 조직개편에 이어 콘텐츠진흥원, 영상산업진흥원 등 산하단체를 총괄한 조직개편 용역을 진행 중이다.

김장관은 이밖에 바다이야기 사건이후 게임등급제 시행에 따른 게임 산업 위축을 막기 위한 중장기계획 마련(1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조화시킨 스포츠 활성화방안 발표(2월)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한윤정 기자

(3) 문화부, 창작UCC 등 콘텐츠산업 집중 육성

[국민일보] 2007. 02. 09. 02면

정부는 창작 UCC(User Created Contents) 지원과 저작권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콘텐츠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8일 올해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콘텐츠산업의 창작역량을 강화하는 진흥정책을 적극 펼치겠다”고 밝혔다. 문화콘텐츠 프로듀서와 마케터를 양성하기 위한 특성화 교육기관 10개교를 지원하고 영화, 게임, 방송영상 등 콘텐츠 육성을 위한 예산 150여억 원을 올해 투입키로 했다.

또 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192억원을 들여 2009년까지 디지털 크리처(Creature)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해 실사 수준의 인간, 동물, 식물 등 생명체 디지털 크리처를 개발



함으로써 급증하는 디지털영상콘텐츠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어보급 사업을 위한 세종학당의 경우 지난 6일 몽골 국립사범대학과 업무협정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 중앙아시아(CIS) 등에 올해 18개교를 설립키로 했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

(4) <신문>한국어 교육과 한류 그리고 한민족

[내일신문] 2007. 03. 19. 23면

21세기 들어 아시아를 중심으로 일기 시작한 한류열풍은 우리들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느끼게 해주었고, 중국의 동북공정은 한동안 우리들로부터 소외되었던 민족사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변화와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문화가 갖는 엄청난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경험하였고, 한류의 열기 속에서 짧지만 강렬한 민족주의의 논쟁도 목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중국의 동북공정의 실체가 확인되면서 민족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민족주의에 대한 거대한 이념과 레토릭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21세기에 들어서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진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각계에서는 한민족과 한류라는 문화적 자긍심에 도취되어 지속발전이 가능한 한류문화의 본질을 도외시키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류의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상품화에만 열중하고 있는 사이 지난해 한류 문화상품의 해외 수출실적이 전년 대비 30% 수준으로 줄어드는 지경에 이르렀다.

물론 한류문화의 해외 수출실적만으로 그 발전가능성과 세계화를 평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나 이미 지속가능한 한류문화의 발전과 세계화를 주장하였던 많은 지성인들이 종전과 같은 방식의 한류 문화의 상품화와 콘텐츠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었고, 최근과



같은 결과는 이미 예견하였던 바였기에 많은 아쉬움이 남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지속 발전 가능한 한류문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야 할 때이다.

한류문화 수출 크게 줄어

한류문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한국어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류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알아야만 한다는 단순한 논리가 아니다. 언어 학습은 단순한 어휘와 문장의 습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역사, 문화 그리고 가치관을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기에 한국어교육 자체가 한류문화의 지속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에서 ‘국어발전 기본계획’ (2007~2011)을 수립하면서 한국어 문화권역 확대의 일환으로 전 세계에 200여개의 세종학당을 설립하겠다는 안을 발표했다. 세종학당 설립계획은 국제사회에서 문화상호주의를 지향하면서 현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제공하는 것 등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외에서의 한국어 교육정책은 10여년에 불과할 정도로 일천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다. 그중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교육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자 육성과 교육내용의 개발은 세종학당 설립계획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어교육자 양성 및 연수체계는 있어도 한국어교육자 양성과 연수체계는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학과 및 전공의 설치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사전과 교재, 한국어 능력별 어휘의 분류, 한국어 능력별 평가제도 등도 시급하게 연구·개발해야 한다.



재외동포 한국어교육 중요

그러나 이와 같은 대안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한국어교육정책에 있어서 재외동포에 대한 이념과 대안의 개발이다. 현재 750만 명의 재외동포가 세계각지에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들에게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학교가 미주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인적자원과 콘텐츠가 열악한 상태이다. 특히 재외동포와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교육은 외국어교육이라는 형식에서는 유사하지만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념과 대안의 마련은 필수적이다. 한국어교육은 재외동포가 한민족으로서 기본적으로 고유하는 우리말과 문화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화시대에 한민족으로서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고 한류문화를 지속 발전시켜 세계화시킬 수 있는 역량 또한 한민족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김재현(공주대 총장)

(5) 한국 새 관광브랜드 '코리아, 스파클링'

[동아일보] 2007-02-09 23면

한국의 국가 관광브랜드가 '다이내믹 코리아(Dynamic Korea · 역동적 한국)'에서 '코리아, 스파클링(Korea, Sparkling)'으로 바뀐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8일 새해 업무계획에서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국가홍보를 위해 채택한 '다이내믹 코리아'의 인지도가 낮아 '코리아, 스파클링'을 새 브랜드로 채택한다고 발표했다.

김장관은 스파클링이 영미권에선 '반짝반짝하는' '찬란한'이라는 뜻 외에 '활기찬' '신선한'이라는 뉘앙스도 가지고 있어 한국의 매력을 담아내면서도 외국인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브랜드는 뉴질랜드의 국가관광브랜드인 '100% Pure New

이웃



Zealand'를 창안한 국가브랜드 전략전문가 사이먼 안홀트 어스스피크 대표의 작품이다.

김장관은 올해 문화부의 목표를 '새로운 문예부흥의 시대 개척'으로 삼고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 신(新)한류 확산, 문화 나눔을 3대 역점 사업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상으로 음원과 영상 등의 저작권 관련 서비스를 개시하는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 설립, 외국에 매년 10여 곳의 한국 어학당을 세우는 '세종학당'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권재현 기자 confetti@donga.com

(6) [야고부] '세종학당'

[매일신문] 2007. 01. 12. 31면

자국의 언어와 문화의 해외에 알리는 尖兵(첨병) 역할을 하는 언어학교 열풍이 일고 있다. 서구에선 일찍 시작됐으며, 아시아 국가들도 가세하는 추세다. 중국의 '孔子(공자)학원'과 일본의 '일본어학습거점'이 대표적이다. '공자학원'은 2004년 처음 서울에 개설된 이래 세계 51개 나라 125곳에 설립됐다. '일본어 학습거점'도 우리나라·태국·아일랜드 등 10여 곳에 세워졌으며, 100곳 이상으로 늘려나갈 태세다.

▲중국이 앞서 가자 일본 정부는 '공자학원'에 맞대응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중국은 이미 이 학원을 해외 진출 戰略(전략)의 상징으로 내세우면서 올해 200곳, 2010년까지 500곳을 세울 움직이며, 역시 앞서 영어를 경쟁 상대로 삼으려는 분위기다. 이 '소프트 파워'는 낙후한 중국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세계시장을 석권하기 위한 준비작업임에 틀림없다. 일본의 전략도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궁금하다.

▲정부가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다른 나라에 펼치기 위한 '世宗學堂(세종학당)'을 2011년까지 세계 여러 나라 100곳에 세울 움직이다. 김명관 문화관광부 장관은 어

'세종학당'



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올해부터 해외 문화원과 현지 대학을 중심으로 일반인들을 위한 한글학교인 '세종학당'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립국어원이 주관하게 된다.

▲이 구상에 따르면, 올해 3월 몽골 울란바토르대학과 중국 베이징

소제 중앙민족대학에 가장 먼저 설립한다. 이어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 2, 3곳에 문을 연 뒤 점차 늘려나갈 모양이다. 벌써 950여 곳으로 확대된 프랑스의 '알리랑스 프랑세즈' 등 비롯해 독일·영국 등의 影響力(영향력)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중국과 일본과 같이 우리도 전 세계 상대의 '언어 전쟁'에 힘을 쏟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중국·일본, 동남아에서 일고 있는 '韓流(한류)' 열기로 우리나라와 우리 언어·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는 외국인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잘 좋은 우리 언어 교육을 위해 韓國學(한국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데도 관심 밖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인 대상 소규모 언어학교 수준인 '세종학당' 출범을 계기로 우리 언어·문화 한류'의 길을 새롭게 열어야 하리라.

이태수 논설주간 ispoet@msnet.co.kr



(7) "한국어 세계로" 국립국어원 국어발전기본계획 발표

[민중의 소리] 2007. 03. 31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학습용 웹사이트 편찬 등 국어발전과 보존을 위해 '국어발전기본계획'이 추진될 예정이다. 30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국립국어원(원장 이상규)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어 문화권 확대를 위한 세종학당 설립·운영 등 3대 중점추진과제와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비 등 10대 부문별 추진과제를 담은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국어발전기본계획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국립국어원이 5년마다 수립 하며 2007년~2011년 추진 예산으로 약 980억여 원이 책정됐다. 특히 국립국어원이 추진할 3대 중점과제는 ▲국어 교육 및 연수체계 정비 ▲동북아지역을 거점으로 한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 ▲한국어 학습용 웹사이트 편찬이다.

그 일환으로 현지 밀착형 '한국어 문화학교'가 각각 1차 07~08년, 09~11년, 2차 12~16년 단계별로 몽골, 중국, 구소련 지역 등지에 약 200여 개가 설치, 운영될 예정이다.

이상규 원장은 "베트남, 몽골어, 러시아어 등 한국어 학습 수요가 많은 5개 언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2008년까지 한국어 학습용 웹사이트를 우선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몽골 울란바토르대와 국립사범대학에 개설된 세종학당은 2011년까지 동북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100여 개가 설립될 예정. 세종학당은 현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보급하는 한국어 국외 보급 기관이다.

이 원장은 "개방형 '한국어 문화학교'(세종학당)를 국외 한국문화원(9개국 12개소)을 거점으로 하고 현지 대학 등의 교육시설을 활용 할 계획"이라며 "세종학당은 한글, 혹은 한국문화와 역사를 전파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 문화와 역사를 섞어 소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이웃



10대 부문별 추진과제로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비 ▲국가 언어정책의 확산 ▲남북 언어교류 확대 ▲소외계층을 위한 언어복지 시책 강화 ▲국어 사용 환경 개선과 의사소통 증진 ▲국어능력 증진 여건 조성 ▲언어 사용의 다양성 조사 ▲국어정보망 구축 ▲국어유산의 보존과 한글의 산업화 ▲홍보활동 강화 등을 정했다.

이 원장은 남북 언어교류 확대 부문에 있어 "연1~2회로 남북 학술 회의를 개최하는가 하면, 남북 학자 10명 내외(재중 동포 언어학자 포함)로 한 '한민족 언어공동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옥스퍼드 사전 수준의 풍부한 어휘와 표현을 담아낸다면 사전만으로도 바람직한 국어사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표준어 규정, 맞춤법 규정 등 규정 중심의 국어정책에서 사전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8) [밀물썰물] 세종학당 / 김종명 논설위원

[부산일보] 2007. 01. 13. 23면

■ 밀물 썰물

세종학당

세종이 혼민정음을 창제하여 발표한 즈음, 밀물처럼 부푼 해방의 열풍은 혼민정음에 대해 세간의 분석하여 광범한 반대 상 소를 올렸다. 이들의 주장은 혼민정음을 몇 십년 쓰다보면 원문을 아는 사람이 줄어들고, 혼민정음으로도 충분히 원형 뜻을 다 해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중국 상원의 글을 모르게 될 나라가 무서워한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혼민정음을 '재침'과 '이성'을 '침'으로 치부했었다. 혼민정음 반대 성소는 혼민정음이 이 얼마나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한 글임을 역설하고 있다. 평민지는 혼민정음에 의해 서민에 혼민정음의 실용성 보면 누구든 선생에게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배울 수 있어 좋다고 했다(중략) 지 '세종대왕'.

혼민정음이 '한글'이란 이름으로 널리 쓰이게 된 것은 지난 1927년 잡지 '한글'이 출판되고부터라 한다. 한글의 '한'은 '하'나 '하' 또는 '하'는 뜻이다. 한글은 한때

로 중립적인 우리말을 적는 글자이다. 현대 문명의 '한글'은 컴퓨터가 가장 잘 받아들이는 글자가 한글이다. 한글의 우수성은 대이상의 설명이 필요없다.

문화관광부가 '한글(韓契)' 확산을 위해 한글을 세계에 보급할 계획이다. 2011년까지 세계 100곳에 우리말과 우리 문화를 가르치는 '세종학당'을 건립키로 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위상에 걸맞은 한글 문화의 세계화이며, '한글'과 '한글'의 조화를 위한 일이다. 중국이 중국어와 '한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세계 100곳에 설립 중인 '한글' 학교'에도 유사하다.

세종학당에서 한글을 외국인들이 쉽게 가르치려면, 혼민정음의 장제 외래를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 혼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배운 소리다. 이 때의 '소리'는 글자와 다르다. 백성을 바로 다스리려는 정권적 차민정신(治民精神)에서 혼민정음 24자가 만들어졌다. 세종학당 추진 소식은 오늘의 혼민정음은 한국에도 세종의 차민정신을 던지는 것 같다.

김종명 논설위원 myung9@kusanilbo.com

가나

(9) 중국 '한국어 배우기' 후끈

학과 개설 대학 증가세 … 제2외국어로 급부상
능력시험 응시자 수 10년 전보다 20배 급증
문화부, 강사 양성 확대 교육 질 저하 개선 시급
[부산일보] 2007. 07. 30, 9면

중국 '한국어 배우기' 후끈

학과 개설 대학 증가세 … 제2외국어로 급부상

중국 대학의 한류 바람이 한국어 배우기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 내 대학들은 앞다퉈 한국어학과를 개설하고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하고 있으며 이제 따라 한국어도 수나 갈수록 대학 수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어학과를 개설한 중국의 4년제 대학은 지난 2004년 30여곳에서 올해 10여곳으로, 불과 2년여 만에 40

여곳으로 늘었다. 중국어학과는 소수 민족 학과의 관례로 조선어학과를 빼놓지 않고 있다. "만성도" "조선어"는 중국 내 한국기업에 취업하거나 한국의 우수한 IT나 문화, 디자인 재능을 공부하려는 학생이 많아 한국어 인기가 계속 높다"고 말했다.

한국어 열풍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수 증가 추세에서도 나타난다.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수는 시험 첫해인 1997년 3천여명에서 불과 10년 만인 2006년 3만8천명, 2007년 1만5천명, 지난해 3만4천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는 6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평가원 측은 늘어난 응시자수에 대비, 시험을 위해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확대했다.

이같은 한국에 열풍으로 한국어학과와 강좌 개설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 교수와 강사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중국의 한 대학 관계자는 "중국 베이징 등 도시의 많은 대학의 한국어학과 학사도반 졸업생도 중국 내 전문대학의 한국어학과 교수로 일할

수 있을 정도에서 한국어 교수나 강사들의 인기와 수요가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제 따라 정부도 한국어강사 양성 과 아울러 중국 현지 취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06년도 해외취업지원사업으로 신라대의 한국여강사 연수과정"을 선정, 신라대 한국어교육센터는 30명의 수강생을 선

문화부, 강사 양성 확대
교육 질 저하 개선 시급

발한 뒤 오는 9월 말부터 4개월간 1명씩을 지원해 한국에 취업할 강사로 양성한다. 한편 문화관광부에 올 해부터 중국 현지에서 세종학당을 단계적으로 설립, 한국어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어교육의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을 하위층에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태환 기자
naver@naver.com

능력시험 응시자 수 10년전보다 20배 급증

연간이 늘어난 것, 또 한국어에 배우려는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각 대학들이 한국어와 제2외국어로 선택하는가 하면 전문대학과 학원 등에서도 한국어 강좌 개설이 늘고 있다. 특히 최근 4년제 대학 한국어학과의 인기는 지난 1997년대 초반까지 인기

를 누렸던 일본어학과의 인기를 뛰어넘었다는 것이 특징.

중국인 유학생 정황이2006에는

(10) 김명곤 문화부 장관 "해외에 한글학교 설립"

[서울경제신문] 2007. 01. 11

한글 우수성을 알리고 보급하기 위한 한글학교가 해외에 세워진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11일 신년기자 간담회에서 "문화부가 운영 하는 해외 문화원과 해외 유명 대학에 올해부터 한글 보급을 위한 세종학당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학당



문화부는 이를 위해 국립국어원을 통해 올해 3월 울란바타르 대학교 중국 베이징에 있는 중앙민족대학에 '세종학당'을 세운 뒤 하반기에는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 2~3곳 추가로 세종학당을 개설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국어원은 2011년까지 해외 한국문화원 12곳을 비롯해 해외 대학 등에 세종학당을 100개소까지 추가 설립할 방침이다.

홍병문 기자 hbm@sed.co.kr

(11) 지구촌 사람들, 한글 배운다.

국립국어원, 2011년까지 '세종학당' 100곳 세워

[조선일보] 2007. 01. 12

우리말과 글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 세계 100곳에 '세종학당'이 세워진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11일 "던턴이나 파리 등 문화관광부가 운영하는 한국문화원 12곳과 현지 대학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2011년까지 세종학당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해외에서의 한국어 보급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맡아, 대부분 우리 동포나 한국학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해왔다. 그러나 세종학당은 결혼·취업·취미 등을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현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언어학교 형태로 운영된다.

사업을 주관하는 국립국어원은 올해 3월 몽골 울란바토르대학교와 중국 베이징의 중앙민족대학에 세종학당을 세우며, 하반기에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 2~3곳에 더 열 예정이다. 국립국어원 이준석 학예연구관은 "우선 한류 열풍이 부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말 보급에 나설 계획"이라며, "교재비 정도만 받는 수준에서 무료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현아 기자 haryu@chosun.com

가나

(12) "새해엔 영어보다 한국말을 더 잘할래요"

[오마이뉴스] 2007. 02. 19

"선생님, 선생님, 떡국이 정말 맛있어요.""선생님, 한복이 참 예뻐요."

"세뱃돈으로 받은 1달러 새 동전, 앨범에다 보관해 오래오래 간직 할래요."

"선생님, 투호(投壺) 놀이 진짜 재밌어요. 다음 주에도 할 거죠?"

17일 미국 델러스 인근 캐롤튼시에 있는 뉴송교회는 아이들의 재잘 거리는 소리로 넘쳐났다. 가끔 영어가 섞여 들리기도 했지만, 아이들은 일주일 중 그 어느 때보다 한국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날은 '델러스 한인학교'의 설날 행사가 열린 날. 이 학교는 교회 건물을 빌려서 매주 토요일, 이곳 한인 아이들을 상대로 한글교육을 하고 있다. 델러스, 캐롤튼, 갈랜드 세 분교에 400여명의 학생들이 한두 살 아이들을 위한 유아반부터 중고등부까지로 구분돼 한글 교육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보통 한 학교의 학생수가 200명이 채 안 된다. 이 점을 감안하면 비록 토요일만 모인다고 해도 대단한 규모가 아닐 수 없다.

"새해, 복, 마니, 바드세용"

21개 학급으로 세 분교 중 가장 규모가 큰 캐롤튼 캠퍼스는 이날 오전 9시 반부터 낮 12시 반까지 아이들을 위해 세배, 떡국 먹기, 오자미, 투호, 닭싸움, 윷놀이 등의 행사를 벌였다. 세배 행사는 뉴송교회의 노인 네 분을 모시고 반별로 돌아가면서 세배를 드리는 것으로 진행됐다.

학교 측은 미리 1달러짜리 새 동전과 봉투를 준비해 노인들이 세뱃돈을 직접 아이들에게 주도록 배려했다. 교회 체육관 옆방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세배 행사에 앞서 아이들은 각 반에서 세배하는 법을 먼저 배웠다.

"남자들은 먼저 무릎을 꿇고 손을 바닥에 대고 이마가 손등에 닿도록 허리를 굽히는 거야.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해 보자."



"It's too hard. Why I have to do so? (너무 어려워요. 왜 이렇게 해야 하죠?)"

한국인 엄마와 미국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종현(10)이는 한국말을 거의 할 줄 모른다. 선생님한테 손을 흔들며 "하이"라고 인사하는데 익숙한 종현이에게는 머리를 숙여야 하는 한국 인사법이 많이 어색하다. 그런 종현이에게 큰절은 당연히 더 힘들 수밖에 없다.

"종현아, 그래도 큰절을 배워서 엄마한테 한 번 해 드리면 엄마가 아주 좋아하실 거야. 힘들더라도 배워보지 않겠니?"

"네, I'll do(할게요)"

한 번 더 고집을 부릴 법한데도 종현이는 한국인 엄마가 좋아한다는 말에 생각을 고친 것 같았다. 힘든 큰절을 선생님을 따라 열심히 배웠다.

"여자들은 먼저 다리를 이렇게 꼬고 엉덩이를 땅에 닿게 한 다음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숙이는 거란다."

여자애들은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하는 큰절 방법에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금방 재밌어졌는지 저희들끼리 큰절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했다.

"새해, 복, 마니, 바드세용."

선생님과 몇 번이나 연습을 했지만 반침이 들어가는 어려운 한국말을 아이들이 정확하게 발음하기는 어려웠다. 영어식 발음이 섞인 말로 세배를 한 아이들에게 노인 분들은 세뱃돈을 주었다. "감사합니다" 대신 "땡큐"라는 말이 먼저 튀어 나왔지만 세뱃돈을 받아든 아이들의 모습은 한국에 있는 여느 아이들과 다름이 없었다.

뒤돌아 나오기가 무섭게 봉투를 뜯어서 얼마 들어 있는지 확인했다. 고학년 아이들은 달랑 1달러밖에 없다는 걸 알고 낙심하는 모습이, 저학년 아이들은 1달러가 얼마만한 돈인지도 모르면서 마냥 기뻐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선생님한테 자기가 받은 세뱃돈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는 저학년 아이들도 있었다.

가나

떡국에 부른 배, 오자미와 닭싸움으로 꺼지다

세배가 끝난 후 4~6세 유치부 아이들은 교회 식당에서 떡국을 먹었다. 부모들과 선생님들이 준비한 떡국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랐다. 집에서 자주 떡국을 먹는 아이도 있었지만, 처음 먹어보는 아이도 있었다.

"떡국 맛있어요. 에그(egg)랑 김이랑 들어 있어서 더 좋아요."

혼혈아인 카이(4)는 처음 먹어본 떡국인데도 맛있게 한 그릇을 금방 비웠다. 한국말을 잘 못해 한글학교에 와서도 영어만 쓰려고 하는 효진(5)이도 떡국은 맛있다는 친구랑 재잘대며 금방 다 먹어버렸다.

고학년들은 떡국을 직접 먹지는 않았지만 선생님이 프로젝트를 통해 보여주는 떡국, 잡채, 부침개 등 설날 음식 사진들을 보았다. 예은(10)이는 "떡국 너무 좋아해요, 엄마가 자주 해 줘요, 설날에 떡국 먹는 게 좋아요"라고 말했다. 같은 나이이지만 한국말을 잘 못하는 원경이도 "어제 엄마가 떡국이라 잡채도 같이 해 주셨어요, 잡채는 좀 핫(hot)했지만 맛있었어요"라고 말했다.

떡국을 먹은 유치부는 교회 내 작은 홀에서 오자미 놀이를 했다. 한국에서처럼 큰 공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선생님들은 상자의 밑동에 얇은 종이를 붙여 오자미를 던지면 쉽게 터질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었다. 안에는 사탕, 초콜릿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넣어두었다. 선생님들은 일주일 내내 상자를 만들고 오자미를 빌려오는 등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아이들이 쉽게 터뜨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선생님들의 생각과 달리, 남자 아이들의 실력이 발휘됐다. 한두 번 남자 아이들이 던진 오자미를 맞은 박스는 금방 터지고 사탕과 초콜릿이 쏟아졌다. 아이들은 함성을 지르며 사탕을 즐기며 여념이 없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같은 시간 넓은 홀에 모여 닭싸움을 했다. 선생님들은 다리를 어떻게 꼬는지부터 가르쳐야 했지만 한번 배운 뒤에는 열기가 고조됐다. 둥글게 둘러앉은 아이들은 자기 팀 친구가 나오면 크게 함성을 질렀다.



한국어로 응원을 가르치려는 선생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연신 "کم اون!" "고, 고, 고!"라며 자기편을 응원하고, 상대편 친구가 나오면 "부~"라며 야유를 보냈다. 하지만 미국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활기찬 놀이여서인지 한 아이도 자리를 뜨지 않고 닭싸움에 몰입했다.

결과는 여자팀의 승리. 작년 추석 때 팔씨름의 승리도 여학생에 돌아갔으며 이 분교 권혁환 교장은 "역시 한국 사람은 여자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이씨, 왜 이렇게 안 들어가는 거야"

초등학교 4학년 나이이지만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모인 4-1반에서는 투호 놀이가 벌어졌다. 선생님은 한국 식품점에서 사 온 큰 김치병에다 은박지를 붙여 투호통을 만들었다. 투호는 중국식당에서 구한 긴 나무젓가락. 끝 부분에 태극기랑 성조기를 나란히 붙여 장식했다.

선생님의 한복과 설날에 대한 긴 설명에 지겨워하던 아이들은 선생님이 신기한 놀이기구를 들고 오자 함성을 지르며 반겼다. 1, 2등에게만 준다는 선생님의 선물을 보고는 서로 투호를 던지겠다고 나섰다. 종이에 번호를 써서 제비를 뽑아 순서를 정했다.

첫 순서로 나선 하나(10)는 듣기는 잘 하지만 한국어로 말하는 데 아직 서툴다. 하나에게 한국어의 존댓말은 너무 어렵다. 평소 선생님에게 "선생님, 알았어, 나 그거 할 거야"라거나 "선생님, 안녕"하기 일쑤다.

"에이씨, why is it so hard to insert these!(왜 이렇게 안 들어가는 거야)"

"하나야,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똑바로 던져야지."

1m도 안 되는 거리에 놓인 투호통에 연습할 때는 잘 들어갔는데 막상 게임에서는 잘 안 들어가자 하나는 거의 울상이 되었다.

이날의 투호 경기에서 1등은 평소 암전하기만 하던 재모(10)에게 돌아갔다. 다른 남자아이들과 달리 말수가 적던 재모가 침착하게 6개 투호 중 4개를 성공시킨 것. 나머지 2등을 놓고 하나와 진혁(10)이가 맞붙었다.

가나

둘은 예선전에서 2개씩 성공시켜 재경기를 하게 됐다. 3차례에 걸친 재경기 끝에 승리는 결국 진혁이한테 돌아갔다. 여학생들의 응원을 한 몸에 받고 있던 하나는 수업 시간이 끝날 때까지 한 번 더 경기 하자고 선생님을 졸라댔다.

한글학교에 오는 한인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의 강요에 의해 온다. 영어만 잘 해도 학교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데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는 많이 없다.

최근 미국에 히스패닉 이민자들이 급증해 차라리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가 있을지언정, 부모가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어를 꼭 배워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아이는 드물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한글 교육을 중간에서 포기하고 만다. 흥미가 없는 수업에 능률이 오르기도 만무하다.

이날 설날 행사는 그런 아이들에게 동기 부여를 하는 데 성공한 듯했다. 평소 학교가 끝나는 12시 30분이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던 아이들은 이날 만큼은 집에 가는 걸 늦추고 싶어 했다.

"한국에서는 새해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란다. 너희들은 새해 소망이 뭐니?"

"새해에는 영어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고 싶어요."

이곳 아이들은 한국인의 몸에, 미국식 사고방식을 지닌 채 문화의 경계지대를 걸어가고 있다. 설날 행사를 마친 아이들의 새해 소망은 한국인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었다.

세종학당? 자생적 한글학교에도 관심을

[해외리포트] 댈러스 한글학교 아이들의 설날 풍경

지난달 11일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보급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김장관은

한글



"2011년까지 전 세계 100곳에 외국의 일반인을 상대로 한 한글학교인 '세종학당'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그동안 해외 한국어 보급이 한국어를 전공하는 소수의 상류 지식층을 위주로 진행돼 왔지만, 세종학당은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즈나 독일의 '괴테 인스티튜트'처럼 현지 일반인 대상의 소규모 학교 형태로 운영돼 더 효과적으로 한국어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의 세기'로 불리는 21세기, 한국의 문화 정책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김 장관의 계획은 환영받을 만하다. 하지만 '새롭게 설립되는' 한글 학교라는 개념 속에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전통의 자생적' 한글학교는 경시되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해외 거주 한인들의 수는 2001년 기준으로 142개국, 565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이 세운 해외 한글학교는 미주 1139개, 옛 소련 508개, 아시아 157개, 유럽 85개 등 모두 1923개(2003년 기준)에 이르고 있다.

이 학교들은 한국 정부가 영어 교육 강화에만 관심이 있을 때, 해외에서 한글을 지키려고 온갖 역경을 무릅써 왔다. 새로 예산을 쏟아 부어 거창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이들 한글학교와 해외 한인 자녀들의 한글 교육에 더 관심을 쏟는 게 어떨까.

재외 한글학교 1곳당 지원되는 평균 금액은 2003년 기준으로 연 약 1200달러(141만원)에 불과하다. 한인들의 높은 교육열 탓에 한인 2세대들은 해외 곳곳의 요직에 자리를 잡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이들은 부모의 언어를 잊어버린 채 민족성을 상실해왔다.

이들은 '동북아의 중심 국가'를 꿈꾸는 한국의 주요 해외 기반이 될 수 있었음에도 한국의 뒷북 정책에 소실돼 가는 소중한 인적 자원이 되고 있다. 세종학당 발상이 한글 보급마저 관 주도로 해야 한다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면 21세기 한국은 암울하다.

가나

(13) 中·日 자존심 건 '언어전쟁'

中 각국에 '공자학원' 500곳 추진하자

日 “일본어 학습거점 10배 늘리겠다”

[조선일보] 2007. 1. 10, 1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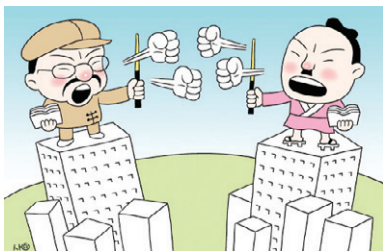
중국과 일본이 전 세계를 상대로 '언어전쟁'에 나섰다.

해외에서 양국의 언어 강습과 문화 전달의 첨병(尖兵) 역할을 하는 것은 중국의 경우 '공자(孔子)학원'과 일본의 '일본어학습거점'. 공자학원은 2004년 11월 서울에 처음 문을 연 이래 현재 세계 51개국에 125개소가 세워졌다. '일본어학습거점'은 교사의 질, 학습 내용 등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고 일본 정부가 관련 기관을 통해 운영하거나 공인(公認)을 해준 일본어 교육센터를 말한다. 한국·태국·이집트 등지 10곳의 센터에서 3000여명이 일본어를 배우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공자학원이 계속 팽창세를 보이자 앞으로 일본어학습거점을 100곳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9일 보도했다. 도쿄 신문은 “일본 정부의 학습 거점 증설 계획은 중국의 공자학원에 대항하는 의도도 있다”고 보도했다. 물론 중국 외에도 전 세계의 프랑스 문화원(950곳), 영국문화원(126곳) 영향력에 대한 맞대응 의미도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일본어를 배우는 외국인인은 236만 명. 그러나 해마다 늘어나는 수요에 반해 일본어 교육의 내용과 강사의 질이 통일되지 않아 일본어 교육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중국에 공자학원은 '저우 추취(走出去·해외 진출) 전략의 상징'이다. 올해 200곳, 2010년까지 500곳을 세운다는 게 목표다. 일본 정부의 일본어학습거점 강화가 공자학원의



언어



확산을 주(主)타깃으로 겨냥한 반면 중국은 일찌감치 영어를 경쟁 상대로 삼았다. 이미 1987년 중국어를 세계 2대 언어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2002년 후진타오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어·중국 문화는 중국 대외 전략의 핵심적인 '소프트 파워(soft power)'로 자리잡았다. 올해 해외 중국어 보급예산도 2억 위안(약 240억원)으로 늘렸다. 전문가들은 이런 움직임은 결국 낙후한 중국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세계 시장을 석권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평가한다.

中·日 자존심 건 '언어 전쟁'

중국과 일본이 전 세계를 상대로 '언어전쟁'에 나섰다.

해마다 양국의 언어 강습과 문화 전파의 첨병(尖兵) 역할을 하는 것은 중국의 경우 '공자(孔子) 학원'과 일본의 '일본어학습거점'. 공자학원은 2004년 11월 서울에 처음 문을 연 이래 현재 세계 51개국에 125개소가 세워졌다. '일본어학습거점'은 교사의 질, 학습 내용 등이 일정 수준을 넘어선 일본 정부가 관련 기관을 통해 운영하거나 공인(公認)을 해준 일본어 교육센터만을 말한다. 한국·태국·이집트 등지 10곳의 센터에서 3000여명이 일본어를 배우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공자학원이 계속 팽창세를 보이지 않도록 일본어학습거점을 100곳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9일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의 학습 거점 증설 계획은 중국의 공자



中 각국에 '공자학원' 500곳 추진하자
日 "일본어 학습거점 10배 늘리겠다"

학원에 대항하는 의도도 있다"고 보도했다. 물론 중국 외에도 전 세계의 프랑스문화원(650곳), 영국문화원(126곳) 영향력에 대한 땀샘을 의미도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일본어를 배

우는 외국인은 236만명. 그러나 해마다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일본어 교육의 내용과 강사의 질이 떨어지지 않아 일본어 교육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중국에 공자학원은 '저우주위(走出去·해외 진출)전략의 상징'이다. 올해 200곳, 2010년까지 500곳을 세운다는 게 목표다. 일본 정부의 일본어학습거점 강화가 공자학원의 확산을 주(主)타깃으로 겨냥한 반면 중국은 일찌감치 영어를 경쟁 상대로 삼았다. 이미 1987년 중국어를 세계 2대 언어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2002년 후진타오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어·중국 문화는 중국 대외 전략의 핵심적인 '소프트 파워(soft power)'로 자리잡았다. 올해 해외 중국어 보급예산도 2억위안(약 240억원)으로 늘렸다. 전문가들은 이런 움직임은 결국 낙후한 중국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세계시장을 석권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평가한다.

도쿄=성우정파원 aul@chosun.com
베이징=이영진파원 mjee@chosun.com

가나

(14) [만물상] 세종학당

[조선일보] 2007. 01. 12/ 30면

萬物相

1883년 '식민지와 외국에서 프랑스어를 전파하기 위한 국민협회'가 파리에서 출범했다. 프랑스가 영국과 치열한 제국주의 경쟁을 벌일 때다. 외교관들이 주도한 '국민협회'엔 저명한 작가 쥘 베른과 에른스트 르낭, 과학자 루이 파스퇴르 등이 이사로 참여했다. 그해 스페인과 아프리카에 첫 사무실을 열었고 중남미·아시아·미국으로 활동 범위를 점차 넓혀 갔다. 이렇게 출범한 '알리앙스 프랑세즈'는 현재 130개국의 1072개 센터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친다. ▶ 중국 베이징의 한국문화원은 한국어를 배우려는 한족(漢族)들로 붐빈다. 한 번 강좌를 시작할 때 2000명 넘게 몰리지만 1000명만 수용할 수 있어 절반 이상은 발길을 돌려야 한다. 몽골의 사람은 더 나쁘다. 이곳에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만 가르치는 곳이 없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한류(韓流) 바람이 불면서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 학습 열풍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들이 제대로 한국어를 배울 기회는 많지 않다. ▶ 영국(브리티시 카운슬·220개)과 독일(괴테 인스티튜트·144개)도 일찍부터 자기 나라 말을 가르

세종학당



치는 전문 기관을 전 세계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난 2년 사이에 '공자학원'을 1조개나 세운 중국은 2010년까지 5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일본도 일본어 학습 거점을 100 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처럼 각국이 자국어 해외 보급에 힘쓰는 것은 소프트 파워(soft power)로서의 위력 때문이다. 어느 나라 말을 배우면 그 나라에 가깝게 되기 마련이다. ▶ 문화관광부가 한국어 해외 보급을 전담하는 '세종학당'을 설립하기로 한 것은 늦게나마 반가운 일이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국립국어원은 오는 3월 중국 베이징과 몽골에 각각 중앙민족대학, 울란바토르 대학과 협력하여 세종학당을 개설한다. 세종학당의 운영에 참여할 전 세계 한국어 교육 전문가 네트워크도 만들어졌다. 세종학당은 현지인들이 편리한 곳에 강의실을 마련하고 동영상 강의도 할 예정이다. ▶ 세종학당이 설치되는 곳은 우선 중국·몽골·중앙아시아 등 한국어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이어 동남아와 사남아 그리고 전 세계로 확대할 예정이다. 세계화 시대엔 무기로 하는 전쟁만 있는 게 아니다. 한국어는 사용 인구 규모에서 아직 세계 10위권 밖에 있다. 세종학당이 이듬해 뿌듯할지 않은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이선원 논설위원 smkwe@chosun.com

이웃



(15) 국어발전 기본계획 세운 국립국어원 이상규 원장 “말글 서비스질 높이고 한글 세계화할 것”

[한겨레] 2007. 03. 15. 27면

“말글 서비스질 높이고 한글 세계화할 것”

‘국어발전 기본계획’ 세운 국립국어원 이상규 원장

2005년 공포한 국어기본법에 따라 최근 국립국어원에서 ‘국어발전 기본계획’ (2007~2011)을 내놔다. 국민의 ‘국어·외국어’ 가치의식과 구분이 뒤섞이고 흐려져 가는 형편에서 현실과 계획을 어떻게 다같이 끌어 이상규 원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아예 발전한 ‘국어발전 기본계획’을 보면, 앞으로 국어 환경 개선과 국민 국어 능력 높이기, 방으로 한국어 문화권 확대 (세종학당을 버리고 해외)를 들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을 보완한 ‘다용도 국어 웹사전 만들기’는 나라 안팎에 두루 영향을 줄 사업이다. 그 바탕 철학이나 진행 상황은?

변역 기능을 하는 쪽으로 만들었다. 수준 높은 국어·외국어 정보 수요를 손쉽게 충족하도록 갖추려 한다.

—보기에 지나치게 국가기관 위주로 정책을 펴는 듯하다.

—어문정책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민간 단체나 연구기관이 활성화해야 한다고 본다. 정책의 기본 뼈대를 국어원에서 수립하고, 이를 연구·구현하는 일은 민간단체나 언론기관이 맡아야 할 일이라고 본다. 적극적으로 입부 분산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현재도 예산 절반은 민간단체·학계에 지원하고 있다.



국어문화학교 활성화로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국외연 세종학당 해외 외국인에 한글 교육

“외래어표기법 현실 반영해 균형 맞춤 것”

—세계화 시대에 무엇보다 문화산업 쪽이 발전 여지가 큰 분야라고 본다. 그 바탕에 한글을 놓을 수 있다. 국어문화학교는 나라 안 수요자를 찾아가 배우는 식으로 운영해 왔는데, 이를 더 활성화하겠다. 밖으로는 한글이 세계인의 것이 되게 하자는 (한국어 문화권 확대) 취지다. 이는 문화 상호주의 전제에서 국가 발전 전략으로 다들 사각이라고 본다. 세종학당(2007~2007~2010)은 외국 대학, 한국문화원 등에 두어 현지 외국인 수요자를 상대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취지다. 현재 중국·몽골·중앙아 등 6곳에 학당 설치 협약을 맺었거나 추진 중이다. 다용도 국어 웹사전은 온라인 시대에 수준 높은 국어 정보와 함께 외국어 정보를 보태고, 자동

—원장 취임 일년을 넘기는 동안 활동이 적잖은 것으로 안다.

—각 시도에서 국어상담소를 두었다. 행정부처·자치단체에 국어책임관을 두어 공공기관의 언어를 순화하고 수준을 높이는 데 앞장서도록 했다. 언어경관 기초 연구도 시작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국어원 누리집 책임자·내용도 격을 높였다. 그레도 대국민 말글 서비스 질은 확실히 모자란다.

—지난해 말로 그리스·티키 어법말 표기법을 갖추어 일단 외래어 표기법 전반을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당연한 국어환경 문제도 함께 짚는다면?

—곧 나올 것이다. 전체 외래어 표기법이 관행과 현지를 표기 사이에 상충이 적

잖은데, 이를 조정하고 있다. 아울러 여러 국립이 언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다. 규범을 고수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지만 마냥 현실을 따라갈 수 없다. 국어심의회의 함께 규범을 잡도록 노력하겠다.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영어 교육에 몰려다 보니 점차 중요한 우리말에는 소홀해져서 큰 문제다. 우리말교과 자기 의사를 정확히 나타내는 훈련이 부족하다.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국어원도 낱말·자원의 규범에만 관심이 머물러 왔다. 문법·담화·화용 쪽으로 연구원들의 관심사와 사업 영역을 넓혀 나가고자 한다.

글 최인호 기자 gojin@hani.co.kr
사진 김봉규 기자 bong@hani.co.kr



(16) 광대극과 비보이를 결합해 '신한류'로

[한국일보]2007. 02. 09. 22면

이르면 올해 안에 전통 광대극과 비보이(B-boy) 춤이 결합된 공연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문화관광부는 8일 광대극과 비보이의 결합, 주제별 문화지도 만들기 등 전통문화자원의 콘텐츠화 사업 추진을 골자로 한 200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사업을 통해 대중문화, 상업문화 중심의 일방향적 해외 진출을 의미하는 '한류'의 한계를 뛰어넘어 상호 교류하는 '신(新)한류'의 확산을 꾀하겠다는 것이 문화부의 생각이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전통 광대극과 비보이를 결합한 공연 '광대에서 비보이까지', 한국여성불교 유적지와 수도권 근대유적지 등 주제별로 온·오프라인 상에 문화지도를 구축하는 '한국문화택리지사업' 등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광대에서 비보이까지'는 자료 수집 등을 거쳐 연내에 실제 공연을 선보이고, '한국문화택리지사업'도 연내에 시범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

한국어의 해외보급에도 힘써 몽골, 중국 등 한국어 수요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1곳에 연간 3,000만~4,000만원씩을 지원, 한국어교육을 돕는 '세종학당'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세종학당 프로그램은 올해 10곳 이상에서 운영을 시작해 2011년까지 100곳 이상에서 운영하게 된다.

김명곤 문화부 장관은 "우리 대중문화를 일방적으로 해외에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문화와 해외문화가 서로 교류하는 쌍방향적 신한류의 콘텐츠를 구축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 했다.

이왕구 기자 fab4@hk.co.kr



(17) [국격을 높이자-이미지 UP! 코리아] 3부 <1> 한국적 시스템을 만들자

[한국일보] 2007. 07. 10. 8면

독일 베를린에서 유학중인 장 모 씨는 최근 한독 문화 교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문화원을 찾았다가 어리둥절했다. 우선 학술 교류나 장학금 지원 문제는 대사관에 있는 교류 재단 측에 문의해보란 것이었다.

하지만 교류재단 관계자는 “장학 지원 모두를 총괄하지 않아 정확한 전체 현황은 모른다”는 답변이었다. 한국어보급 문제는 더욱 이상했다.

“교류재단도 관여하지만, 교육원이나 문화원 모두 다 맡고 있어 정확하게 소관 기관이 어디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장씨는 “영국이라면 영국문화원(브리티시카운슬) 한 곳만 찾으면 될 일 일 텐데 한국의 대외 조직체계는 왜 이런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씨의 질문에 대해 국내 정부에서도 시원하게 대답해줄 사람은 없는 실정이다.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해외에 알리는 사업들이 각 부처 및 산하 단체간 업무 중복과 소규모 난립으로 난맥상에 빠져있기 때문.

국가이미지 제고 사업이 선진국에 비해 극히 부족한 상황에서 이마저도 정부기관 간 밥그릇 싸움으로 날을 새고 있는 것이다.

정부 차원의 문화교류 및 대외 홍보에 관련된 기관은 줄잡아 15곳 이상. 특히 ‘한국어 보급’의 경우 외교부의 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국제교류협력단, 문화부의 국립국어연구원·한국어세계화재단·해외문화원, 교육부의 한국교육원·국제교육진흥원 등이 너도나도 나서고 있다.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어 교육 지원은 재외동포재단과 한국교육원이 겹쳐있고,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보급은 국제교류재단·국립국어연구원·해외문화원 등이 중복된다.

재외동포 교육의 경우 대상이 대부분 이민 2·3세로 외국인과 동포간 구분이 모호해 이들 기관의 업무가 모두 중복되는 경우도 많다. 한국어

가나

교사의 해외파견은 국제교류협력단·국어연구원·국제교육진흥원 간에, 한국어 교재 개발은 기관마다 제각각이다.

한마디로 외교부, 문화부, 교육부 모두 한국어 보급에 나서다보니 주무부처가 어딘지조차 정리돼 있지 않다. 국가이미지 지원단의 한 관계자는 “사업 하나를 진행하려 해도 각 기관간 업무조정을 하다 시간을 다 보낸다”고 자조했다.

이런 와중에 최근 국어연구원이 2016년까지 해외 200여 곳에 한국어를 교육하는 세종학당을 만들겠다고 나섰지만, 이 역시 이런 난맥상의 연장선상이다.

외교부와 교육부가 이미 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을 각국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 정부의 한 관계자는 “문화부가 2005년 말 법제정을 통해 한국어 해외보급에 나서면서 정부 내 후발주자로 끼어들었다”며 “예산을 따내기 위해 거창한 발표부터 하고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제문화교류 및 문화홍보와 관련해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원, 문화부의 해외문화원·관광공사·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제교류재단 등이 겹치고 학술교류 및 해외장학지원 등은 교류재단·한국학중앙연구원·국제교육진흥원들이 서로 중복된다.

문제는 이 같은 업무 난립 속에서 각 기관들이 10억~100억 원 정도의 소규모 예산으로 산발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부실화를 면치 못하는 것. 해외에 설립된 일부 해외문화원이나 한국교육원 등은 예산으로 건물임대료에 충당하느라 제대로 사업을 하지 못하거나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교류재단의 경우도 서유럽 지역에서 독일에만 사무소 하나를 운영하고 있어, 결국 현지 파견자 단 1명이 서유럽 전체의 한국학 관련 지원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각 기관은 기관대로 예산부족으로 아우성인 것이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지역적 편중 현상은 크다. 독일에는 해외문화원, 해외홍보원, 교류재단, 교육원 등이 몰려 있지만 스웨덴 등 북유럽이나

이웃



동유럽은 이 같은 문화교류 조직이 전무해 대사관 직원이 모든 업무를 맡아보고 있다.

이 같은 난맥상은 결국 각 기관들의 밥그릇 싸움 때문이다. 해외 홍보를 맡고 있는 한 관계자는 “각 기관들이 자기조직의 자리 만들기 차원에서 해외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해외 직원을 파견하고 있다”며 “업무가 중복되다 보니 더 많은 사무소를 확보하기 위해 부처간 힘겨루기가 치열하고 해외 현지에서도 각 기관들 간의 신경전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각 기관의 해외 사무소가 없어 대사관 직원이 업무를 통합해 맡는 지역이 오히려 일이 유기적으로 잘 될 지경”이라고 말했다.

선진국의 경우 브리티시카운슬(영국), 괴테인스티튜트(독일), 제팬 파운데이션(일본), 러시아 국제과학문화교류협력센터(러시아) 등 대규모의 대외 교류협력기관이 많게는 1조 원대 가까운 예산으로 자국의 언어보급 및 문화·예술·학술 교류활동을 체계적으로 펴며 국가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 기고/ 각개격파식 브랜드 관리 비효율적

한 브랜드에 대해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 프리미엄은 브랜드충성도의 산물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브랜드충성도가 기반이 된 가격 프리미엄을 높이는 것은,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이다.

산업자원부 조사로는 한국 제품의 가격이 100달러라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동일제품 가격은 약 150달러다. 코리아라는 국가브랜드가 아직 가격 프리미엄을 누리기에는 미흡한 것이다.

모든 브랜드 전략의 출발점은 컨셉트이다. 즉, 브랜드가 지향하는 가치와 이미지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 브랜드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제공할 것인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는 것에서부터 브랜드 관리는 시작된다. 이를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라고 한다.

가나

정부는 2002년 월드컵 개최와 함께 ‘다이너믹 코리아(Dynamic Korea)’라는 슬로건을 새로운 국가 컨셉트로 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국가브랜드 관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일본, ‘경이로운’ 태국, ‘쉽게 누리는 즐거움’ 싱가포르, ‘창의적인’ 영국 등과 같이 각 나라마다 지향하는 가치는 다양하다.

이는 또 모든 이해 당사자들을 포괄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추상적이다. 국가브랜드 컨셉트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을 경우 브랜드 구축활동의 방향성과 일관성이 없어진다.

그 결과 브랜드 관리활동의 효율이 떨어지고 심지어 국민들에게 국가 이미지의 혼란만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실체를 부여하는 작업을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교화(Brand Identity Elaboration)’라고 한다. 실체가 없는, 말뿐인 브랜드는 사상누각과 같아서 단기적으로는 관심을 끌 수 있겠으나, 실제적인 경험 부재와 이로 인한 실망으로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기업 차원에서 브랜드의 실체란 소비자들이 그 브랜드의 지향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제품, 서비스 등의 직접적인 요소와 이를 뒷받침해 주는 내부적인 전략 프로그램, 업무 프로세스, 시스템 등의 간접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국가 차원에서도 이러한 실체들을 통해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가 구현돼야 한다. 차이가 있다면 외국 사람들이 경험하는 코리아라는 브랜드는 정부의 각종 정책이나 시스템, 서비스 등과 같은 공공부문에서의 경험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과 서비스, 한국인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인간적인 경험 등 민간부문의 수많은 경험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코리아라는 브랜드의 지향점이 효과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의 노력과 유기적인 공조가 없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가이미지 제고에 큰 기여를 하는 기업이나 기타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자 바



국가브랜드의 이미지가 높아질수록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를 붙인 많은 제품 브랜드들의 이미지가 동반 상승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삼성, 현대, SK, 태권도, 비, 박찬욱, 김연아, 이승엽, 박지성, 장영주 등 세계 시장에서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구축해 가는 국내 기업, 제품 및 개인들의 이미지가 좋아질수록 코리아라는 국가브랜드의 이미지 역시 상승하게 된다.

브랜드 관리의 성패를 결정짓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브랜드 관리와 관련된 조직 간 협력체제다. 현재 코리아라는 국가브랜드를 관리하고자 나름대로의 활동을 하고 있는 부처 및 부서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 간에는 서로 관련성이 없는 슬로건과 전략들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자원부의 ‘프리미엄 코리아’, 문화관광부의 ‘한 스타일’, 한국관광공사의 ‘코리아 스파클링’ 등이 그것들이다.

핵심적인 전략의 공유가 없는 상태에서 분산되고, 개별적인 국가브랜드 관리활동은 그 대상이 되는 여러 나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커 비효율적이다.

관련부처 간 협력체제 구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브랜드 관리 활동을 유기적으로 통합,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조직이 필요하다.

전성률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북한말, 사투리 등 다양한 언어사용을 수용하고 한글을 세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가 바뀐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어원은 향후 5년간 980억원을 들여 동북아지역 거점 기반 한국어 문화권역 확대 등 3대 중점 과제와 ▲남북 언어교류 확대 및 국제교류 협력망 구축 ▲소외계층을 위한 언어복지시책 강화 ▲국민의 국어능력 증진여건 개선 ▲언어 사용의 다양성 조사 ▲한글의 산업화 등 10대 부문별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어 문화권역 확대를 위해 국어원은 개방형 한국어문화학교인 세종학당을 올해부터 2011년까지 몽골, 중국, 구소련 지역에 100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동남아, 서남아 지역에 100개 개설할 계획이다. 국어능력검정시험 횟수를 연간 2회에서 7회로 늘리는 한편 국내 지역어와 국외 한민족 지역어 현지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윤정 기자

(20) 한복·한옥 등 한(韓)스타일 6대 분야, 세계적 명품브랜드 육성

[국민일보] 2007. 02. 16. 7면

정부는 15일 전통문화인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음악 등 6대 브랜드를 산업화·세계화하는 방안을 담은 '한(韓)스타일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문화관광부가 중심이 되어 건설교통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문화재청 등 10개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이 계획은 우리 고유문화를 세계적 명품 브랜드로 육성해 '신(新) 한류'를 조성하고, 2011년까지 국가브랜드 가치를 세계 8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김명곤 문화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스타일 6대 분야의 체계적 지원과 육성을 위해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마련해 통합 홍보와 체험행사를 개최하고 분야별 실태조사와 통계구축 사업을 진행하겠다"면서 "향후 5년간 추진할 40대 과제에 소요될 2700여억 원은 문화부를 비롯해



관계부처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놓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1년까지 해외 한글학교 등과 연계한 세종학당이 몽골과 중국, 구소련 등지에 100곳이 개설되고 15개 국가에 국악문화학교가 개설되며 전통한옥의 관광자원화가 추진된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

(21) [초대석]취임 1주년 맞은 이상규 국립국어원장

[동아일보] 2007. 02. 20. 29면

“한글의 보편성, 소수언어권과 공유하자” “알파벳은 본디 중동지역 셈족의 문자였지만 유럽으로 건너가 로마자가 되면서 서구의 표준문자가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자로 입증된 한글을 한국의 것으로만 묶어둘 것이 아니라 세계 보편문자로 공유해야 합니다.”

최근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상규 국립국어원장은 간간한 ‘국어 지킴이’가 아니라 후덕한 ‘한글 나눔이’였다. 15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 국립국어원 원장실에서 만난 그는 소멸 위기에 처한 소수 언어권에서 보편문자(universal letter)로 한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글에 대해 일종의 카피 레프트(저작권 공유) 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했다.

“한국의 비약적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정보화에 한글이라는 무형재가 기여한 부분이 큼니다. 한글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빠르게 지식정보를 교환하고 축적할 수 있었으니까요. 한국 10대들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가장 빠르고 손쉽게 보낸다는 점에서도 확인되지만 한글의 문자입력 속도는 일본어나 중국어에 비해 8배나 빠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한국의 상황은 20세기 제국주의의 언어침략과 약탈의 피해자였던 다른 아시아 국가의 상황과 비교할 때 축복에 가깝다는 것이 이 원장의 설명이다.

“20세기 문화제국주의의 영향으로 특히 아시아권에서 소멸된 언어가

이 자 비



많습니다. 몽골어와 만주어처럼 문자가 소멸되는가 하면 필리핀처럼 원주민 언어인 타갈로그어를 버리고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면서 국민 간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심각해 국가 통합의 어려움을 겪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 원장은 이런 나라에 한국의 성공 비결 중 하나인 한글문자 사용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글은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음성을 표기할 수 있는 보편문자로 손색이 없다. 훈민정음에는 현재 우리말에 없는 발음 표기 방법이 수없이 등장한다. ‘f’와 ‘v’ 발음에 해당하는 풍, 병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스과 스의 경우도 양 작대기 중 한쪽을 길게 늘이는 방식으로 미묘한 발음 차이를 표기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 원장은 한국어에 없는 발음 표기를 위해 풍, 병과 같은 표기를 제도입하는 것에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그로 인한 의사소통의 혼란과 관련 표기를 고치는 데 들어갈 막대한 경제적 비용 때문이다. 그러나 문자가 없는 다른 나라에서 한글 문자를 채택할 경우에는 이런 특수기호의 활용 가능성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젠 국어 지키기보다 한글 나누기 운동 중요”

한국어에 목마른 외국에 ‘세종학당’ 100곳 설립

그는 이를 ‘한글 수출’ 이니 ‘한글의 세계화’로 표현하는 것에 반대했다. 한글을 한국인의 것으로만 바라보는 배타적 민족주의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2008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언어학자대회의 주제가 ‘소멸 위기에 처한 변방언어의 보존’이 될 가능성이 큼니다. 그만큼 언어학계에선 20세기 언어학의 중심주의적 경향에 대한 반성으로서 변방 문화의 다원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의 올해 역점사업 중 하나로 국립국어원이 추진 중인 ‘세종학당’ 사업도 이런 문화다원주의를 기초정신으로 깔고 있다. 세종학당 사업은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나라,

가나

특히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한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5년간 100곳의 세종학당을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다.

이 원장의 이런 열린 한글관은 국내 어문정책에도 적용된다. 방언학을 전공한 그는 역대 표준어 중심주의의 국어정책에 의해 배격됐던 사투리도 꺼rian아 우리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전엔 서울에서 쓰는 ‘부추’만 맞는 말이고 전남 지역에서 쓰는 ‘솔’은 틀린 말이라는 이분법의 지배를 받았다면 이젠 부추와 솔을 나란히 존중하는 다원주의로 가야 합니다.”

그는 이런 연장선상에서 주로 어문규정에 의존하던 어문정책을 사전 중심으로 전환해 가겠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표기법, 표준발음법과 같은 어문규정을 가지고 국민의 언어생활을 통제하고 규정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는 통일된 국어사전이 나오기 전인 1933년 먼저 맞춤법 통일안이 발표된 한국만의 역사적 산물입니다. 한국인들이 영어사전은 닳도록 찾아보면서 국어사전은 거들떠보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이런 문화를 바꾸기 위해 줄속 제작됐다고 비판 받아 온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전체 체계와 예문까지 뜯어고쳐 2008년 새롭게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장면이냐 짜장면이냐’로 대표되는 외래어 표기 문제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줄이기 위해 국민이 일상 언어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규범 준수의 의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권재현 기자 confetti@donga.com



(22) [인물 동정] '국립국어원(원장 이상규)' 外

[동아일보] 2007. 02. 07. 33면

◇국립국어원(원장 이상규)은 6일 몽골 교육문화과학부 투무르오치르 차관 및 국립사범대 자툼바 총장과 세종학당 개설을 위한 업무협정을 체결했다. 국어원은 아시아 각국에 100곳의 세종학당을 개설할 예정이다.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은 10일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열리는 2006학년도 세종사이버대학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양국화 사회의 극복방안'에 관해 특강한다.

(23) 영어마을엔 2천억, 세종학당엔 5억, “국어학자로서 자괴감을 느낀다”

[민중의 소리] 2007. 05. 02

국어발전과 보존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국립국어원 이상규 원장을 만났다. 긴 회의가 방금 끝났는지 얼굴에는 지친 모습이 역력했지만, 넉넉한 웃음과 인품은 여전해 보였다. 가파른 비탈길을 위태롭게 달려가고 있는 국어의 미래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가시나무 같은 잡목을 걷어내는 고통 없는 힘든 일. 한글 자음과 모음이 새겨진 벵타이를 차고 있는 그에게 ‘모국어’에 대한 애착이 더욱 강하게 느껴진다. 늘 향숙 내음이 자욱한 얼굴로 깊은 생각에 잠기고, 신중하고 겸손하게 말하는 이상규 원장의 모습은 기자에게 많은 배움을 준다. 모든 것이 혼돈에 빠지고,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릴지라도 한 그루 무화과나무처럼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이다. 실망을 하려거든 정녕 쓸모가 없어질 때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1년 5개월 동안 국립국어원을 이끌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왔던 소감을 물었다.

“국립국어원에 부임할 당시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타성에 젖었을 가능성이 높았죠. 그래서 엘리트



들인 국어원 가족들을 창의적인 사람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히려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죠. 저는 서울 SKY대학 출신도 아니고,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국가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접근했을 뿐입니다. 국어를 사랑하는 것은 민족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립국어원은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국립국어원에 더 큰 애정과 사랑을 보내줬으면 합니다.”

아울러 이상규 원장은 “국어원에 있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아지랑이가 맞는지, 아지랭이가 맞는지 중고등학교 시험문제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학생들이 참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했지요. 국어를 올바르게 쓰는 문제가 꼭 이런 것을 시험문제로 내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혀 창발적이지도 않고요. 그런데 문화부에서 오가는 각종 공문서나 내부 문서를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외국어와 한자가 너무 많았거든요. 또 자기들끼리 소통하는 언어를 지방에 공문으로 보내고 있으니 국민들도 외국어와 외래어를 남용하게 됩니다. 정말 이러다가 우리나라 언어가 소멸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것들을 억제해야합니다.”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웹 전자사전을 만든다.

한국의 IT산업은 실로 놀랍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뜨겁고 자유롭다. 걸어가기도 까마득한 농촌에 인터넷 라인이 깔리고, 외딴 오지에서도 무선인터넷을 통해 세상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상규 원장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을 IT산업이 이끌어왔지만, 국어라는 소통 매체가 없었다면 불가능 했을 것”이라면서 국어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사회가 IT산업으로 넘어오면서 국어가 단순한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국가 발전의 에너지가 됐습니다. 80~90년대에는 ‘대자보’라는 언어 매체를 통해 이 땅에 민주화가 심어졌고, 이후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초고속정보망’으로 지역을 탈피한 민주화가 성장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한글이 있었죠. 언젠가 아내가 싸리버섯을 사왔는데 요리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학명에서부터 요리방법까지 양질의 정보가 가득하더군요. 요즘 성인컨텐츠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저는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통제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스토리텔링으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 자연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국립국어원은 웹을 기반으로한 전자사전을 만들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모두 들어와서 검색할 수 있도록요.”

세종학당 100여 개 세운다.

국립국어원은 몽골을 기점으로 5년 동안 세계 각국에 100여 개의 세종학당을 세울 예정이다. 외국인들이 손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해 국가발전을 이뤘내겠다는 포부이다. 하지만 이상규 원장은 “식민지 시대의 제국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라 문화 상호주의의 바탕이 기본”이라면서 “새로운 형태의 문화제국주의는 아니”라고 말했다.

“20세기 제국주의 시대에는 국가가 전략적으로 언어를 통제했습니다. 미국은 필리핀 원주민들의 모국어인 타갈로그(Tagalog)어 대신 영어를 사용하게 했죠. 5% 정도의 필리핀 지배계층에게 영어를 사용하게 해 일반 국민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만들었던 것이 미제국의 세계경영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필리핀에서는 영어 소통이 안 되면 왕따를 당하고 덩달아 인권, 사회 균등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자원이 풍부하지만, 언어 때문에 국가가 통합능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이처럼 20세기 식민지 정책은 언어약탈정책이 우선이었습니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모국어가 우수하기 때문에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이제는 캠프인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겨레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국어발전기본계획에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도록 국어를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세종학당은 상호 문화를 존중하고 문화 다원화적인 방식에서 추진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합니다.



민중의 가치를 존중하고, 아주 소박하게 추진할 예정이며, 국가 간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미국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약소 국가의 민족과 문화를 보호하려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곳곳에 들어선 영어마을, 국어학자로서 자괴심을 느껴

입시에서도, 취업에서도 영어는 개인의 능력을 측정하는 유일 무일한 도구가 됐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능력도 출중하다는 이분법이 이 사회에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때문에 돈 좀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조기영어 유학 대열에 합류시키기 위해 혈안이다. 여러 지자체에서도 앞 다투어 영어체험마을을 만들고 있다.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영어를 배우기 위해 학원으로 향하는 학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 미간이 찌푸려진다. 너무 과도하게 영어교육에 매달리는 까닭이다. 점점 ‘고립무원’에 빠지고 있는 국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상규 원장은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 외국어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문제는 모국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에 있다”는 지적이다.

“생존을 위해 거스를 수는 없지만,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하지 않아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기문 유엔총장이 어렸을 때부터 영어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영어에 왜 그렇게 매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마을에 파주시가 500억, 인천시가 무려 2,000억을 쏟아 붓겠다고 합니다. 세종학당은 5년 총 예산이 5억인데요. 정말 자괴감을 느낍니다. 세종학당에 한 해 100억씩 5년만 투자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중국 ‘공자학당’은 중국어 보급을 위해 연간 4,000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웃



남북통일언어, 통일의 초석 된다.

남과 북이 갈라진지 반세기가 훌쩍 지났다. 남과 북의 언어가 서로 다르게 변화, 발전해오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또한 전통문화가 숨 쉬는 아름다운 우리말도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 겨레말큰사전 편찬 위원이었던 이상규 원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하다.

이 원장은 “남북통일언어에 관심이 많다”면서 “남과 북이 서로 규범을 정하고 적절하게 조정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한 숙명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인식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개를 절레 절레 흔드는 사람들이 있죠. 최근 남북 국어학자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언어를 존중하는 가운데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요. 서울말이 아니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투리도 그렇습니다. 서울의 ‘부추’ 보다 전라도의 ‘술’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제주에는 ‘오름’이 있는데 사전에는 없습니다. ‘오름’ 그 속에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삶이 묻어 있는데도요. 토박이 언어인 목포의 ‘삼합’, 포항의 ‘과메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도 상주에 가면 ‘콩지름 희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콩나물을 콩가루로 무친 것입니다. 콩나물은 다산을 상징하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고대 농경문화의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단어지요. 그러한 언어를 살려야 합니다. 겨레말큰사전보다 큰 차원에서 남과 북이 해결해야 합니다. 언론에서도 냉담하기만 합니다. 여론의 독려가 필요합니다.”

국립국어원은 소외계층에 한국어를 보급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다. 국제결혼을 한 사람이나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 등을 위해 한글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오디오 교재도 개발해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상규 원장은 “부족한 것이 많겠지만, 적은 예산을 타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홀함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국어

가나

학자로서의 소원을 털어놓았다.

“북측에 점자기가 필요한 인구가 3십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점자기를 공급하고 싶습니다. 맹인들을 위한 점자를 노트북으로 작성할 수 있는 기계가 500만원에 이릅니다. 북에 많이 전해주고 싶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물론 남북의 언어가 정리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모국어가 통일의 초석이 되고 국가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층집 창문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 거리에 늘어선 상가 간판과 창문에는 일본어와 영어가 희뿌연게 도배되어 있는 반면 그 집만은 한글 자음과 모음을 창문에 붙여 놓았다. 한데 얹히고 아무렇게나 늘어놓았지만, 웬지 모르게 정감이 갔다.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 붙여 놓은 듯하다. 이상규 원장이 한 평생을 국어학자로 살아온 ‘보람’이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 어디를 돌아봐도 외래어, 외국어가 보이지 않는 곳이 없다.

오늘 따라 한글이 삶의 한기를 녹여주는 것 같다.

(24) 해외 '한국어 학교' 10년 내 200개로 확대

[부산일보] 2007. 04. 04. 25면

해외 '한국어 학교' 10년 내 200개로 확대

국립국어원, 국어발전 3대과제 추진

“현류는 국어 발전에서부터.”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원장 이상규)은 최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어발전을 위한 3대 중점 추진과제와 10대 부문별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국립국어원이 추진할 3대 중점과제는 국어 교육

·연수 체계 정비,한국어 문화권역 확대 전략 추진, 한국어 학습용 웹사이트 제작의 정비,국가 언어정책의 확산,남북 언어교류 확대,소외계층을 위한 언어복지 사책 강화,국어 사용환경 개선과 의사소통 증진 국어능력 증진 여건 조성,언어 사용의 다양성 조사,국어정보망 구축,국어유산의 보전과 한글의

산업화,홍보활동 강화 등이다.

국어원은 특히 베트남,몽골어,러시아어 등 한 국어 학습수요가 많은 5개 언어 사용자들 대상으로 2008년까지 한국어 학습용 웹사이트를 우선 개발할 예정이며 개방형 한국어 문화학교인 ‘세종학당’을 10년 안에 해외에 200개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국어발전 기본계획은 지난 2006년 7월 국어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정부는 앞으로 5년마다 3개월이 계획을 수립,그 시행 결과를 3년마다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김진경기자 jkim



(25) 한 브랜드 구체화한 한 스타일, 전복은 무엇을 잡아야 하나?

[새전북신문] 2007. 02. 22

한 브랜드 구체화한 한 스타일, 전복은 무엇을 잡아야 하나? 지난주 문광부가 ‘한 스타일(Han-Style)’ 사업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전통문화중심 거점 도시로서 전주가 선점해야 할 핵심 콘텐츠는 무엇일까? 국회 이광철 의원(열린우리당 전주완산읍)은 “한식, 한옥, 한지, 한국 음악 등 한 스타일 6대 사업이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 사업의 핵심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1일 열린 임시국회 문광위 문화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지난 15일 밝힌 한 스타일 육성 종합계획은 그동안 문광부가 발표한 계획 중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창의적인 사업계획”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힌 뒤 “한 스타일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도 문광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광부가 마련한 한 스타일 종합 육성 계획은 전통문화 콘텐츠로 새로운 ‘한류’를 조성한다는 전략으로 그동안 추진된 ‘한 브랜드 사업’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문광부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2,700억원의 예산을 들여 한글·한식·한복·한옥·한지·한국 음악 등 우리나라 고유문화의 6대 분야를 산업화·세계화하는 방안을 세워놓고 있다.

5년 동안 △한글 보급을 위한 세종학당 해외 100개소 개설, △김치, 불고기, 비빔밥 등 해외 진출용 10대 대표음식 선정, △프랑스 ‘르 꼬르동 블루’를 모델로 한 한식요리학교 육성, △정부 학교에 ‘한복 입는 날’ 지정, △한복 착용시 박물관 등 무료입장, △한복 홍보대사 선정, △한복 디자인 공모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옥관리인제도·한옥건축 전문기술자 제도 도입, △다중이용 시설의 한옥 건축 모델 제시, △행정복합중심도시에 한옥마을 조성 검토, △국산 한지 인증제 실시, △한지 스피커·절연지·건축자재·무공해



필터 등 기능성 한지 개발, △전통예술단과 국악 비보이 등 해외진출 지원, △해외 국악문화학교 운영 지원, △영화, 드라마 음악, 휴대전화 벨소리 등에 필요한 국악음악 개발 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이날 특히 “전라북도는 닥나무 최대 생산지역으로 한지의 본고장이지만 정부의 뚜렷한 지원책 부족으로 소멸한 문화가 소멸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한지 장인에 대한 생계 지원을 마련하고 닥나무 수매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초적인 지원책부터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서울=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26) [설왕설래]세종학당

[세계일보] 2007. 01. 13. 23면

세계에 6000~7000개 언어가 있다고 한다. 그 가운데 사용인구가 100명 미만인 언어는 500개, 1만 명 미만인 경우는 3000개 정도인 것으로 언어학자들은 추정한다. 그러나 사용인구가 10만 명 언어는 400개 정도 이고 100만 명 경우는 130여개에 불과하다. 모국어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중국어, 스페인어, 영어, 방글라데시어, 힌두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일본어, 독일어, 인도네시아어, 한국어, 프랑스어 등이다. 세계 도서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도 주요 언어는 12개 정도다. 이 가운데 로마자로 된 출판물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인터넷 발달과 영어 세계화의 확산으로 약소국가의 수많은 언어가 사멸해 가고 있다. 유네스코 보고서에 따르면 현존하는 언어 가운데 90% 이상이 향후 100년 내에 사라진다.

언어 지형이 급변하면서 세계 주요국이 언어전쟁에 나서고 있다. 2004년 11월 서울에 처음으로 공자학원을 설립한 중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중국어와 문화 전파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영어를 경쟁상대로 삼아 이미 51개국에서 125곳의 공자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2010년까지 500곳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중국어를 세계 2대 언어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자학원의 팽창세를 의식한 일본도 한국 태국 이집트 등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10여 곳의 일본어 학습거점을 100곳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프랑스문화원은 세계 950여 곳에서, 영국문화원은 126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세계 곳곳의 현지인에게 한글을 보급하기 위해 한글 학교인 세종학당 100개소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글도 세계 언어 전쟁에 뛰어들 것이다. 어찌 보면 국내에서 조기 영어교육 열풍으로 한글이 주눅 들어 있지만 해외에서는 한글을 배우려는 외국인이 꾸준히 늘고 있다. 분초를 다투는 전자정보 시대에 다른 어떤 언어보다 쉽게 배우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한글의 우수성 때문이다. 언어는 민족혼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다. 우리의 문화가 한글과 함께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안경엽 논설위원

(27) "콘텐츠 주무부처로 준비하고 있다"...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아이뉴스24] 2007. 01. 11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11일 문화관광부 청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화부는 '열정'과 '신명'의 '창조정신'으로 국민을 위한 문화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지난 해 3월 문화부 장관이 됐다. 장관 취임당시에는 '현장중심의 문화행정'을 강조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직원과 국민들이 신명나는 문화행정을 말하고 있다.

김명곤 장관은 이날 2007년 주요 역점 사업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제체육대회 유치 ▲콘텐츠 주무부처로서 방송통신 융합시대 대비 ▲한민족 문화대축전 개최 ▲'한 스타일' 등 한류 진흥 ▲문화비전 2030 수립 등을 꼽았다.

또 "2006년은 바다이야기 사태 등으로 인해 문화부가 어느 때보다 인복과 욕복이 있었던 해"라며 "지난 해 전통예술 진흥, 기초예술 진흥정책,



태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등 굵직한 이슈들을 추진했는데, 바다 이야기에 묻혀버린게 아쉽다"고 말하기도 했다.

올해 역점 계획과 관련해서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7월에, 대구 세계육상대회 개최가 3월에, 인천 아시아게임 유치가 4월에 각각 결정 되는 데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뉴미디어 시장에서 콘텐츠 주무부처가 되기 위해 미래비전으로서 중요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9월말부터 10월말까지 한가위와 문화의날까지 국민문화 축전을 만들 예정"이라며 "한 브랜드를 한 스타일로 결정해 방송, 영상, 가요 중심의 한류를 한글과 한국음식, 의복, 건설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2030년까지 세계 최고의 문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문화비전 2030을 만들고 있다"며 "문화예술, 관광, 체육, 미래 등 5개 분야에서 60여명의 전문가 자문단을 두고 있는데, 3월중 세계적인 문화포럼을 개최해 문화비전을 새롭게 가다듬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명곤 장관과의 일문일답.

-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할 생각은, FTA로 인한 문화산업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한 생각은.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은 문화부 독자 결정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문화부는 의욕적으로 한글 활성화에 관심을 두고 있다. 세계 곳곳에 세종학당을 만들 계획도 있다.

문화산업과 관련된 FTA 이슈에 대해서는, 이익이 되는 부분은 끝까지 방어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송, 영화,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보호 등 보수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문화부는) 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문제는 종교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재경부 세제실이 국세청과 협의 중이다."

이웃



-한 스타일의 구체적인 계획은.

"한 스타일은 한글, 한복, 한국음식, 한국음악 등을 브랜드화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 한지라면 한지 생산자와 제조기술을 가진 지역인 원주나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다."

-체육정책과 관련, 국민건강부문에 대한 관심은 덜한 것 같다.

"그렇지 않다. 문화부는 체육단체의 경영혁신이나 어린 엘리트 선수 육성 외에도 생활체육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저소득층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바우처 제도 등은 어떻게 준비되나.

"관광바우처만 말하자면 저소득층이나 외국인근로자 등을 위한 별도의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지난 해 바다이야기 여파로 게임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문화부는 건전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해 올 해 예산비중을 15%정도로 잡았다. 불건전 게임 사후 관리에도 집중하지만, 게임 특히 온라인 게임의 제작, 개발, 유통, 해외 수출은 꾸준히 지원하겠다. e스포츠 분야도 집중 육성하겠다."

-영화 관람료에서 영화산업발전기금을 부담하게 되면 관람료가 오를 우려가 있지 않나.

"극장업계와 협의 중이다. 3% 정도로 간다면 관람료 인상 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콘텐츠 업무 분장과 관련,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데 비전이나 조직개편을 별도로 하는 건 이기주의 아닌가.

"우리가 말하는 콘텐츠는 문화관련 콘텐츠다. 융합논의와 관계없이 디지털 시대에 맞게 문화부가 해야 할 일이다. 조직개편은 일단 뉴미디어산업 정책팀과 저작권진흥팀을 만드는 것을 하고, 중장기 과제로 콘텐츠산업국 등을 둘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부처협업이 필요한 부분이다."



-오늘 언론노조에서 방송시장 개방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 문화부는 미국의 방송시장 현행유보 주장과 관련, 어떻게 보나.

"방송의 경우 미래유보 돼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없다. 방송위와 협의하고 있다. 경제부처에서 공식적으로 현행유보로 하자고 말한 적은 없다. 우리는 이익이 되는,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은 끝까지 방어한다는 입장이다. 방송, 영화,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보호 마찬가지다. 보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

-국회에서 천영세 의원이 멀티플렉스 독점 제한 법률을 제출했다. 영화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타개하는 법안으로 보나. 문화부 입장은.

"천 의원 법안은 문광위에 제출돼 있고, 아직 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영화산업활성화계획의 틀 안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이 문제는 영화계와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다.

스크린독과점 문제에 대해 예산 지원을 할 수도 있다. 극장들이 경영하는데 있어 순수 예술영화 비중을 늘리도록 배려하고 유도하겠다."

김현아 기자 chaos@inews24.com

(28) 중국 연변대학에도 '세종학당' 연다.

국립국어원, 연변대와 세종학당 업무 협정 맺어

[오마이뉴스] 2007. 05. 30

오륙십만 재중동포가 사는 조선족 자치주 연변, 그곳엔 2만3000명의 학생이 공부하는 연변대학교가 있다. 연변대학교는 중국 공산당 동북국이 맨 먼저 설립한 대학이다.

특히 연변대학교의 한국어언어문학학과는 2001년 중국 교육부의 심사를 통해 9개의 국가급 중점학과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연변대학교는 조선-한국학학원(한국의 단과대학)을 중심으로 언어학연구소, 조선문학연구소, 조선-한국학연구센터, 중조한일(中朝韓日)문화비교연구센터, 민족연구원, 동북아연구원 등이 있고, 중국 내 한국학 연구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중국 동북지역 최고의 대학에 국립국어원이 올해 야심차게 시행하는 '세종학당'을 설립하기 위한 협약식이 29일 오전 11시 30분에 국립국어원에서 열렸다. 협약식에서 이상규 국립국어원 원장은 "연변대학교와 손을 잡고 세종학당을 설립함으로써 중국 동북지역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전진 기지를 가지게 되었다"고 인사말을 했다.

이어 김병민 연변대학교 총장은 "세종학당의 설립은 연변대학교로는 큰일일 수밖에 없다. 세종학당의 설립으로 우리 연변대학교는 중국 내 한국학의 중심을 더욱 확고하게 다지게 되었다. 이것이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영광이다"라고 화답했다.

이어서 최용기 국립국어원 국어진흥교육부장과 김영수 연변대학교 조선-한국학학원원장이 업무협정서를 낭독했다.

이 협정서에는 중국 연변대학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세종학당의 개설과 지원, 한국어와 중국어, 한국 문화와 중국 문화의 비교 연구,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과 교육 자료의 보급, 중국 지역 내 한국어 학습 수요에 대한 실태 조사와 연구 등을 두 기관이 협조한다는 내용이었다.

협약식의 정점으로 이상규 원장과 김병민 총장은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주고받았다. 이로써 두 기관은 연변에 세종학당을 설립하기 위한 협약식을 마쳤다.

이후 식사를 한 뒤 늦은 2시부터는 국립국어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김병민 총장의 '중국 연변대학교의 한국학 연구와 중한 문화 교류'라는 제목의 특강이 있었다.

김 총장은 특강에서 "연변대학교는 중국 내 한국학과 관련 인재의 양성 기지이며, 중국 내 한국학 연구의 핵심 기지이고, 중국 내 한국학 연구를 보여 주는 국제적인 창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연변대학교에서 한국학 연구는 학문적 연구이기 이전에 생존 및 생존 방식 그 자체였고, 또한 가장 기본적인 존재 가치였다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이 특강의 결론으로 "우수한 문화는 자국에서뿐 아니라



광범위한 문화 교류를 통해 수용자 국가에서도 보편적인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 문화는 이러한 우수성을 분명히 갖추고 있다. 따라서 연변대학교의 한국학 연구는 중한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여 한국 문화의 문화적 가치를 중국에서의 재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이어서 한류에 대한 견해도 덧붙였다. "수천 년의 역사와 전통 속에 깊게 뿌리내린 중국인의 한국관은 대중문화에 열광하는 청소년들만 가지고는 쉽게 바뀔 수가 없다"라며, 한류는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깊이 있고 차별화된 그리고 사랑이 담긴 방식으로 고쳐 나가야 한다고 훈수를 두었다.

"언어 속에 숨어 있는 문화적인 함의 가르쳐야"

[인터뷰] 김병민 연변대학교 총장

- 연변대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연변대학교는 중국 내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유수의 대학이다. 특히 한국학에 관한 한 최고의 대학일 것이다. 현재 비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근 50여개 정도의 종합대학과 수십 개의 전문대학, 단과대학들에 한국어학과가 설립 되어 있는데 이러한 학과들의 교수진 중 85% 정도가 연변대학교 출신들로 집계될 정도이다."

- 조선족들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이중 언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삶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

"이중언어의 사용은 특히 중국 주류사회에 뛰어들어 거주국에 공헌함으로써 조선족이 중국에서 살아가는 데 아주 유리한 환경이 되며, 동시에 자기 정체성도 유지할 수 있는 언어생활이다."

- 연변대학교에 세종학당을 설립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연변대학교는 중국 내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연구하는 중심이다. 이런 대학교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는 세종학당을 설립하는

이웃



것은 지극히 적절한 일이다. 세종학당을 통해 한국어 인재의 양성, 한국어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연변대학 세종학당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중국에 전파하는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언어 교육은 언어만이 아닌 문화와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

"언어 교육은 언어 자체만의 교육이 될 수 없다. 언어 속에는 엄청난 문화를 안고 있으며, 사유, 가치 관념, 지혜, 저력 등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언어 교육에는 언어 속에 숨겨진 문화적 함의가 바탕이 될 수밖에 없다. 다행히 세종학당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도 같이 교육한다니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 조선 문학을 전공한 것으로 아는데 어떤 문학을 좋아하나?

"나는 김시습, 박지원, 신채호 등을 좋아한다. 그들은 괴짜지만 양심과 재주를 겸비하고 있으며, 새로운 문화를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지니고 있어서 좋다. 또 그들은 하나같이 벼슬길에 연연하지 않는 자세를 지녔다. 특히 신채호는 민족주의 역사관을 정립하는 데 뛰어난 공을 남겼다."

김병민 총장과와의 대담은 일정이 빽빽하여 이동하는 차 안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소탈하고 사람 냄새나는 모습으로 대해 부담이 없었다. 그런 특징이 그를 동북지역 가장 큰 대학교의 총장으로 올려놓은 바탕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김영조



(29) 〈청양〉 몽골교육 문화과학부차관 청양대학 방문

[중부매일] 2007. 02. 07

〈청양〉 몽골교육 문화과학부차관 청양대학 방문 이병인 기자 byung813@jbnews.com 몽골 교육문화과학부 터머르-오치르 산즈백즈 차관 등 7명의 방문단 일행은 7일 오전 11시 청양대학을 방문 청양대학과 몽골 한가이대학(학장·치메드체렌 다스라브단)과의 교육·교류협력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터머르-오치르 몽골 교육문화과학부 차관은 양 대학간의 교류 가능한 분야를 최대한 검토하여 내실 있는 교육·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의하고 청양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였다.

정취영 청양대학장은 몽골과 한국의 민족적 유사성을 언급하면서 한가이대학과 청양대학의 교육, 교류협력이 알차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거듭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국제화 시대에 양 대학이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 국립국어원과 몽골 교육문화과학부, 국립사범 대학교간 세종학당 설치 MOU체결을 위해 방한하는 기간 중에 성사 되었다.

(30) 외국에 한글 알리는 '세종학당' 세운다.

[한겨레] 2007. 01. 12. 25면

세계 각국에 한글을 알리고 보급하는 한글학교인 '세종학당'이 세워진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문화부가 운영하는 해외 문화원과 각국 현지 대학에 한글 보급을 위한 '세종학당'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학당 사업은 국립국어원이 주관하며, 현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글과 한국 문화를 가르치게 된다. 올해 3월 몽골 울란바토르대학과

세종학당



중국 베이징 중앙민족대학 등 2곳에 우선 세종학당을 설립하며, 하반기에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 2~3곳을 추가로 열 계획이다.

한국어보급팀 이준석 학예연구관은 “중국은 세계 51개국에 125곳의 ‘공자학원’을 운영하면서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현지인에게 가르치고 있다”면서 “국어원도 해외 한국문화원 12곳을 비롯해 현지 대학이나 교육시설에 2011년까지 ‘세종학당’을 100곳 이상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본준 기자 bonbon@hani.co.kr, 연합뉴스

외국에 한글 알리는 ‘세종학당’ 세운다

올해 몽골 등 4~5곳 계획

세계 각국에 한글을 알리고 보급하는 한글학교인 ‘세종학당’이 세워진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11일 기자 간담회에서 문화부가 운영하는 해외 문화원과 각국 현지 대학에 한글 보급을 위한 ‘세종학당’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학당 사업은 국립국어원이 주관하며, 현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글과 한국 문화를 가르치게 된다. 올해 3월 몽골 울란바토르대학과 중국 베이징 중앙민족대학 등 2곳에 우선 세종학당을 설립하며, 하반기에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 2~3곳을 추가로 열 계획이다.

한국어보급팀 이준석 학예연구관은 “중국은 세계 51개국에 125곳의 ‘공자학원’을 운영하면서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현지인에게 가르치고 있다”면서 “국어원도 해외 한국문화원 12곳을 비롯해 현지

대학이나 교육시설에 2011년까지 ‘세종학당’을 100곳 이상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본준 기자 bonbon@hani.co.kr, 연합뉴스



(31) 한국어 · 문화 전 세계에 보급... 세종학당 100곳에 세운다.

[한국일보] 2007. 01. 12. 1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해외에 보급하기 위해 2011년까지 세계 곳곳에 ‘세종학당’ 100곳이 건립된다.

현지 대학을 중심으로 일반인들을 위한 한글학교인 ‘세종학당’을 설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 주관은 국립국어원이 맡게 되며, 올해는 3월에 몽골 울란바토르 대학과 중국 베이징(北京)에 있는 중앙민족대학에 ‘세종학당’을 설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 2, 3곳을 추가로 개설한다. 문화부는 연도별 설립수를 늘려나가 2011년까지 100개소를 개설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해외 한국어 보급은 한국학을 전공하는 상류 지식층 위주로 이뤄졌다. 그러나 ‘세종학당’은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즈’나 독일의 ‘괴테 인스티튜트’처럼 현지 일반인 대상의 소규모 언어학교로 운영된다.

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

(32) [말들의 풍경-고종석의 한국어 산책] <51 · 끝> 한국어의 미래

[한국일보] 2007. 02. 20. 25면

수천에서 1만 여에 이른다는 자연언어들 가운데, 그 말을 쓰는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한국어의 순위는 어디쯤일까? 개별 언어와 방언의 경계를 구기가 쉽지 않아서 한국어의 순위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이러면 흔히 아랍어라 부르는 서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지역 언어를 그 고전적 형태(문어 형태)에 주목해 한 언어로 간주하면, 한국어의 순위는 아랍어보다 크게 뒤질 것이다. 그러나 각 지역마다 사뭇 다른 구어 형태의 아랍어들을 서로 다른 언어로 친다면, 한국어는 그 각각의 아랍어들(이집트 아랍어, 알제리 아랍어 등)보다는 큰 언어다.

이렇게 기준이 물렁물렁하긴 하지만, 순위를 일추 가능할 수 없는 것은

이웃



아니다. 남북한과 해외의 한인공동체 인구를 7,500만 남짓으로 잡으면, 그 사용자 수로 볼 때 한국어의 순위는 12, 13위 정도 된다. 1억 가까운 사람이 쓰는 독일어보다는 작은 언어지만, 7,200만 남짓 되는 사람이 쓰는 프랑스어보다는 큰 언어다. 수천이 훨씬 넘는 언어들 가운데 12, 13번째로 사용자가 많다는 것은 한국어가 매우 큰 언어라는 뜻이다.

그러나 그 12, 13위라는 순위만큼 한국어가 위풍당당하지는 않다. 우선, 순위의 앞머리 세 자리를 채우고 있는 베이징어(보통화), 스페인어, 영어의 사용자 수가 3억에서 9억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고작 수천만의 화자를 거느린 한국어의 비중은 탐스럽지 않다. 남한 인구가 정체 상태에 있는데다가 북한 인구는 심지어 줄어드는 추세여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한국어 사용자가 늘어날 것 같지도 않다.

더구나 12, 13위라는 순위가 어떤 자연언어를 제1언어(모어,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 수를 기준으로 매긴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한국어의 상대적 위세는 훨씬 더 초라해진다. 사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

수천 개의 자연언어 중 한국어의 순위는 12, 13위
제2, 3 외국어로 배울 매력적인 조건들도 많지 않아
한국어 학습 외국인들 “학습교재 단조롭고 부실” 불만
정부 추진 세종학당도 효율적 학습교재 마련돼야 실효

영어가 베이징어보다 훨씬 작은 언어고 심지어 스페인어보다도 약간 작은 언어라고 할 때, 그것은 이 언어들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 수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은 3억2,000만 남짓으로 추정돼 3억3,000만 남짓으로 추정되는 스페인어 사용자보다 조금 적다.

그러나 영어를 스페인어보다 비중이 작은 언어로 판단하는 사람은 없을 테다. 영어는 지구 행성의 보편어에서 그리 멀지 않는 국제 교통어의 지위를 이미 확립했지만, 스페인어는 이베리아 반도와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일부에 갇혀 있으니 말이다.

사람들 대부분이 제 모국어에 이어서 배우는 언어는 베이징어나 스페인어가

가나

아니라 영어다. 영어는 스페인어나 (9억 인의 모어인) 베이징어보다 비중이 큰 언어인 것이다.

한국어는 모국어 사용자 수를 기준으로 매긴 순위보다 교통어로서의 순위가 사뭇 떨어지는 언어다. 그것은 한국어공동체 바깥에서 한국어가 그리 매력적인 언어가 아니라는 뜻이다.

제1언어로 한국어를 익히는 사람은 제1언어로 프랑스어를 익히는 사람보다 많지만, 한국어가 프랑스어보다 더 비중 있는 언어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없을 게다. 프랑스어를 제2언어나 제3언어로 익히는 사람은 수억 명에 이르겠지만, 한국어를 제2언어나 제3언어로 익히는 사람은 아주 늘려 잡아도 수백만 명 정도일 테니 말이다.

교통어로서의 비중만 보면, 한국어는 모국어 화자가 6,000만이 안되는 이탈리아어보다도 덜 중요한 언어다. 그렇다면 교통어로서 한국어의 미래는 어떻게? 다시 말해, 외국어로서 한국어의 미래는 어떻게? 이 질문은, 자신이 배울 외국어를 고르는 기준으로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라는 질문과 관련돼 있다.

사람들은 우선,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쓰는 언어를 배우고자 한다. 어떤 언어를 쓰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언어의 커뮤니케이션 폭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국어 화자가 가장 많은 베이징어나 교통어 화자가 가장 많은 영어는 이 언어들이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제2언어 후보가 된다.

이미 많은 사람이 쓰고 있는 언어를 사람들은 배우려 들고, 그러니 그 언어를 쓰는 사람은 더 많아진다. 부익부 빈익빈인 셈이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7,500만 남짓의 인구집단은 이 언어를 외국어로 배우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키기에 모자람이 없는 규모다.

그러나 모어 화자가 이렇듯 많은 데 비해, 한국어를 교통어로 사용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한국어 공동체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힘이 가까운 과거에 이르기까지 그리 크지 못했고, 한국인들이 역사의 오랜 기간 국제교류에 소극적이었다는 뜻이겠다.

이웃



이 점이 교통어로서 한국어의 가능성에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시 말해 畸踈低? 외국어로 익히는 사람이 지금 적다는 사실이 앞으로도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고자 하는 욕망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 다음, 첫 번째 조건과 부분적으로 겹치겠지만 중요성에서는 아마 으뜸으로, 사람들은 제게 경제적 이득을 베풀 언어를 제2언어로 배운다. 사람들이 (모국어 화자가 가장 많은) 베이징어를 제쳐놓고 영어를 제2언어로 배우려 드는 것은 영어가 경제활동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어지간한 회사에 일자리를 얻으려 해도 영어를 다소 아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에서 영어는 각급 학교의 필수 외국어로 지정돼 있다.

고를 권한을 학생들에게서 박탈할 만큼 영어는 온 세상의 교육과정에 깊이 뿌리내렸다. 그것은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의 경제적 힘과 관련이 있다. 북한과 함께 한국어 사용권의 핵심부를 이루는 남한 지역의 경제적 활력은 교통어로서 한국어의 미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베트남이나 몽골처럼 한국과 경제관계가 긴밀해진 나라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셋째, 사람들은 문화 영역의 자아실현을 위해 외국어를 배운다. 여기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허영심이다. 이를테면 프랑스어는 스페인어에 견주어 모어 화자가 훨씬 적다. 그러나 아메리카 대륙을 뺀 대부분 지역에서, 외국어로 프랑스어를 배우는 사람이 외국어로 스페인어를 배우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

거기엔 프랑스어권에서 축적된 문화가 스페인어권에서 축적된 문화보다 더 풍요롭다는 판단이 개재돼 있다. (거기엔 또 부분적으로 정치적 이유가 개재돼 있다.

한 때 유럽의 중심 국가로서 스페인 못지않게 넓은 해외 식민지를 경영했던 프랑스는 오늘날 유럽연합이나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스페인보다 훨씬 더 큰 정치적 발언권을 지니고 있다.) 외국인들의 문화적 허영심을 만족시킬 매력이 한국어에는 넉넉하지 않다. 역사의 대부분 기간에 한반도 문화는 고전중국어로 다시 말해 한문으로 축적

가나

됐고, 한국어가 문화의 도구로서 본격적으로 행세하기 시작한 것은 고작 한 세기 남짓 전이기 때문이다.

넷째, 사람들은 배우기 쉬운 언어를 배운다. 다시 말해 제 모국어와 문법 유형이 비슷하거나 어휘가 닮은 언어를 익히려 한다. 일본의 경제력은 프랑스를 포함한 프랑스어권 전체보다 크다. 그렇지만 외국어로 일본어를 배우는 사람 수는 외국어로 프랑스어를 배우는 사람보다 훨씬 적다.

그 이유의 큰 부분은, 앞에서 시사했듯, 프랑스어로 축적된 문화가 일본어로 축적된 문화보다 더 매력적으로 비친 데 있겠지만, 대부분의 언어권 사람들에게 일본어가 배우기 너무 어려운 언어라는 사정도 거기 포개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본이 세계적 규모로 행사하는 경제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사람들 다수는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문화권에 몰려 있다.

최근 들어 그 관계가 뒤집히긴 했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이나 스페인 사람들이 제2언어로 영어보다 프랑스어를 선호했던 것도 영어보다는 프랑스어가 이탈리아어나 스페인어와 더 닮아 배우기 쉬웠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연관효과’라 부를 만한 것도 학습동기 부여에 간여한다는 점을 지적하자. 사람들은, 꼭 제 모국어와 닮지 않은 언어일지라도, 서로 닮은 언어들이 많은 언어를 배우고 싶어 한다. 이를테면 프랑스어를 외국어로 익힌 사람이 그 다음에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나 이탈리아어를 배우기는 쉽다.

네덜란드어를 외국어로 익힌 사람이 그 다음에 독일어나 덴마크어나 영어를 익히는 것도 쉽다. 그러나 동아시아 바깥사람이 일본어를 어렵사리 배워보았자, 그 ‘연관 효과’로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는 한국어 정도다. 그러니 일본어는 동아시아 바깥사람들에게는 덜 매력적으로 보인다.

한국어도 같은 처지다. 한국어를 익히는 사람들이 그나마 일본에 꽤 있는 것은, 두 나라 사이에 확대되고 있는 교류나 어찌해볼 수 없는 지리적

이웃



근접성 말고도, 일본사람들이 배우기에 한국어가 비교적 쉽다는 데 그 이유의 한 가닥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로 앞에서 내비쳤듯, 사람들은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까운 나라의 언어를 외국어로 배운다. 최근 프랑스어를 제치고 스페인어가 미국인들의 제2언어로 떠오른 것은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를 비롯해 라틴아메리카 지역 대부분에서 스페인어를 쓰는 데다가, 미국 사회 안에 스페인어를 쓰는 이민자가 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문화적 인접 효과가 지리적 인접 효과를 상쇄하는 경우도 있다. 루마니아나 폴란드나 세르비아 같은 중부 동부 유럽 나라들은 지리적으로 프랑스보다 독일과 더 가깝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외국어로서 독일어보다 프랑스어를 더 선호한다. 그 나라들에 이런저런 이유로 프랑스 애호가 퍼져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최근 늘어난 것도, 일본인들에 한국어가 비교적 배우기 쉬운 언어라는 사정에다가, 지리적 문화적 인접성(‘한류’에 대한 친화감을 포함해)이 포개지며 나타난 현상일 테다.

이런 모든 조건들을 따져서 판단할 때, 교통어로서 한국어의 미래는 밝지 않다. 다시 말해,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울 사람이 앞으로 크게 늘 것 같지는 않다.

한국어권 경제의 확장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학습 동기를 유발할 다른 요인들도 그리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래도 간접적으로나마 한국어를 배울 의욕을 북돋을 길은 있다. 그것은 사전을 포함한 한국어 학습 교재를 될 수 있으면 여러 언어로 다양하게 마련해놓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와 기업과 대학과 연구소가, 한국어학자와 외국어학자와 교육이론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한국어를 익히기 시작한 외국인들이 흔히 투덜거리는 것이 너무 단조롭고 부실한 학습 교재에 대해서다. 일리가 있는 불평이다.

좀더 많은 외국인이 한국어에 매력을 느껴서 이 언어를 배우길 우리가 바란다면, 그런 투덜거림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한국어를 보급하기



위해 세계 여러 곳에 세을 예정이라는 세종학당도 다양하고 효율적인 한국어 학습교재가 마련된 바탕 위에서야 제 구실을 할 것이다. 한국어는 쉽사리 눈에 띄지 않는, 조붓한 길이다. 시원하게 뚫린 한길이 아니다. 그러나 정성스레 닦아놓으면 그 길을 산책로로 골라 거닐 사람이 왜 없으랴.

고종석 객원논설위원 aromachi@hk.co.kr

(33) 아시아에 한국어 보급한다.

[헤럴드경제] 2007. 04. 01

아시아 현지인에게 한국어를 교육하는 전진기지 '세종학당' 200개교 설립이 본격화한다. 국립국어원은 세종학당 설립 등 '국어발전 기본계획' 3대 중점 추진 과제와 10대 부문별 추진 과제를 1일 발표했다. 3대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인 세종학당은 한류의 확산 등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고조되고 있는 한국어 학습 열기를 반영해 현지인에게 한국어를 보급하고 확산하는 기관이다. 세종학당은 현재 몽골에 2개교가 개원된 상태. 국립국어원 측은 "올해부터 2016년까지 아시아 지역에 세종학당 200개교를 세우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또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지원을 위한 언어권별 대역사전을 개발하고,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 국어 강좌를 개설하는 등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10대 추진과제로는 표준국어대사전 정비, 국가 언어정책의 확산, 남북 언어교류 확대, 소외계층을 위한 언어복지 시책 강화, 국어 사용 환경 개선과 의사소통 증진, 국어능력 증진 여건 조성, 언어 사용의 다양성 조사, 국어정보망 구축, 국어유산의 보전과 한글의 산업화, 홍보 활동 강화 등을 선정했다.

이고운 기자(ccat@heraldm.com)

세종학당



(34) 중국에 제3의 세종학당이 건설된다.

국립국어원, 중국 해양대학교와 세종대학 협약식 열어

[오마이뉴스] 2007. 9. 5.

우리 겨레를 제외한 순수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전파하는 첫 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은 국립국어원이 올해부터 야심차게 시작하는 사업이다. 국립국어원 이상규 원장은 지난 3월 19일 몽골 울란바토르 대학, 3월 20일 몽골 국립사범대학의 세종학당 개교식에 참석했으며, 3월 21일에는 중국 중앙민족대학의 어이타이 총장과 북경에서 업무협정 체결식에 참석함으로써 “세종학당” 사업의 첫발을 내디뎠다.

그 뒤 4월 4일엔 '국어발전기본계획 및 세종학당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으며, 5월 초에는 키르기스스탄공화국, 카자흐스탄공화국 등의 대학들과도 세종학당 협약식을 맺었고, 5월 29일엔 중국 연변대학과 협약식을 맺은 바 있다.

그를 이어 어제 9월 4일 이른 11시 국립국어원에서 이상규 원장은 중국 해양대학 우더싱 총장과 세종학당 개설을 위한 업무협정 체결식을 했다.

중국은 중앙민족대학, 연변대학에 이은 3번째 협약식이다. 중국해양대학은 1924년 설립한 중국 교육부 직속의 중점대학이며, 현재 18개 단과대학에 2만1000여명의 재학생과 1100여명의 교직원이 있는 대학이다.



▲ 국립국어원과 중국해양대학 간의 세종학당 업무협약식 장면. 국립국어원 이상규 원장과 중국해양대학 우더싱 총장이 협약서를 주고받으며 악수하고 있다. © 김영조

가나



▲ 국립국어원 이상규 원장(왼쪽)과 중국해양대학 우더싱 총장 우더싱 총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김영조

이상규 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중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려면 14억 중국 인민들이 지닌 유구한 역사와 미려한 문화의 배경 위에서 우리 문화가 추구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립국어원과 중국해양대학 사이에 맺게 될 세종학당 개설과 관련된 업무협정은 작은 출발이지만 세종학당의 설립을 통해 한국과 중국은 아시아의 문화 연대를 향한 동반자로서 기틀을 다질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우더싱 중국해양대학 총장은 “이상규 원장과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일치하여 여기에 오게 된 것이다. 지구촌이란 한마을에 사는 사람들끼리 문화교류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각자의 문화 전파과정에서 비슷한 점을 발견, 이를 융합하여 새로운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중국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것은 중국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다”라고 화답했다.

인사말이 있고 나서 협약서 전문을 국립국어원 최용기 국어진흥교육 부장과 중국해양대학 다이화 국제교류처장이 각각 한국어와 중국어로

이웃



읽어 확인했다. 그런 다음 이상규 원장과 우더싱 총장이 협약서에 각각 서명을 하고 이를 주고받았다.

협약서의 교환이 있고서 이상규 원장과 우더싱 총장은 각자가 준비한 선물을 주고받았는데 특히 우더싱 총장은 중국해양대학 정문이 그려진 패를 선물하면서 “이 정문 패를 드리는 것은 대한민국 국립국어원과 중국해양대학이 이미 한집안이란 뜻이다”라고 설명하여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제 세종학당은 세계를 향해 한 발씩 나아간다. 몽골을 시작으로 중앙아시아 3 나라 대학과 중국에 벌써 3개 대학과 협약식을 맺음으로써 세종학당은 큰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머지않아 온 세상에 세종학당의 발자국이 새겨질 것이며, 그 덕분에 온 세상은 위대한 한글을 같이 공유하는 공존의 지구촌이 될 것이다.



2. 세종학당 설립 근거 자료

(1) 한글 알아야 위험 피하죠.

외국인노동자 산재문제

[경향신문] 2003. 10. 08. 19면

내 외국인 노동자가 36만 명을 넘어서는 시대가 됐지만 이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낮부끄러울 정도다. 산업연수생 등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그나마 간단한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지만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인사말조차도 모른 채 위험한 작업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실태= 인천의 식품공장에서 일하던 중국인 서용성씨는 지난해 9월 발뺌가 으스러지고 엄지발가락을 잃는 사고를 당했다. 새 공장 건물을 짓기 위해 기존 건물을 헐어내는 작업을 하던 중 무너져 내린 콘크리트 벽에 발이 찍힌 것이다. 사고 직전 한국인 동료들은 위험하다며 피하라고 여러 차례 소리쳤지만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서씨에게는 소용이 없었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금형과 사출, 도장, 가구공장 등에서는 말 한마디를 알아듣지 못하면 산업재해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의 양해우 소장은 “외국인 노동자가 당하는 산재는 미숙련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아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 단체가 지난 2년간 산재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 145명을 상담한 결과 52.3%가 작업장에 간 지 3개월이 안돼 사고를 당했다. 대다수가 한국에 온 지 3년이 안 된 사람들로서 한국어에 익숙지 않았다.

◇ ‘백지상태’ 한글교육=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받는 이틀간의 교육은 한국 체류 시 주의할 사항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부 대형 사업장들은 자체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고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다국어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지만 영세 사업장들은 간단한 인사말 교육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가 밀집한 지역의 종교단체나 외국인노동자 센터 등은 휴일에 한글교실을 열어 한글과 작업장에서 꼭 필요한 말들을 가르치지만 야학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이 전문적인 한글 강습법을 배우지 못한 탓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국국제노동재단은 이 같은 점을 감안, 지난 7월 180쪽짜리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이라는 교재를 만들어 한글 교실에 배포하고 있지만 주말과 휴일에도 작업을 하는 공장들이 많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책= 외국인 노동자 단체들은 정부차원의 외국인용 한국어 교재 마련과 교육시스템 개발이 시급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최의팔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상임대표는 “과거 한국 노동자들이 독일 광부로 갈 때 독일에서 업체들과 대사관이 공동으로 두 달간 기초적인 독일어와 독일 문화에 대한 교육을 시켰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장기적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동남아 지역 등에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을 설립, 한국어의 국제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2)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시험 의무화

[경향신문] 2005. 03. 08. 10면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8월 17일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능력시험을 의무화한다고 7일 밝혔다. 시험은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내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어학능력을 평가하는 수준으로 듣기, 말하기, 독해 등으로 구성된다.

가나

노동부는 오는 9~18일 공모를 통해 시험 운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고용허가제 인력은 현지에서 70~80시간의 한국어교육을 받고 있다”면서 “한국어능력시험이 실시되면 교육기간이 없어져 결과적으로 외국인력 도입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3) 한류 드라마·영화로 한국어 교재 개발

[내일신문] 2006. 03. 16. 20면

‘한류 드라마와 영화를 이용한 한국어 교재가 해외에 보급된다.

문화관광부는 15일 올해 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국외 한국어 교육자 초청연수, 국외 한국어 강좌 개설 대학에 교수 파견, 교재 개발, 한국어 능력시험 운영, 학술대회, 사이버 한국어 강좌 등 한국어 국외 보급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먼저 한류 드라마와 영화를 소재로 한국어 교재를 개발해 한류 지역에 보급하기로 했다. 국립국어원이 개발하게 될 이 교재는 한류 드라마·영화에 묘사된 한국문화나 재미있는 한국어 표현 등 학습요소를 뽑아 전문가가 해설하는 방식 등으로 제작된다.

한국어 국외보급사업을 통합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정부의 한국어국외보급사업협의회는 올해 상반기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지역에서 한국어교육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글날을 전후해 국외 한국어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국제학술토론회도 연다.

정천기 기자 ckchung@yna.co.kr

이웃



(4) 동남아-舊蘇 한국어교육지원 절실

현지 우수학생 연수기회 교재개발 필요

[세계일보] 2002. 11. 18. 15면

해외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효과적인 한국어 보급 방안을 논의해 한국어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한 '제3차 한국어 세계화 국제학술대회'가 한국어 세계화추진위원회(위원장 김하수) 주최로 16일 오전 10시 경희대학교에서 개막됐다.

제1부에서는 서상규 연세대 교수의 한국어 세계화 사업에 대한 소개, 유석훈 고려대 교수의 한국어 세계화 포털 사이트인 'Webkorean' 설명, 그리고 최정순 서강대 교수의 재외동포 청소년용 한국어 웹 교재인 'Teen Korean' 시연 등의 행사가 이어졌다.

제2부 순서인 한국어의 세계화 지향과 과제에 대한 특강에서 김균태 한남대 부총장은 "2001년 현재 세계에서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는 대학은 54개국 394개 대학이 있으나, 순수한 외국인보다 재외동포 자녀가 교육 받는 비율이 70,80%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지역별로 살펴봐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동남아지역과 구소련 지역에 대한 지원이 아쉽다"고 말했다.

김 부총장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한국어를 재외동포의 민족 교육 차원이 아닌 외국어로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며, 지원 지역의 확대, 현지 우수 학생들의 한국유학과 연수기회 제공, 국제적인 감각에 걸맞은 교재 개발, 지원 기관의 업무 중복 없는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운영 등을 제시했다.

17일에는 빅토르 남우즈베키스탄 니자미사범대학 한국어 학과장, 응웬 반 타이 베트남 호치민시 인문사회대학 부총장, 알렉산더 페더토프 불가리아 소피아대 부총장, 콜린 우드 호주 빅토리아주 교육부 한국어 담당관 등이 거주지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

가나

(5) 러시아 극동, 아시아언어 배우기 열풍

[세계일보] 2004. 01. 30. 21면

러시아 극동지역의 젊은이들이 한국어와 만다린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언어 배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의 언어는 그들의 사회 진출에 좋은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표준어인 만다린은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국립대학교(FESU)에서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제치고 영어 다음으로 가장 인기 있는 외국어가 됐다. 이 대학 동양학 연구소의 관리자 안드레이 알렉산드로프는 “지금은 동양학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대단히 많다. 이곳은 중국 일본 한국과 인접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 대학의 모든 아시아언어학과는 1939년 스탈린 치하에서 폐쇄됐다가 그의 사후인 1956년에 재개됐다. 이후 이 대학 학생들은 만다린과 일본어, 한국어, 베트남어, 힌두어, 태국어 중에서 택일해 전공하고 있다. 벵골어도 곧 교과과정에 편입될 예정이다.

지난 5년 동안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폭등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는 무려 1123명의 학생이 아시아 언어로 학위를 받고 있다. 이는 이전 30년 동안 이 분야 학위 취득자가 총 1500명인 것에 비하면 엄청난 규모다. 또 다른 900명은 선택과목으로 주로 만다린 등 아시아 언어를 공부하고 있다.

만다린을 전공하고 일본어와 영어를 부전공하고 있는 2년생 알리오냐양은 장래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중국어로 학위를 따면 기업체나 관광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 중국어는 장래성을 밝게 해준다”고 말했다.

동료인 드미트리도 “우리는 중국 근처에서 살고 있으며, 중국어를 배우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동양학연구소의 알렉산드로프는 졸업생 가운데 모스크바의 백만장자 기업인들과 중역들이 포함돼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10분의 1만이 학교에 남고 나머지는 업체나 정부로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시아 언어들은 쉬운 선택이 아니어서 3분의 1이 넘는 학생들이 중도 탈락하고 있다. FESU는 영어 이외에 2가지 아시아 언어를 배워야 하는 학생들에게 대단한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은 주 6일 출석, 하루 2~3시간 수업을 받고 일요일을 포함해 하루 5~6시간 분량의 숙제를 해야 한다.

블라디보스토크엔 만다린 전공 국립학교가 3곳이나 있으며, 다른 수십 개 학교에서는 선택과목으로 만다린을 배우고 있다. 한 명문 중등 학교에서는 만다린 외에 한국어 힌두어 태국어 베트남어를 모두 가르치고 있다.

FESU 중국어학부의 언어실습실은 중국에서 기증한 것이며, 동양학 연구소는 한국 일본 대만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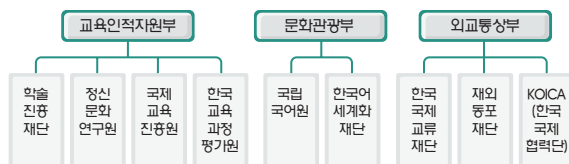
남동아시아학과 과장인 알렉산드르 소콜로프스키는 “우리는 이들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는 우리 이웃 나라들과 연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블라디보스토크=AFP연합

(6) 한국어 교재 없어 옛날 복사본으로 수업

베트남 교수 "한국어 시청각 자료 대부분"
컴퓨터·DVD등 적극보급 일본과 대조적
[세계일보] 2005. 10. 05. 9면

[한국어 보급사업 시행 기관 현황]



가나

“한국어 교재가 없어 5년 전, 10년 전 연세어학당에서 쓰던 복사본으로 수업하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과 한국기업 취업 등의 이유로 동남아 국가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인 늘고 있지만 대부분이 교재와 시청각 자료가 없어 발만 구르고 있다. 한류 열풍은 동남아에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지만 한국어 확산은 우리 정부의 정책 부재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어 보급의 한계= 중국의 대학 졸업반 학생들이 대부분 최고 단계인 6급 시험을 보는데 비해 베트남은 6급 응시자가 10명 안팎이다. 베트남 한국어학과 강사보다 베이징대 4학년이 한국어를 더 유창하게 할 정도이다.

한류가 베트남에 중국보다 늦게 상륙한 데다 한·베트남 교류가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도 있지만 교재는 물론 제대로 된 한·베트남 사전 등 자료가 없는 것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립호찌민인문사회과학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재단(KOICA) 단원 이현중(27)씨는 “교재는 물론 시청각자료실도 없어 교수조차 5년·10년 전 한국 대학에서 쓰던 교재 복사본과 음질이 좋지 않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테이프를 수업하고 있다”면서 “호찌민과 하노이에 컴퓨터와 DVD, TV, 일본어 교재 등을 구비한 일본도서관을 세워 학생들을 끌어들이는 일본이 부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연세어학당에 다니고 있는 전디번엔(29·여·호찌민외국어정보대 한국학과 강사)은 “학생들이 개천절 행사를 위해 한국 전통무용을 하고 싶는데 자료가 없어 배울 수 없다고 해 안타까웠다”며 “한국어 교습 자료도 부족하지만 한국 문화를 접할 기회나 정보는 전무하다”고 토로했다.

또 베트남에 한국문화원이 없어 한국회사 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나 일반인들은 한국학교 부설 한글학교에서 토요일에만 ‘맛보기’ 식으로 수업을 받고 있다. 몇 해 전 한국학교 교사가 개인적으로 선교활동을

이웃



하기 위해 한글학원을 운영하다가 베트남 정부에 의해 강제 폐쇄당하기도 했다.

이전호 호찌민시한국학교 교장은 “한국인 교수가 없어 KOICA 단원이나 베트남 강사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자매결연한 한국 대학으로부터 쓰던 교재나 컴퓨터 등을 일부 지원받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며 “정부와 민간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통남이 '한국어 배우기' 열풍

“교재없어 옛날 복사본으로 수업”

통남이 '한국어 배우기' 열풍

통남이 '한국어 배우기' 열풍

통남이 '한국어 배우기' 열풍

베트남 교수 “한국어 시청각 자료 태부족”

컴퓨터·DVD 등 적극보급 일본과 대조적

베트남 교수 “한국어 시청각 자료 태부족”

컴퓨터·DVD 등 적극보급 일본과 대조적

베트남 교수 “한국어 시청각 자료 태부족”

컴퓨터·DVD 등 적극보급 일본과 대조적

◆ 전략적 정책 필요 = 현재 한국어 보급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 외교통상부 등 3개 부처와 9개 기관으로 분산돼 추진되고 있다. 사업의 중복성과 효율성 문제가 줄곧 지적돼 지난 7월 ‘한국어 국외보급사업협의회’라는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문광부 과장이 위원장을 맡고 관련 부처가 분기에 한번씩 모여 회의하는 실무협의회에 지나지 않는다.

김중섭 경희대 국제교육원 원장은 “선진국들은 해외에 경제가 진출하기 전에 먼저 언어를 보급하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공장부터 짓고 보는 것이 문제”라며 “한국어를 전략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등

가나

산하에 한국어 보급사업을 전담하는 총괄기구를 만들어 위상과 책임을 분명히 한 뒤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또 “최근 한국어 강사를 육성하는 교육기관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노동부 산하단체에서도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고 있는데, 기관 평가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한국어 강사 육성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9) 해외서 한국어 배우고 싶어도...

국의 한국어 교육 대토론회

[중앙일보] 2005. 10. 08. 21면

해외서 한국어 배우고 싶어도...

국의 한국어 교육 대토론회

“교재·교사 턱없이 부족”

“해외에서 한국어 배우려는 수요는 급증하지만 한국어 교재와 교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7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국외 한국어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해외 참가자들이 공통으로 내놓은 지적이다. 국립국어원(원장 남기선)이 주최하고 한국어세계화재단(이시정 부원장)이 주관해 8일까지 계속되는 토론회엔 해외의 한국어 교육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중국·일본·방

글래데시·우즈베크스탄·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 등지에 서 왔다.

해외의 한국어 학습 열기가 높아지는 배경엔 한국의 경제 성장과 한류가 자리잡고 있다. 해외에 한국의 공장을 많이 지으면서 한국어 구사력은 현지에서 출세의 보증수표 역할을 할 정도다. 여기에 한류의 인기가 겹치며 한국어 배우가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중국어 대표적 사례. 이날 중국의 현장을 발표한 한전켄(韓進乾·베이징대 조선어학과 교수·중국 한국어교육연구회 부회장)씨는 “베이징대 캠퍼스에 설치한 한국어교육센터의 학생

수는 2003년 200명에서 올해 2500명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3년새 12배가 넘게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급증하는 수요를 교과서의 질과 교수진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1992년 한국과 수교 이후 13년이 지난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급증함에도 아직 체계있는 한국어 교재를 만들어내지 못한 채 임시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교수진도 문제다. 교육과 관계없는 일을 하곤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씨는 지적했다.

한국어세계화재단의 오광근 연구실장은 “한국의 정부·기업·대학 등의 도움이 절실하다. 각 나라의 언어와 문화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배경대 기자

balanoo@joongang.co.kr

(10) 한국소개 한국어 교재 영장

[한국일보] 2002. 08. 23. 29면

“조선시대 전통문화만 소개해서야 한국어 교육이 제대로 될 리 있겠습니까.”

일본 도쿄(東京)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오고시 나오키(生越直樹) 교수는 최근 수업에 사용하기 위해 한국 국제교육진흥원에 한국 소개 비디오를 요청했다가 실망을 금치 못했다.

한국의 역동적인 경제발전과 사회·문화상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기대했으나 1995년 국립영화제작소가 제작한 ‘한국인의 생활’ 등 6개의 테이프는 아들을 낳기 위해 산모의 발밑에 도끼를 놓는 등 조선시대의 전통문화만 담고 있었기 때문.

이웃



호주 그리피스대의 정재훈 교수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국제교육진흥원에 요청, 한국소개 비디오테이프를 받았지만 전통문화 중심으로 돼 있어 자칫 한국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지 모른다는 우려로 교재로 사용하는 것을 포기했다.

대신 한국의 드라마나 뉴스 등을 이용, 현대 한국의 문화소개와 대화 학습이 동시에 가능한 동영상을 손수 만들어 교재로 활용하고 있다.

월드컵 성공개최로 세계 곳곳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한국의 현대 사회상을 알리는 시청각 교재가 전무해 포스트 월드컵 한국 알리기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월드컵 이후 급증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대한 시청각 교재 수요를 충족해줄 기관은 하나도 없는 형편.

한국어 해외보급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어세계화재단, 국제교육진흥원 등 4개나 되지만 이들 기관은 한국의 최근 경제와 문화를 알리기 위한 시청각자료 제작 사업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한 관계자는 “외국으로부터 요청은 있지만 예산상 문제 등으로 당분간 한국의 현대 사회에 대한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 붐이 상대적으로 높은 베트남, 중국, 러시아 등 비영어권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학습교재도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어 학습교재 대부분이 영어권 외국인을 위한 것이어서 발음체계나 기호가 다른 비영어권에서 그대로 통용되기 어렵기 때문.

베트남 하노이대의 조명숙(趙明淑) 교수는 “하노이대 한국어과 학생 대부분은 한국어 교재에 나온 '언니는 서울에 간다'를 읽을 때 '에온니 네온 세우네 칸다(eonnineun seoule kanda)'로 발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중국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한국에서 제작된 한국어학습 교재 대신 자체적으로 만든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최가수 기자 mounta@hk.co.kr, 김신영 기자 ddalgj@hk.co.kr

가나

(11) 한국어 교재 너무 낡아 직접 썼죠.

외국인 위한 독학교재 낸 리비어

[한국일보] 2005. 02. 02. 28면

"언어는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의 도구입니다. 외국어를 배우려면 무엇보다 낮은 언어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한국말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지요." 10년째 한국에서 생활하며 한국인과 한국문화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 미국 출신의 외국인 강사 스티븐 리비어(34)씨. 현재 아리랑TV의 한국어 배우기 프로그램 'Let's Speak Korean'을 진행하면서 한양대에서 실용영어를 강의하는 그가 한국에 살면서 한국말을 배우는 데 애를 먹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학습 교재를 펴냈다. 제목이 '혼자서도 자신 있는 한국어 첫걸음 서바이벌 코리아(넥서스)'이다.

영어로 쓴 한국어 독학 교재인 이 책은 "좀 깎아주세요" 등 한국생활에 꼭 필요한 표현위주로 발음과 기본 문법사항을 친절하게 설명한다. 물론 리비어씨 자신의 체험에 기초한 것이다. 특히 외국인의 눈으로 포착해낸, 한국인도 모르는 한국인 고유의 행동양식이나 사고방식, 언어습관을 재치 있게 풀어놓았다. 또 영어로 썼기 때문에 한국인을 위한 영어 학습 교재로도 손색이 없다.

미국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대에서 동양철학을 전공한 그는 1995년 한국에 왔다. 어릴 때부터 주변에 재미동포 친구들이 많았던 그는 인하대, 세종대 등에서 실용영어 강사로 일하는 틈틈이 서울대 어학연구소, 연세대 어학당을 다니며 한국어 실력을 '계대로' 쌓았다. 연세대 교육대학원에서 한국어교육 석사학위까지 받은 '전문가'지만 아직도 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해 답답할 때가 많다고 한다.

"요즘 서울에서 '다방' 찾기가 쉽지 않은데 어학당 교재를 보면 아직도 '다방'이란 단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또 격식체 표현을 쓰지 않는데도 격식체 문장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이런 교육방식은 한국어 배우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그는 현재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은 외국인들의 모임' 회장직도 맡아 한 달에 두 번씩 서울 신당동 유락복지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국어 강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12) 한국말 배우려고 어학교재 없어요.

[경향신문] 2004. 10. 09. 1면

경제교류 확대, 국력신장 등에 힘입은 '한류' 열풍에 따라 아시아 국가들 중심으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런 한국어 배우기 열풍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체계적 한국어 교육이나 보급 정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외국인들의 한국어 배우기를 위한 체계적 교육정책 수립과 함께 한국어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실시된 한국어 능력시험 외국인 지원자 수는 1만7천5백31명으로 지난해보다 44% 늘었다. 이는 1997년 1회 때 2,274명의 7배가 넘는 수치다.

평가원 측은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다"며 "특히 중국과 베트남 지원자가 지난해에 비해 3배가량 늘어났다"고 전했다.

국내 대학의 한국어 수강생도 늘고 있다. 이화여대 언어교육원의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집중강좌' 수강생 수는 2001년 406명에서

2003년에 762명으로 늘었다. '한국어 단기연수' 과정의 학생도 2001년 202명에서 지난해 415명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2003년 현재 세계 55개국 대학에 400여개의 한국어 학과가 운영 중일 정도로 외국 대학에서의 '한국어 수요'도 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수요에 비해 한국어 교육, 보급 정책 등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문화부가 2000년부터 외국인들을 위한 범용교재 개발에 들어갔지만 출간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기관이나 어학회,



어학기관 사이의 업무를 조율하는 체계도 없어서 업무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현실적 수요 충족뿐만 아니라 국제어로서의 위상 정립, 한국어의 세계화 등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및 보급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어 교육 교재 지속적 개발·출간 ▲외국인을 위한 표준 한국어 사전 편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사 육성 및 교수법 개발 등 적극적인 한국어 보급 정책과 정부 차원의 재정적·외교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지선·김동은 기자 jslee@kyunghyang.com

(13)외국인노동자 '언어소통' 가장 심각

사업주 78% 지적 ... 고용허가제 선호도 연수생제보다 높아
[내일신문] 2005. 09. 08. 18면

사업주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사용하는 데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애로사항은 '언어소통'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량품 양산이나 생활관습의 차이 등도 고용상의 어려움으로 꼽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한국국제노동재단의 의뢰에 따라 국내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68명을 대상을 직접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 사업주의 77.9%가 '언어소통'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조사결과 '언어소통'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33.8%, '다소 심각'이 44.1%에 달했으며, '별로 심각하지 않다' (19.1%)거나 '전혀 심각하지 않다' (2.9%)는 응답은 소수에 불과해 언어문제가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는 데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다음으로 지적된 것은 '불량제품 생산'이 35.5%를 차지해,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의 작업숙련도가 떨어지는 점을 지적했다. 이밖에도 '무단이탈'이나 '생활관습차이' 등도 고용상의 어려움으로 많이 꼽혔다.

사업주들이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8월부터 실시된

이웃



외국인노동자 ‘언어소통’ 가장 심각

사업주 78% 직접 ... 고용허가제 선호도 연수생제보다 높아

사업주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할 때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어려움(1위)은 ‘언어소통’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한국경제노동재단의 조사를 통해 국내에



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69.5%를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 사업주의 77.8%가 ‘언어소통’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지목했다.

조사결과 ‘언어소통’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77.8%로, ‘기술 부족’이 25.7%에 달했으며, ‘문화 차이’가 22.7%로 나타났다. ‘정보 부족’은 14.7%로, ‘법률 지식 부족’은 14.7%로 나타났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작업속도(1위)가 떨어지는 것을 지적했다. 이밖에 ‘단어(1위)’와 ‘문법(2위)’의 중요도(1위)도 높게 나타났다.

사업주들이 외국인 노동자와의 소통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8월과 10월의 ‘고용허가제’에 대한 선호도가 23.3%에 달해 산업연수생제(20.2%)와 복수응답(14.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는 응답이 48.5%에 달했으며,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은 12.7%에 불과했다.

사업주들은 외국인력 제도의 개선과 관련해 ‘구인절차의 간소화’(39.7%)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한국어교육 확대’(29.4%) 등을 지적했다.

한편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국제노동재단 교육장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번 조사를 주도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권혜자, 강연배 연구원은 외국인력 정책의 개선과제와 관련, △연수생제도의 폐지 및 고용허가제 개선 △외국인력 규모 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국내 노동력의 보호 대책 등을 제시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고용허가제’에 대한 선호도가 73.5%에 달해 산업연수생제도(42.7%-복수응답)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노동자 181명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직장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48.5%에 달했으며,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은 12.7%에 불과했다.

사업주들은 외국인력 제도의 개선과 관련해 ‘구인절차의 간소화’(39.7%)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한국어교육 확대’(29.4%) 등을 지적했다.

한편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국제노동재단 교육장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번 조사를 주도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권혜자, 강연배 연구원은 외국인력 정책의 개선과제와 관련, △연수생제도의 폐지 및 고용허가제 개선 △외국인력 규모 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국내 노동력의 보호 대책 등을 제시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14) 日 한국어버 거센데 교사가 부족해요

한국어교사 연수 참가한 구로사와 신지씨

[문화일보] 2002. 08. 06. 26면

“청소년기 다른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지 말을 유창하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오픈 마인드 형성이 주목적입니다. 주변국인 한·중·일 3국의 젊은이들이 어려서부터 서로의 언어를 배운다면 상호이해와 문화교류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 국제교류재단(이사장 이인호) 주최로 서울대 언어교육원에서 17일까지 열리고 있는 ‘일본 고교 한국어교사 방한 연수’에 참가하고 있는 구로사와 신지(黒澤眞爾·43) 일본 도쿄(東京) 간토(關東)국제고등학교 교사. 일본의 대표적인 고교 한국어 교사 모임인 ‘JAKEHS’의 일원인 그는 20여명의 동료 회원교사들과 함께 연수에 참가했다.

“최근 일본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국어,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도 계기가 됐고, 한국의 가요 영화 TV드라마 등이 일본에 소개되고 인기를 끌면서 이것이 한국어 학습 열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어 과목이 개설돼 있는 일본의 고등학교는 170여 곳. 특히 지난 1월 우리의 수능시험에 해당하는 일본 대학입시센터시험 과목에 한국어가 영어 중국어 등과 함께 제1외국어로 정식 채택돼, 한국어 학습 붐을 확산시키고 있다. 대학의 한국어 강좌 개설률은 40%에 이르고 그외 각종 사회단체, 사설교육기관, TV 등의 교육도 활발하다.

그러나 “일본 고등학교에는 제2외국어 과목이 없기 때문에, 일반고교 교육제도 안에서 한국어 학습이 이뤄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는 게 그의 말. 한국어 교사자격증 소지 교사비율이 40%미만이고 상당수 학교에서 성인교재를 사용하는 등 고교용 교과서나 지침서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그가 속해있는 JAKEHS는 현재 시험용 고교 한국어 교과서를 집필, 출판을 앞두고 있다.

양성희 기자 cooly@munhwa.co.kr



(15) 한국어 세계화는 교재개발에 달려

[세계일보] 2003. 10. 26

한국의 국가 위상 상승과 더불어 중국을 비롯한 일본 태국 미국 뉴질랜드 불가리아 등 세계 각지에서 한국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세계화 열풍으로 영어가 과분한 대접을 받는 사이 국내에서 우리말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 현상이다. 증대되는 수요에 발맞춘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오는 11월 1~2일 경희대학교에서 '제4차 한국어 세계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김중섭(金重燮·사진·48) 경희대 국제교육원장은 "1990년 이후 각국에서 한국어 수요가 늘고 있지만 한국어 교육 관련 교재나 자료들이 많이 부족해 한국어의 세계화가 확고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1946년 난징(南京)에서 처음 시작됐다. 이후 80년대까지만 해도 베이징대학과 대외경제무역대학 낙양외국어대학 등 일부 대학에 한국어학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25개 대학으로 늘었고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급속하게 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와는 달리 한국어 교육과 교재 개발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베이징 외국어대학의 김경선 교수는 교재 개발 작업에 드는 편찬 비용이 지원되면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일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일본에서는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한국어 교육이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다. 도쿄외국어대학과 오사카외국어대학을 비롯한 일본 전역 6개 대학에서 한국어 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해 교원들은 많은 편이다. 구로사와 신지 일본관동국제고등학교 교사는 "문제는 한국어 교원을 고등학교에서 정식 교사로 채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이점을 살릴 수 없다는 데 있다"고 밝혔다. 대학에서 확보한 한국어 위상을 고등학교에서 이어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가나

한국어가 일본에서 확고한 위치를 잡기 위해서는 교재 개발 사업과 함께 교육 현황 파악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는 태국과 불가리아 등지의 상황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태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1986년 송클라대학에서 최초로 개설돼 현재 9개의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다. 한류 열풍으로 한국어 학습자가 늘었지만 94년에서야 한국어 회화 교재가 처음으로 개발됐을 만큼 한국어 교재 개발은 부진하다.

학술대회를 지원하는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는 한국어 세계화 초석을 다지기 위해 2000년부터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실태와 교재 개발 현황을 파악해 오고 있다.

박종현 기자 bali@segye.com

(16) '한국어 해외보급' 물거품 위기

"외국인용 교재 만들면 뭘 하나... 가르칠 사람이 없는데"

[세계일보] 2005. 07. 15. 6면

■ 주요국 자국어 해외보급 담당기관			
 영국	 독일	 스페인	 한국
브리타니 카운실(1984년 설립)	괴테 인스티튜트(1961년 설립)	세르반테스 인스티튜트(1981년 설립)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 3개 부처에서 담당
• 110개국 220개소에서 전파 • 연간 예산 4.88억 파운드 (약 9280억원)	• 78개국 164개소에서 전파 • 연간 예산 2억 유로 (약 2700억원)	• 27개국 42개소에서 전파 • 8개국 인터넷 자국어학센터 운영	• 연간 예산: 약 140억원 • 외교부(86억원)·교육부(42억원)·문화부(11억원)

국가 차원의 '한국어 해외 보급'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오는 9월 첫 발간되는 범용 한국어교육 교재가 예산 부족으로 보급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로 인해 최근 한류열풍 확산과 고용허가제에 따른 한국어 자격시험 시행 등으로 조성된 우리 말교 보급의 좋은 기회마저 물거품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4일 '한국어세계화재단' (한국어 재단)에 따르면 말하기와 듣기, 읽기, 쓰기 교재와 교사용 지침서 등 '범용 한국어 초급 교육 교재' 1세트(5권)가 오는 9월 완성돼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베트남, 태국, 스리랑카, 몽골 등 아시아 6개국에 우선 보급된다.

한국어재단은 우리 말글 해외 보급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진흥을 위해 2001년 2월 설립된 문화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2002년부터 범용 한국어 초·중급 교재 개발에 착수했으며 현재 초급 교재 인쇄를 앞두고 있다. 인도네시아 등 6개국이 우선 보급 대상이 된 이유는 한국어 교육 필요성이 절실하면서도 교육 기반이 전혀 없는 나라들이어서다.

문제는 정부가 3년 가까이 국어 분야 전문 인력을 투입해 완성한 외국 인용 한국어 교재가 이들 나라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창고로 들어갈 처지라는 것. 해당국에서 교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파견, 한국어 교육 담당자들에게 교재 활용법과 한국어 교수법을 전수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교재라도 활용법이나 교수법을 모르고서는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산이 모자라 태국을 뺀 나머지 나라에는 단순히 교재만 전달해야 할 형편이다. 재단 관계자는 “나라별로 교재 전문가 8명을 파견해 한 달간 가르쳐야 교재를 활용할 수 있는데, 태국 외에는 보낼 여력이 안 된다”며 “다른 국가에는 교재를 보급해봐야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걱정했다.

교재 보급 예산 자체가 적어 보급량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다. 올해 책정된 초급 교재 보급 예산은 고작 3000만원으로, 이마저 교재 인쇄·출판비와 구입비, 운송비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일단 6개국에 보급될 교재 수량은 1000세트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한류 열풍이나 한국 내 취업을 위해 아시아 각국에서 일고 있는 폭발적인 한국어 수요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량이다.

우리나라와 외국인 근로자 고용협약을 체결한 이들 아시아 6개국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다음달부터 한국어 능력시험에 합격한 자국민만

가 나

한국에 취업시킬 수 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근로자 1만 4000명 등 이들 국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연간 고용허가제 쿼터가 4만6000명임을 감안할 때 3배 정도인 14만 명 가량이 한국어 시험을 준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어재단 박영순 이사장은 “최근 한류열풍과 고용허가제에 따른 아시아 지역의 국어 수요, 200만 교포자녀 등 국어를 세계 각국의 제도권 교육 내 외국어로 자리 잡게 할 호기를 맞고 있으나 지원 방안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문화부와 외교교통상부, 교육인적자원부로 분산된 한국어 해외 보급 기능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그간 한국어 국외 보급 사업이 부처별로 분산돼 사업의 중복성과 효율성 문제가 지적된 게 사실”이라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부터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 주요국 자국어 해외보급 현황가관

미국	독일	스페인	한국
● 미국에서 100만명 이상 학습 ● 미국에서 100만명 이상 학습 ● 미국에서 100만명 이상 학습	● 독일에서 100만명 이상 학습 ● 독일에서 100만명 이상 학습 ● 독일에서 100만명 이상 학습	● 스페인에서 100만명 이상 학습 ● 스페인에서 100만명 이상 학습 ● 스페인에서 100만명 이상 학습	● 한국에서 100만명 이상 학습 ● 한국에서 100만명 이상 학습 ● 한국에서 100만명 이상 학습

“외국인용 교재 만들면 뭘하나... 가르칠 사람이 없는데”

‘한국어 해외보급’ 물거품 위기

본가 자국의 ‘한국어 해외 보급’ 현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수요는 2000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수요는 2000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수요는 2000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본가 자국의 ‘한국어 해외 보급’ 현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수요는 2000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수요는 2000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본가 자국의 ‘한국어 해외 보급’ 현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수요는 2000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수요는 2000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본가 자국의 ‘한국어 해외 보급’ 현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수요는 2000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수요는 2000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이웃



(18) 베이징에 한국어 배우기 열풍

[연합뉴스] 2005. 05. 24. 7면

중국 베이징(北京)의 중국인들을 위한 무료 한국어 강좌 신청 접수가 시작된 23일 접수창구인 주중 한국대사관 문화홍보원에는 수강 신청자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접수 개시 시간은 오전 8시였지만 상당수가 이른 새벽부터 나와 줄을 섰고 모집정원 800명인 초급반은 2시간여 만에 인원이 차는 바람에 오는 8월 시작되는 다음 기(期)를 기약하며 발길을 돌린 중국인들도 적지 않았다.

특히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초급 주말반의 경우 200명 정원에 400여 명이 몰릴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북경청년보(北京青年報)는 24일자 사회면을 통해 이런 풍경을 소개하며 베이징에서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다고 전했다.

문화홍보원이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1995년 처음 개설한 한국어 강좌는 그동안 별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한류 바람을 타고 2~3년 전부터 수강생이 늘어났고 올 들어서는 초급반 강좌를 2개 반에서 4개 반으로 늘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치솟았다.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취업하길 원하는 대학생과 예비 직장인, 한국 식당의 한족 종업원, 한국문화를 배우고 싶어 하는 고교생 등 그 계층도 다양하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기는 베이징에서 뿐 아니라 중국 전역으로 확대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한글강좌의 수강생이 이미 1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이런 열기를 반영하듯 중국에는 31개 대학에 한국어과가 개설돼 6천여 명이 재학 중이며, 올해 2개 대학이 한국어과 개설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문화홍보원은 한국옹변협회와 공동으로 다음 달 베이징에서 국제 한글옹변대회를 개최하고, 오는 9월에는 한국어를 전공하는 전 세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옹변대회를 열어 한국어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위계출 주중 문화홍보공사는 "수강 희망자들이 폭증해 강좌를 크게 늘렸지만 공간 부족으로 더는 확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면서 "보다 많은 중국인들에게 한글을 보급하기 위해 강의시설 확충과 강사진 보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베이징=연합뉴스 박기성 특파원

(19) [열린마당] 한류 드라마 잘못된 발음 많아 교재에 부적합

[중앙일보] 2006. 04. 12. 33면

문화관광부가 해외에서 한류 붐을 일으키고 있는 몇몇 드라마를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재로 개발할 계획을 세웠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그 계획에 문제점이 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

나는 우리말 발음 연구가로서 한류 드라마가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재로서 과연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가 펴낸 '말과 글' 2005년 겨울호에 발표한 바 있다. '한류 드라마의 심각한 발음 혼란'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내가 살핀 한류 드라마는 모두 8편으로 '겨울연가', '풀 하우스', '불멸의 이순신', '해신', '대장금', '한강수타령', '울인', '파리의 연인'이었다. 그런데 이 작품들을 살펴보니 비표준어 발음이 판쳐 한국어 교재로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우리가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는 정확한 발음이 가장 중요하다. 내용은 그 다음이다. 그런데 오늘날 방송인들은 표준 발음을 잘하지 못 한다. 특히 장단을 구별을 거의 못한다. 받침 발음도 많이 틀린다. 한류 드라마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한류 드라마에 출연한 탤런트들의 발음 가운데 상당수는 장단음을 구별하지 못하는 비표준 발음이다.

따라서 외국인에게 가르칠 교재로 드라마 내용을 활용하더라도 정확한 발음 부분은 국내에서 활동 중인 우수한 성우를 동원해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창진 초당대 교수



(20)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시험 거쳐야

[중앙일보] 2005. 03. 07. 8면

노동부는 오는 8월 17일부터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취업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노동부가 선정하는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은 1년에 수차례씩 외국인 근로자 송출국에 나가 이 시험을 직접 주관한 뒤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한국어 시험은 듣기와 말하기, 독해 등으로 구성돼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어학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국에서 취업신청을 할 때 이 합격증을 제출해야 한다.

(21) 10년 만에 바뀌는 일본 교육정책, 언어 교육 대폭 강화

[중앙일보] 2007. 8. 18. 18면

일본이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무너진 공교육을 재건하는 데 팔을 걷어붙였다. 그동안 초, 중, 고 교육의 기본철학으로 삼았던 '유도리(느슨하게 풀어주는) 교육'을 철폐하고 대신 '철저한 학력 향상' 중심으로 교육정책을 전환하기로 확정한 것이다.

문부과학성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는 17일 이런 방침을 담은 '학습지도 요령'을 발표했다. 일종의 교육 기본지침인 학습지도 요령은 10년에 한 번 정도만 개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 공교육 분야에서 강도 높은 경쟁력 강화 노력이 예상된다.

새로운 방침은 특히 언어 교육을 대폭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문장이나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국어 과목은 물론 수학과 과학, 심지어 체육 과목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예로 초등학교 체험학습의 경우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느낀 점을 견학 장소와 본 것만 간단히 메모해 보고서로 내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생각을

가나

답은 문장으로 써내고, 말로 발표까지 해야 한다.

중학교로 올라가면 예상과 가설을 먼저 세운 뒤 실험과 관찰을 해야 하며, 결과는 논술 형태로 제출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현장 실습만 중시해 이론교육이 부실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심지어 체육시간에도 연습 계획이나 작전을 세운 뒤 공놀이나 수영을 하게 하는 등 논리력과 사고력에 큰 비중을 두기로 했다. 이런 정책 전환은 국제학력조사에서 일본 학생들이 해마다 뒤처지는 데 따른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3년 실시한 국제학업성취도(PISA) 조사에 따르면 일본은 문장 표현력과 사고력을 측정하는 독해력 순위에서 전년도 8위에서 14위로 밀려났다.

중앙교육심의회는 학력 저하가 학생들의 대인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쳐 '이지메'(왕따, 집단 괴롭힘)나 '히키코모리'(등교를 거부하고 집에 틀어박힘)를 조장하는 원인으로 분석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표현력과 사고력을 강화하면 청소년들의 대화 능력이 개선되고 사회 문제도 약간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했다.

도쿄=김동호 특파원

◆**유도리 교육**=여유 있는 교육이란 뜻으로 학생들을 주입식 공교육에서 벗어나게 해주려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초, 중학교는 2002년부터, 고교는 2003년부터 주 5일제 완전 실시를 통해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은 물론 교과목 학습량도 크게 줄였다. 하지만 애초 의도와 달리 자기 계발이 부진해 실패한 교육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웃



10년 만에 바뀌는 일본 교육정책

언어 교육 대폭 강화

일본어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
나선 외국어를 제정하는 데 힘을 모아
붙였다. 그동안 초·중·고 교육의 기본
철학으로 삼았던 '유대(유·노순하게
풀어주는) 교육'을 탈피하고 대신
'철저한 학력 향상' 중심으로 교육정
책을 전환하기로 확정한 것이다.

문화재청장 자문위원 겸인 교육
심의회는 '일본어' 방침을 담은 '학
습지도, 수업'을 발표했다. 일종의 교
육 기준지침인 학습지도, 수업은 10년
에 한 번 정도만 개정하기 때문에 앞
으로 일본 공교육 분야에서 강도 높은
경쟁력 강화 노력이 예상된다.

세종로 방학은 특히 언어 교육을 대
폭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
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문장이나 말
로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작어 교육은 들
론 수학과 과학, 심지어 체육 과목에
서도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할
능력을 길러야 한다. 예로 초등학교 세
학년이 경우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노
인 집을 간직 장소와 본 집만 간다

예로 배 보고서로 내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문장으로
배우고, 발표 할 때까지 해야 한다.

중학교로 올라가면 대상과 가설을
먼저 세운 뒤 실험과 관찰을 해야 하
며, 결과는 논술 형태로 제출하게 된
다. 지금까지는 한강 삼류만 중시

'유대' 교육' 철

철저히 학력 위주로

공교육 완전히 개조

이론교육이 부실해졌다는 지적을 받
아왔다. 심지어 체육시간에도 연습 계
획이나 직원을 세운 뒤 끝없는 수업을
하게 하는 등 논리와 사고에
큰 비중을 두기로 했다. 이런 정책 전
환은 국제학력조사에서 일본 학생들
이 해마다 뒤처지는 데 따른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3
년 실시한 국제학력조사(PISA) 조
사에 따르면 일본은 문장 표현력과 사

고력을 측정하는 척도인 순위에서 전

년도 8위에서 14위로 떨어졌다.

중학교육심의회는 학력 지위가 학
생들의 대인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
치 '이치' (원리, 집단 괴롭힘)나
'하카모리' (친교를 거부하고 집에
들어와있음)를 조장하는 원인으로 분석
했다. 교사와 신원은 '교과목과 사
교'를 구분하면 청소년의 대인 관계
력이 개선되고 사회 문제도 약인은 해
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했다.

도쿄신문 도쿄

donghoo@donga.com

수업도 교육이유 있는
교육이란 뜻으로 학생들을
주요한 공교육에서 벗어나
게 해주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초·중·고교는
2003년부터 주·수업에 관한 실시
를 통해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은 물론
교과와 학습을 크게 줄였다. 하지만
예로 학교와 달리 자기 계발이 부실해
불행 교육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22) 주먹구구 한국어 교육...체계적 교재도 없다

[한국일보] 2002. 05. 07. 8면

재외 한국어 교육 현황

지구상에는 3,500~8,000종의 언어가 존재한다. 100만 명 이상 사용
하는 언어는 138개. 유네스코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100년 뒤 현존
언어 90% 정도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는
언어는 사용인구가 최소한 1억 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어
사용 인구는 언어별 순위로 14위 권에 자리 잡고 있지만, 남· 북한과
외국인, 재외동포를 망라해도 7,500여만 명에 불과하다. 자칫 우리말과
글을 사용하지 못하는 날이 올 지도 모른다. 이러한 민족적 불행을 방지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한국어 사용 인구를 적극 늘려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나

현재 외국인과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이 국내·외에서 정규·비정규과정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일부 국가가 한국의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고교와 대학에 한국어 교과목을 정규과정(400여 개)으로 속속 개설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걸음마 수준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특히 외국에서 이뤄지는 한국어 교육은 대부분비정규과정(1,800여 개)으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데 애로가 많다.

독일 태생으로 25년 전 한국으로 건너온 뒤 한국인으로 귀화, 현재 사업과 방송활동을 겸하고 있는 (주)참스마트 대표 이 참(45·옛 이름 이한우)씨는 “한국의 무역규모는 세계 13위라고 하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전파·보급하는 데 쓰이는 국가예산은 100위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또 “올림픽과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 행사를 거치면서 한국어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한국의 준비와 노력은 걸음마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안타까워했다.

■ 체계적인 한국어 교재가 없다

실제로 외국인과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아직 표준적인 한국어 교재와 사전조차 갖추지 못했다. 수년 전부터 서울대·연세대 등 일부 대학과 기관·단체에서 100여종의 한국어 교재를 만들어 세계 각국에 보급하고 있으나, 재외동포가 많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일부지역 이외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재러동포 3세로 현재 서울 동숭동 국제교육진흥원에서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정바벨(24)씨는 “현지에서 한국어를 공부할 때 제대로 된 한국어 교재를 구하지 못한 데다, 한국어를 제대로 가르치는 강좌나 프로그램이 없어 애로가 많았다”고 말했다. 역시 이곳에서 3개월 단기과정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재중동포 3세 최 정(25·여)씨는 “중국어현지에서 사용한 한국어 교재는 대부분 북한의 문법이 적용된 평양 교재였다”면서 “올

이웃



바른 한국어보급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재개발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텐진(天津)한국국제학교 박창배(朴倉培) 교장은 “텐진에는 200여 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고 교민도 2만여 명에 달하지만 제대로 된 한국어 교재 및 학습도구는 구경조차 힘들다”면서 “텐진시 셋별조선족소학교의 경우 전복대 도움으로 한국 내 유치원 교재를 구해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연세대 한국어학당 이희경(李熙京) 교학부장은 “국내에서 제작, 해외로 보내지는 상당수 한국어 교재는 해당 국가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학습 동기를 유발하지 못한 채 결국 책상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다”고 귀띔했다.

■ 교사 자질 향상도 시급하다

한국어 교사 대부분이 어문학과 교수법을 배우지 않은 비전문가들이어서 수준 높은 한국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동선호(董善浩) 국제교육진흥원장은 “세계 각지의 한국어교육 기관의 경우 절대적인 경비부족으로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하기 때문에, 수개월~수년간 자원봉사로 참여하다 그만두는 교사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희경 부장은 “최근 몇몇 대학·기관·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 교사 연수, 교육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해야 함은 물론, 국가 차원의 한국어교사 인증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인식 전환도 절실하다. 오래 전부터 자국어의 세계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는 부끄러울 지경이다. 재외 한국어교육 전문가들은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등 10여 곳의 기관·단체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한국어교육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말했다.



월드컵 손님에게 '한국어 선물' '한국어 한마디' 가이드 북 무료 배포

“한국을 찾는 외국인에게 한국말 한두 마디라도 배우도록 해야죠.”
‘한국어 교육의 전령사’가 모인 국제한국어교육학회의 신현숙(50·
상명대 교육대학원장) 회장은 “월드컵을 구경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은 한국어를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학회가 문화
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외국인 월드컵 관광객을 위해 만든 한국어 선물은
‘월드컵 도우미-한국어 한마디’라는 휴대용 가이드북.

가로 9cm, 세로 15cm 크기의 18쪽으로 만들어진 이 소책자는 인사하기,
물건사기, 길 찾기, 지하철·택시타기, 음식점·숙박시설 이용하기,
약국 이용하기, 도움 청하기 등 20여 가지의 상황별 회화 표현을 삽화와
함께 담고 있다.

한글의 창제원리와 자음·모음에 대한 설명도 곁들여 한글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기본표현을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신 회장은 “학회 소속 외국인 전문교수와 한국어 교육자 등 수십 명은
이 소책자의 집필을 위해 지난 1년여 동안 무보수로 참여하는 열성을
보였다”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언어소통과 한국어 홍보에 작은 도움
이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영어·중국어·일어·불어·스페인어 판을 1만부씩
제작, 전국의 공항과 월드컵 개최도시 관광종합 안내센터 등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우리 말·글 퍼뜨리는 데 마지막 혼신 쏟겠다”

허웅(한글학회 이사장) 인터뷰

“세계화다 국제화다 해서 우리말과 글이 영어 뒷자리로 급속히 밀려
나고 있어요. 정부 시책부터가 그랬으니 국민도 당달아 영어를 못하면
죽는 줄 알아요. 큰 일이예요. 우리말과 글이 일제시대 못지않게 위기에

이웃



처해 있어요.”

한글학회 허웅(84) 이사장은 “세계화를 위해 외국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우리 것을 외국에 적극 내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리의 우수한 말과 글을 세계를 향해 퍼뜨리는 데 마지막 혼신의 노력을 쏟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세계 각국에 한국어를 알릴 절호의 기회를 이미 한번(88 올림픽) 잃었으니, 이번 2002 월드컵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각오가 짙게 배어 있다.

“월드컵을 전후로 외국인이 많이 올 것이고,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우리도 외국 여행을 떠날 때 그 나라의 언어에 절로 관심을 두 듯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도 최소한 한국어 한 두 마디라도 배우고 싶은 욕구를 일으켜 주는 것이 중요해요.”

허 이사장은 600여만 명에 이르는 재외동포 후손을 (한국어) 병어리로 방치하지 않으려면 우리말과 글의 세계화 노력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교사 양성, 연수제도 마련과 체계적·표준적 교재 개발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막연히 한국말과 글을 안다고 한국어를 가르치면 효율이 낮아요. 교수법도 알고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도 두루 알아야 제대로 가르칠 수 있지요.

한글학회가 6년 전부터 외국의 한국어 교사를 연간 50여 명씩 국내로 초청해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모두 한국어 교육에 정열과 사명감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대견합니까. 우리가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너무 안타깝워요. 그들을 더 이상 방치하다가는 600여만 명의 재외동포를 (한국어) 병어리로...”

허 이사장은 “한국어의 세계화는 어느 한 단체나 조직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온 국민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소리 높였다.

가나

“언어는 문화와 교육의 기반이야. 뿌리 없이 어떻게 꽃을 피울 수 있겠어. 영어도 좋고 일어도 좋고 중국어도 좋지만, 당장 눈앞의 이익이 없다고 해서 우리말과 글을 지금처럼 냉대해서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어.

무엇보다 '한국어 교재와 배울 곳이 없어 한국어를 배우지 못한다'는 외국인은 없도록 해야 한다.

김성호 기자 shkim@hk.co.kr

(23) 나라를 알리는데 '언어전파'만한 게 없다

[한국일보]2002. 05. 09. 8면



동선호 국제교육진흥원장 백봉자 前연세 한국어학당 교수 아참(주)참 스마트 대표이사 이현복 서울대 명예교수

2002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 때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외국인들이 우리말로 간단한 대화를 하고 기본적인 우리글을 읽을 수 있다면...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와 우리 제품의 이미지를 한껏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적극 전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계 경제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한국어 보급을 외면해서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동선호(59) 국제교육진흥원장, 백봉자(62) 전 연세대 한국어학당 교수, 독일 태생으로 25년 전에 한국으로 건너와 한국인으로 귀화한 이 참



(48) (주)참스마트 대표이사, 한글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현복(66) 서울대 명예교수 등 각계 인사들이 8일 한국일보 사장실에서 한국어 세계화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 편집자 주

이현복= 우리 국력이 성장한 때문인지 한국어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엄청납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과 열성에 부응할 만한 여건이 안돼 있어요.

일본과 비교해서도 너무 열악합니다. 자격 있는 교사도, 체계적인 교재도 부족하고, 참으로 슬픈 상황입니다.

물론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가르치기가 구조적으로 힘들긴 하죠. 그렇더라도 우리말과 글을 배우고 가르칠 욕망을 불러 일으켜야 합니다.

‘한국어는 어려운 언어’라는 선입견을 깰 수 있도록 쉽게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교재 개발·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백봉자= ‘한국어의 세계화’라는 의미부터 정의를 내려봐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어의 세계화라는 것이 어불성설 아니냐.

우리말과 글을 어떻게 세계에 보급시킬 수 있느냐”고 합니다.

사실 너무 원대한 꿈을 갖는 것은 무리라고 봐요.

현대사회는 무역과 정치를 통한 국제교류가 활발한데, 무역 상대국으로서 언어가 필요할 때 한국어가 국제어의 한몫을 담당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동선호= 우리의 경제력이 높아지고, 올림픽·월드컵 등 굵직한 국제 행사를 거치면서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덩달아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말과 글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나

이 참= 솔직한 한국어는 세계적인 언어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어떠한 경제적 필요에 의해 배우게 되는 것이 세계적인 언어인데, 한국어는 그러한 매력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글이 한국인에겐 우수하겠지만 외국인에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언어는 '문화의 그릇'입니다. 한 나라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언어의 보급은 수요와 공급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한 나라의 경제력이 커지면서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자연히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하죠. 한국 경제가 더 발전하고 좋아지면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적극적인 공급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 보급할 필요가 있죠. 한국에서 독일어 잘 하는 사람이 독일 문화를 싫어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독일어를 배우면 독일 문화를 좋아하게 되고, 깊이 배울수록 독일 문화에 더 매력을 갖게 됩니다. 독일 문화를 좋아하다 보면 절로 독일 제품에 부가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고급스런 독일 문화의 이미지가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인 거죠.

한 나라의 문화를 알리고 그 나라의 제품을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은 언어 홍보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애깁니다.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을 만나 보면 한국 문화에 반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한국 문화의 깊은 맛을 알고 매력을 느끼게 되면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한국의 이미지와 제품을 자연스럽게 전달하게 되죠. 한국어의 세계화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외국인이 뭐가 궁해서 한국어를 배우겠냐 생각해서는 안 된다. 독일 등 유럽 각국의 기업은 일본에 직원을 파견할 경우 사전에 일본어를 가르치고 일본 현지에서도 일본어 교육을 철저히 시킵니다. 하지만 한국에 직원을 파견할 때는 한국어 교육을

이 자 바



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일본 말을 못하면 경영을 못한다는 개념 때문이죠. 아울러 일본도 자체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떻나. 먼저 외국인들은 한국에서는 한국어를 몰라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뿌리박혀 있어요.

물론 ‘한국말은 너무 어렵다’는 선입관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어를 저 만큼 하는 외국인을 100명도 못 만났어요. 특히 유럽인들은 한국어를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어와 비교할 때 한국어가 구조적으로 특별히 더 어려운 점은 전혀 없어요. 결정적 원인은 한국이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와 교재부터가 없어요.

그동안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를 많이 접해 보았는데, 대부분 영문과 출신으로 아르바이트 수준에 불과할 뿐 전문성 있는 교사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려면 여러 외국어를 알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직업으로 갖기에는 처우와 안정성이 너무 낮아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헝가리 불가리아 등 동유럽에는 한국말을 잘 하는 사람이 예상외로 많아요.

한동안 북한이 공산권에 자국어 교육 전문가를 보내 적극적으로 보급했기 때문이죠. 동유럽 사람들이 뭐가 답답하다고 북한 말을 배웁니까.

북한이 적극적으로 공급했기 때문이지, 스스로 북한 말을 배우려고 한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가나

이현복= 10여 년 전 폴란드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일본어 교재는 양적, 질적으로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니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들인 덕분이죠. 우리는 창피할 지경이에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메워야 할 구멍이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백봉자= 한국어를 세계화 하자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중요합니다. 단적으로 동남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어떤가요. 그들이 한국생활을 하면서 접촉하는 한국인은 굉장히 많아요. 국민 모두가 한국어 교사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우리 말 한 두 마디라도 더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합니다.

동선호=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질 있는 교사가 너무 부족한 데다 교사 확보도 어렵습니다. 교재의 개발·공급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언어권별로 현지 실정에 맞는 교재가 조속히 만들어져야 합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원이나 교육원 등은 사실상 한국어 교육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참= 결국은 정부의 예산지원 문제로 귀결됩니다. 우선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는 안정된 직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최소한 1,000억원은 투자돼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매년 이 정도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야죠.

이웃



백봉자= 기업들도 한국어 보급에 관심을 갖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동선호= 한국어 세계화에 대한 남한과 북한의 관심을 보면, 경제적으로는 남한이 월등히 높지만 한국어 보급에 대한 노력은 북한보다 낮은 실정입니다.

이 참= 외국인에게 ‘한국어는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은 결국 한국인 스스로입니다. 사실 한국어는 특별히 배우기 어려운 언어는 아닙니다.

외국 여행에 나선 한국인들이 외국인 옆에서 ‘저 새끼들’이라는 식으로 외국인에게 욕을 하는 습관도 고쳐야 합니다.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지레 짐작한 거죠.

이것은 패배주의적 사고입니다. 한국어는 ‘우리만의 말’이 아니라 외국인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언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인색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팍팍 써야 합니다.

가나

이현복= 영국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지난 94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영국여왕이 직접 저에게 훈장을 줬어요.
한국에서 영국식 영어 표준발음을 연구·홍보하는 데 공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사실 제 연구에서 영국식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도 채 안되거든요.
영국이 얼마나 자국어를 중시하는 지 절감했어요. 우리 정부는 아직도 팔짱을 끼고 있는 실정인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백봉자= 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부터 선행돼야 합니다.

동선호= 외국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부터 확대돼야 합니다.
해외의 교육원·문화원에 한국어 강좌를 개설할 수도 있고, 한국어학원 설립도 가능합니다. 기업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외국에 유학 갈 때 그 나라의 언어를 알아야 가능한데, 우리나라에 유학을 오는 학생들은 한국어 대신 영어로 시험을 봐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이 참=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해 한국어를 일정기준 이상으로 잘 하는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정리=김성호 기자 shkim@hk.co.kr



(24) 한국어의 힘을 키우려면 - 이런 생각

日 학교 한국어 학습 열의 반가워

외국인 위한 교재 마련 노력을

[한국일보] 2005. 01. 13. 30면

일본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고등학교가 크게 늘어났다는 보도는 이 가녀린 언어를 모국어로 삼은 사람들 모두에게 긍지를 줄 만하다.

아사히(朝日)신문을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들어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본 학교의 수가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학교 수를 앞질렀다고 한다. 일본의 학교 교육 공간에서 한국어가 중국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제2외국어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공교육 현장의 통계는 최근 일본에서 불고 있는 이른바 한류(韓流) 열풍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그 바탕이 더 단단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인들의 경우엔 한류 덕분에 한국어 학습 열기가 외려 중국어를 앞지르고 있다는 보도도 여러 차례 나왔다.

공동체 전체의 힘을 반영하게 마련인 언어의 위세에서 일본어와 한국어가 지닌 차이를 고려해도, 그간 두 나라 시민들이 상대 언어를 배우려는 열의는 서로 너무 달랐다. 일본에서 일기 시작했다는 한국어 학습 열기가 이런 역조를 시정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과 일본이 지리적으로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이 행성 위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런 균형 잡기는 늦은 대로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런 균형 잡기에 대한 우리 정부나 민간의 노력이 충분히 적극적인 것 같지는 않다. 기자는 일본학을 공부하다가 한국학으로 방향을 돌린 유럽인 두 사람과 교분이 있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한국어를 배우는 데 일본어를 배울 때보다 힘이 훨씬 더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혹시 한국어가 내재적으로 일본어보다 더 익히기 어려운 언어라는

가나

사정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들이 내세운 이유는 외국어로 된 한국어 학습교재가 너무 드물고 거칠다는 것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잠시 가르쳐본 기자의 경험으로도, 외국어로 된 한국어 학습서는 그 가짓수도 많지 않고 내용도 빈약하다.

온갖 최신 교육법을 적용한 다양한 수준의 교재가 갖추어진 영어를 배우는 일도 그리 쉽지 않았다는 우리들 자신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그 첫걸음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맞닥뜨릴 당혹감을 상상할 수 있다.

물론 외국어로 쓰인 한국어 학습교재를 만드는 것은 해당 외국의 일거리라고 간단히 치부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한국어 공동체의 총체적 힘이 점점 더 커진다면, 자연스럽게 외국에서 한국어 학습교재를 개발하려는 노력도 뒤따를 것이다. 우리가 한국어 사용자들을 위한 영어 학습교재들을 제 나름대로 개발해 왔듯 말이다.

그러나 우리 문화의 핵심인 우리 언어를 선양하는 일에 당사자인 우리 자신이 팔짱 끼고 있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전 세계에 알리앙스 프랑세즈를 세워 프랑스어를 보급하는 데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치는 프랑스의 예를 흉내 낼 것까지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단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을 위해 다양한 수준과 형태의 교재를 마련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민간 문화재단들이 이 일에 좀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민간재단이 외국어대학들을 지원하는 것도 생각해 볼 직하다. 한국어로 된 외국어 학습교재 개발에 경험이 많은 외국어 대학들은, 한국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거꾸로 해당 외국어로 된 한국어 학습교재를 마련하는 데 적격자다.

예컨대 아랍어과에서는 한국어 전문가들과 힘을 모아 아랍어로 된 한국어 학습교재를 마련하고, 이탈리아어 과에서는 이탈리아어로 된 한국어 학습교재를 마련하는 식으로 말이다.

외국어로 된 한국어 학습교재를 마련하는 것은 예컨대 우리 문화



작품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일에 견주어 문화적으로 하찮게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 하찮아 보이는 일이 한국 문화와 한국 문화의 생명력을 위해선 백 배, 천 배 더 중요한 일이다.

고종석 논설위원 aromachi@hk.co.kr

II. 세종학당 이모저모

1. 업무 협정 체결

(1) 몽골 지역

가. 몽골 울란바타르 대학과 한국어 보급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국립국어원(원장 이상규)은 2006년 12월 8일 오전 10시에 몽골 울란바타르 대학(총장 윤순재)과 한국어 보급을 위한 한국어문화학교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몽골 울란바타르 대학과 체결한 업무 협약은 몽골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강좌의 개설과 운영, 한국어와 몽골어·한국 문화와 몽골 문화의 비교 연구,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과 교육 자료의 보급, 몽골 지역 내 한국어 학습 수요에 대한 실태 조사와 연구, 두 기관이 보유한 지식·경험·문화 시설 등의 적극적인 제공 등에 관한 것이었다.

아울러 당일 오후 3시부터는 몽골 교육부 투무르오치르 차관, 몽골 국립사범대학 바추우리 부총장과 한국어문화학교 개설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07년 상반기부터 국립국어원이

가 나

한국어문화학교를 몽골에 개설하기 위한 기본 원칙들과 몽골 교육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하였다. 논의된 이 일정에 따라 2007년 2월부터 몽골 교육부와 국립국어원이 몽골에서 한국어문화학교를 개설하여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류하기 위한 포괄적인 업무 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몽골 국립사범대학(총장: 자담바)은 이번 논의와 관련하여 2007년 3월부터 한국어과를 신설하여 한국어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몽골 울란바타르 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

나. 몽골 세종학당 개교식 참석 및 중국 중앙민족대학교와 업무협정 체결

국립국어원의 이상규 원장은 3월 17일(토)부터 21일(수)까지 몽골을 방문하여 울란바타르 대학교와 국립사범대학교에 개설된 세종학당의 개교식에 참석하였다.

이상규 원장은 3월 17일 저녁 10시 30분에 KE 867편으로 몽골 울란바타르 공항에 도착한 후 마중 나왔던 몽골 교육문화과학부의 투무르오치르 차관과 공항 국민실에 마련된 회담장에서 40분간 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상규 원장은 한몽 우호와 협력의 역사를 새로이

세종학당



만들기 위해 한국과 몽골은 20세기 제국주의적 문화 침탈의 역사적 사슬을 끊어 버리고 동등한 동반자적 관계에서 문화적 연대에 노력해야 한다는 점과 이러한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세종학당을 개설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투무르 오치르 차관 역시 지난 2월 6일 방한 시 보여주었던 국립국어원의 환대에 감사의 뜻을 표하였고, 몽골에 개설되는 세종학당의 운영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몽골 칭기즈칸 공항의 국빈실에서 몽골 교육문화과학부 투무르 오치르 차관과 간담회

이어 이상규 원장 일행은 몽골 지역에 새로이 개설된 2곳의 세종학당 개교식에 차례로 참석하였다. 19일(월) 오전 11시에 개교식을 거행한 몽골 울란바타르 대학의 세종학당에서는 몽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4개 학급 80명을 모집하여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20일(화) 오후 6시에 개교식을 거행한 몽골 국립사범대학의 세종학당에서는 초등학생을 포함한 일반인들 200명을 10개 학급으로 구성하여 이들에게 한국어를 교육하고 있다. 이 대학들은 작년 말, 금년 초 국립국어원과 세종학당 개설에 관한 업무 협정을 체결한 후에 3월 5일부터 기초 및 중급반을 개강하여 교재비만 받고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상규 국립국어원장의 울란바타르대학 세종학당 개원식 축사 장면

가나

세종학당은 외국인이나 재외 동포의 한국어 학습 수요에 부응하여 단계적으로 전 세계에 개설하려는 개방형 한국어 교육 시스템을 말한다. 금년부터 2011년까지 제1단계로 아시아 지역에 100곳에 개설될



몽골 국립사범대학교의 세종학당 한국어 수업 장면

세종학당의 근본 취지는 아시아의 문화 연대와 현지 노동 인력의 고용 창출을 위한 한국어·한국 문화 교육이며, 지식인 중심의 한국어 교육을 극복한 대중적 한국어 교육이다. 이러한 사명으로 이번에 몽골에 개설된 세종학당은 한국어를 통해 한국과 몽골의 문화 동반자 관계와 문화 교류의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학당의 교육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초급 6개월, 중급 6개월의 교육 과정으로 문화상호주의적 관점에서 편찬된 교재를 이용하여 한국어를 가르치게 된다.

21일(수) 저녁 6시에는 중국 중앙민족대학의 어이타이(鄂義太) 총장과 북경 우의빈관(友誼賓館)에서 만찬을 겸한 업무협정 체결식을 거행하였다. 이상구 원장은 협의 과정에서 국립국어원에서 세종학당을 통해 추구하는 한국어 교육은 어느 한 나라의 문화를 타국에 일방적으로 강요하였던 20세기 제국주의적 식민지 문화침탈의 쇠사슬에서 벗어나 공정한 문화상호주의적 원칙에서 쌍방향 문화 교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세종학당의 정신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친선과 우호, 문화 교류의 폭과 깊이가 더해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중앙민족대학 측에서도 만찬 초기에 가졌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태도에서 한 걸음 나아가 세종학당이 중국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추진되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2) 중국 지역

가. 연변대학과 학술 교류와 세종학당 개설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정 추진

국립국어원의 이상규 원장과 최용기 국어진흥부장, 이준석 한국어 보급팀장은 2월 9일(금)부터 13일(화)까지 중국 연길을 방문하여 연변대학의 김병민 총장과 세종학당 개설과 운영 및 학술 교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12일(월)에는 예정한 대로 연변과기대와 세종학당 개설에 관한 업무협정을 체결하였다.

10일(토) 오전 9시 연변대학 김병민 총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상규 원장은 국립국어원에서 세종학당을 통해 추구하는 한국어 교육은 어느 한 나라의 문화를 타국에 일방적으로 강요하려는 것이 아니고 문화상 호주의적 원칙에서 쌍방향 문화 교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상규 원장은 '중국에서 연변대학의 위상을 고려할 때 국립국어원과 연변대학이 장기적인 학술교류가 필요하다'는 김병민 총장의 제안에 공감을 표시하였고, 금년 5월 중 세종학당을 포함하여 국립국어원과 연변대학과의 정례적 학술교류에 관한 업무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김병민 총장이 국립국어원을 방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김병민 총장은 세종학당이 한중 양국 문화의 연대와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의 가교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어 연변대학 조선어학과에서 주최하는 전학석 교수 1주기 추도식에도 참석하였다.

연변과학기술대학(총장 김진경)과 세종학당 개설을 위한 업무협정 체결

12일(월)에는 예정한 대로 연변과기대를 방문하여 세종학당 개설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자리에는 연변과기대 김진경 총장을 대신하여 이승률 대외부총장과 주수길 부총장이 참석하였다.

가나

나. 국립국어원 연변대학교와 세종학당 개원 위한 업무 협정 맺어

중국 동포가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조선족 자치주 연변, 그곳엔 23,000명의 학생이 공부하는 연변대학교가 있다. 연변대학교는 중국 공산당 동북국이 맨 먼저 설립한 대학이다.

특히 연변대학교의 한국언어문학학과는 2001년 중국 교육부의 심사를 통해 9개의 국가급중점학과 중의 하나로 선정되었다. 연변대학교는 조선-한국학학원(한국의 단과대학)을 중심으로 언어학연구소, 조선 문학연구소, 조선-한국학연구센터, 중조한일(中朝韓日)문화비교연구센터, 민족연구원, 동북아연구원 등이 있고, 중국 내 한국학 연구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연변대학 김병민 총장을 예방



연변대학 김병민 총장을 예방



세종학당 개설을 위한 업무협정 체결



연변대학에 세종학당 설립을 위한 협약식

이런 중국 동북 지역 최고의 대학에 국립국어원이 올해 야심차게 시행하는 ‘세종학당’을 설립하기 위한 협약식이 어제(5월 29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렸다. 협약식에서 국립국어원 이상규 원장은 “연변대학과 손을 잡고 세종학당을 설립함으로써 중국 동북지역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거점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인사말을 했다.

이에 김병민 연변대학교 총장은 “세종학당의 설립은 연변대학교로는 큰일일 수밖에 없다. 세종학당의 설립으로 우리 연변대학교는 중국 내 한국학의 중심을 더욱 확고하게 다지게 되었다. 이것이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영광이다.”라고 화답했다.

이어서 국립국어원 최용기 국어진흥교육부장과 연변대학교 김영수 조선-한국학학원원장이 업무협정서를 낭독했다.

이 협정서에는 중국 연변대학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세종학당의 개설과 지원, 한국어와 중국어, 한국 문화와 중국 문화의 비교 연구,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한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과 교육 자료의 보급, 중국 지역 내 한국어 학습 수요에 대한 실태 조사와 연구 등을 두 기관이 협조한다는 내용이었다.

협약식의 정점으로 국립국어원 이상규 원장과 연변대학교 김병민 총장은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주고받았다. 이로써 두 기관은 연변에 세종학당을 설립하기 위한 협약식을 마쳤다.

연변대학교 김병민 총장 특강

이후 점심식사를 한 뒤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국립국어원 대회의실에서 김병민 총장은 ‘중국 연변대학의 한국학 연구와 중한 문화 교류’에 관한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이 특강에서 김병민 총장은 중국 내 한국학 연구에서 연변대학이 차지하는 탁월한 위치와 학술 부문의 주요 업적들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또 대중문화만으로 중한 문화 교류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없으므로 학술적인 차원에서 심층적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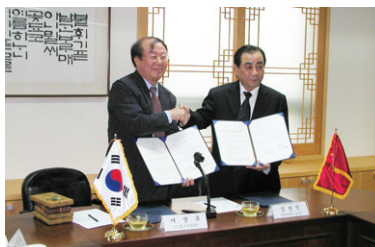
가나

체계적으로 한국 문화를 정리하여 더욱 섬세하면서도 전면적인 한국 문화의 모습을 중국의 대중들에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우수한 문화는 자국에서뿐 아니라 광범위한 문화 교류를 통하여 수용자 국가에서도 보편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한국 문화는 이러한 우수성을 분명 갖추고 있으므로 한국 문화의 문화적 가치가 중국에서 재발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다. 중국 천진 외국어대학교와 세종학당 업무 협정식 체결

국립국어원(원장 이상규)은 2007년 7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국립국어원 2층 대회의실에서 중국 천진 외국어대학교와 세종학당 개설을 위한 업무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정식을 위해 중국 천진 외국어 대학교에서 시우강 총장과 장진통 국제교류처장, 샤오샤 한국어학과 교수가 국립국어원을 방문하였다.

이상규 국립국어원장은 이번 업무 협정이 한중의 문화 연대 의식과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국립국어원이 세종학당을 통해 추구하는 한국어 교육은 상대 국가의 문화와 역사, 민족적 정서를 존중하는 쌍방향 문화 교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협정 체결 모습(왼쪽 이상규 국립국어원장, 오른쪽 김병민 연변대학 총장)



협정 체결 후 기념 촬영 모습

이웃



이에 중국 천진외국어대학교 시우강 총장은 천진 외국어대학교에 세종학당을 설립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한중 문화 교류를 통하여 한국 문화의 문화적 가치가 중국에서 재발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번 업무 협정식은 중국 천진TV 방송국과 한국 아리랑TV 방송국에서 촬영을 하였으며, 이는 중국 천진TV 방송국에서 현재 제작중인 다큐멘터리 '아리랑 타임'에 쓰일 예정이다. 또한 이 다큐멘터리는 중국 천진방송과 한국 아리랑방송에서 동시에 방영된다.

라. 국립국어원 중국해양대학과 업무 협정 체결

국립국어원(원장 이상규)은 2007년 9월 4일 오전 11시에 국립국어원 2층 대회의실에서 중국해양대학과 세종학당 개설을 위한 업무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정식을 위해 중국해양대학에서 우더싱 총장과 다이화 국제 협력 및 교류처장, 천루이 총장 사무실 주임, 이해영 한국어학과 교수가 국립국어원을 방문하였다.

중국해양대학은 해양과 수산학을 중심으로 외국어, 의학, 문학, 경제 등 다양한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중국 교육부 직속 중점 종합대학이다. 이 대학의 외국어대학에는 한국어학과와 학사 및 석사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이번에 국립국어원을 방문한 우더싱 총장은 물리해양학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에도 깊은 조예와 이해를 갖고 있는 과학자로 세종학당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번 협정식에서 이상규 국립국어원장은 아름다운 청도의 중국해양대학과 업무 협정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 업무 협정을 시작으로 두 기관이 한국과 중국의 언어와 문화 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전면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가나

우더싱 총장은 “이상규 국립국어원장과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일치하여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 지구촌이란 한 마을에 함께 사는 사람들끼리 문화 교류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각자의 문화 전파 과정에서 비슷한 점을 발견, 이를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중국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것은 중국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화답하였다.



(3) 독립국가연합 지역(CIS)

가. 세종학당 개설을 위한 독립국가연합 지역(CIS) 업무협정 체결

이상규 국립국어원장은 독립국가연합 지역(CIS)의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대학들과 세종학당 개설을 위한 업무협정 체결과 키르기스스탄에 세종마을을 개설을 위한 업무협의를 위해 2007년 5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국외출장을 다녀왔다.

이번 출장에서 키르기스스탄의 비슈케크 인문대학교(5. 2.)와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과는 세종학당 개설 관련 업무협정(5. 7.)을 체결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의 니자미 국립사범대학교(5. 8)는 일정이 단축되어 세종학당 개설을 위한 업무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5월 2일 한국 키르기스스탄 친선협회(회장 박찬석 의원)의 주선으로 아탐바이브 수상과 면담한 자리에서 한글 문자 보급을 위한 ‘세종마을’ 개설 가능성을 타진하였고, 수상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 자 보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인문대학 무사예프
압달라 총장과 업무협정 체결 장면



비슈케크 인문대학 한국어학과 학생들의 축하 공연



키르기스스탄의 아람바이브(오른쪽에서 세 번째) 수상과 면담을 마치고 기념촬영

가나

업무협정서 1

대한민국 국립국어원과 몽골 울란바타르대학교 간의 언어 문화 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서

대한민국 국립국어원과 몽골 울란바타르대학교는 대한민국과 몽골 국민 간의 언어와 문화 교류를 확대하여 한·몽 양국 문화의 발전과 우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할 것을 합의한다.

제1조(기본 방향) 두 기관은 대한민국과 몽골의 언어와 문화 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어와 몽골어 교육, 한국어와 몽골어 연구, 대한민국과 몽골의 문화 상품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제2조(협력 사항) 두 기관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로 성실히 협조한다.

- (1) 몽골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강좌의 개설과 운영
- (2) 한국어와 몽골어, 한국 문화와 몽골 문화의 비교 연구
- (3) 대한민국의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과 교육 자료의 보급
- (4) 몽골 지역 내 한국어 학습 수요에 대한 실태 조사와 연구
- (5) 두 기관이 보유한 지식·경험·문화 시설 등의 적극적인 제공
- (6) 그 밖에 두 기관이 합의하는 사항

제3조(실무협의회 구성) 두 기관은 협력 사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되, 이 협의회는 대한민국 국립국어원의 국어진흥부장과 몽골 울란바타르대학교의 기획처장이 공동으로 주재한다. 두 기관은 이 협의회를 통하여 필요한 사업의 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결정하며 실제 사업은 담당 부서에서 맡도록 한다.



업무협정서 1'



БНСУ-ын Хэл шинжлэлийн үндэсний хүрээлэн ба Монгол улс дахь Улаанбаатар дээд сургууль хоорондын хэл ба соёлын солилцоо,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гэрээ

БНСУ-ын Соёл,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яамны харьяа Хэл шинжлэлийн үндэсний хүрээлэн ба Улаанбаатар дээд сургууль Солонгос, Монгол ард түмний хоорондох хэл, соёл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хоёр улсын соёлын хөгжил цэцэглэлт, найрсаг харилцааг өргөжүүлэн бэхжүүлэх зорилгоор тулд дараах үйл ажиллагааг хамтран гүйцэтгэхээр энэхүү гэрээг байгуулсан болно.

Нэгдүгээр зүйл (Үндсэн чиглэл) Дээрх хоёр байгууллага БНСУ, Монгол улс хоорондын хэл, соёлын солилцоог өргөтгөхийн тул солонгос, монгол хэлний сургалт болон солонгос, монгол хэлний судалгаа, БНСУ, Монгол улсын соёлын бүтээлийг түгээх зэрэг олон салбарт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цогц харилцаатай ажиллана.

Хоёрдугаар зүйл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нөхцөл) Дээрх хоёр байгууллага доорх нөхцөл байдалд хамтран тохиролцож ажиллана.

- (1) Монголд солонгос хэл ба солонгосын соёлыг танин мэдүүлэх лекцийг удирдан явуулах
- (2) Солонгос, монгол хэл ба солонгос, монголын соёлын харьцуулсан судалгаа хийх
- (3) БНСУ-ын Соёл,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яам, Хэл шинжлэлийн үндэсний хүрээлэнгээс гаргасан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тандартын сургалт, сургалтын материалаар нийлүүлэх
- (4) Монгол улсад шаардлагатай байгаа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галтын бодит байдлын судалгаа хийх
- (5) Хоёр байгууллага өөрсдийн эзэмшиж буй мэдлэг, туршлага, соёлын

가 나

업무협정서 2



대한민국 국립국어원과 몽골 국립사범대학교 간의 세종학당 개설을 위한 업무 협정서

대한민국 국립국어원과 몽골 국립사범대학교는 몽골 국민과 대한민국 국민 사이의 언어와 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한·몽 양국 문화의 발전과 우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종학당 개설에 협력할 것을 합의한다.

제1조(기본 방향) 두 기관은 대한민국과 몽골의 언어와 문화 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몽골어와 한국어 교육, 몽골어와 한국어 연구, 몽골과 대한민국의 문화 상품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제2조(협력 사항) 두 기관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로 성실히 협조한다.

- (1) 몽골 국립사범대학교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세종학당의 개설과 운영
- (2) 한국어와 몽골어, 한국 문화와 몽골 문화의 비교 연구
- (3) 대한민국의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과 교육 자료의 보급
- (4) 몽골 지역 내 한국어 학습 수요에 대한 실태 조사와 연구
- (5) 두 기관이 보유한 지식·경험·문화 시설 등의 적극적인 제공
- (6) 그 밖에 두 기관이 합의하는 사항



업무협정서 2'



БНСУ-ын Хэл зохиолын хүрээлэн, МУ-ын Боловсролын их сургуулийн хооронд Сэжунь соёлын төв байгуулах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хэлэлцээр

БНСУ-ын Хэл зохиолын хүрээлэн болон МУ-ын БСШУЯам нь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ард түмний хэл соёлын харилцааг өргөжүүлж солонгос монгол 2 орны соёлын хөгжил, найрамдалт харилцааг хөгжүүлэхийн тулд дараахи байдлаар хэлэлцэн тохирч байна.

1 дүгээр зүйл: Үндсэн чиглэл

Хоёр байгууллага нь БНСУ, МУ-ын хэл, соёлын харилцааг өргөжүүлэхийн тулд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галт, судалгаа болон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соёлын санг хөгжүүлэх зэрэг олон салбарт цогц талт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харилцааг бүрдүүлнэ.

2 дугаар зүйл: Хамтран ажиллах

Хоёр байгууллага нь доорхи зүйлүүдийн талаар харилцан хамтран ажиллана.

- 2.1 МУ-ын их дээд сургуульд солонгосын хэл болон солонгос соёлыг танилцуулах дамжааг нээн ажиллуулах.
- 2.2 Солонгос-монгол хэл, солонгос-монгол соёлын харьцуулсан судалгааг хийх.
- 2.3 БНСУ-ын Соёл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яам, Хэл соёлын хүрээлэнгээс гаргасан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тандарт сургалтын хөтөлбөр болон сургалтын материалаар хангах.
- 2.4 МУ дахь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галтын хэрэгцээ шаардлагын талаархи бодит судалгааг хийх
- 2.5 Хоёр байгууллага өөр өөрсдийн мэдлэг, туршлага, соёлын хэрэгсэл зэргийг идэвхтэйгээр солилцох
- 2.6 Хоёр байгууллагын хэлэлцэн тохиролцох бусад зүйлүүд

3 дугаар зүйл: Ажлын хэсэг байгуулах

Хоёр байгууллага нь амжилттай хамтран ажиллахын тулд ажлын хэсэг байгуулах бөгөөд энэхүү ажлын хэсгийг МУ-ын БСШУЯамны боловсролын

가나

업무협정서 3



대한민국 국립국어원과 중국 연변대학 간의 세종학당 개설을 위한 업무 협정서

대한민국 국립국어원과 중국 연변대학은 한국과 중국 국민들 사이에 언어와 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한·중 양국 문화의 발전과 우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종학당 개설에 협력할 것을 합의한다.

제1조 (기본 방향) 두 기관은 한국과 중국의 언어와 문화 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어와 중국어 교육, 한국어와 중국어 연구, 한국과 중국 문화 상품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제2조 (협력 사항) 두 기관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로 성실히 협조한다.

- (1) 중국 연변대학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세종학당의 개설과 지원
- (2) 한국어와 중국어, 한국 문화와 중국 문화의 비교 연구
- (3)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한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과 교육 자료의 보급
- (4) 중국 지역 내 한국어 학습 수요에 대한 실태 조사와 연구
- (5) 두 기관이 보유한 지식 · 경험 · 문화 시설 등의 적극적인 제공
- (6) 그 밖에 두 기관이 합의하는 사항

제3조 (실무협의회 구성 등) 두 기관은 협력 사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되, 이 협의회는 대한민국

이웃



국립국어원의 국어진흥부장과 중국 연변대학의 조선-한국학학
원장이 공동으로 주재한다. 두 기관은 이 협의회를 통하여 필요한
사업의 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결정하며 실제 사업은 담당 부서
에서 맡도록 한다.

제4조 (업무 추진 방법) 두 기관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위 협력
사항 중 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협의
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그 밖의 사항) 이 업무 협정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서는 두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 (효력 발생 등) 이 업무 협정서는 두 기관의 장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한국어와 중국어로
각각 2부를 작성하여 두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본 약정은 2007년 5월 29일부터 5년간 유효하며, 양측은 안보,
공공규정, 국가안녕 등의 이유로 본 약정의 시행을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일시 연기할 권한을 지닌다. 양측이 만료 6개월 이전
까지 약정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상대측에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본 약정은 5년 단위로 자동 갱신된다.

2007년 5월 29일

대한민국 국립국어원
원장 이상규

이 상 규

중국 연변대학
총장 김병민

金 炳 民

가나

업무협정서 3'



中华人民共和国延边大学与大韩民国国立国语院 关于开设世宗学堂的业务协议书

中华人民共和国延边大学与大韩民国国立国语院为了扩大中韩两国人民的语言和文化交流,促进两国间的文化发展,增进友谊,决定在延边大学开设世宗学堂并达成如下协议。

第一条 (基本原则) 为了扩大中韩两国语言、文化交流,双方在韩国语和汉语教育、语言研究,以及两国的文化商品开发等多个领域构建全面的合作关系。

第二条 (合作事项) 双方就以下领域真诚合作。

- (1) 支持在延边大学开设介绍韩国语和韩国文化的世宗学堂。
- (2) 韩国语和汉语、韩国文化和中国文化比较研究。
- (3) 推广韩国文化观光部和国立国语院开发的韩国语标准教育课程和教育资料。
- (4) 在中国境内进行韩国语学习需求情况的调查研究。
- (5) 双方互相提供所拥有的知识・经验・文化设施等。
- (6) 双方协商的其它事项。

第三条 (事务协议会的构成等) 为了有效地推进合作事项的实施,双方共同组成业务协议会。协议会由韩国国立国语院国语振兴部部长和中国延边大学朝鲜-韩国学院院长共同主持。双方通过



协议会决定所需的业务机构和负责人，具体工作由业务机构负责执行。

第四条 （业务实施方法）双方组成业务协议会，在上述协议中选定优先实施项目，并协商实施具体合作方案。

第五条 （其他事项）本协议中没有涉及的事项，双方协商决定。

第六条 （生效等）

- （1）本协议书双方授权人署名生效。
- （2）本协议书以韩文和中文书写，两份协议书具有同等效力。
- （3）本协议书一式两份，双方各执一份。

本协议书有效期为五年即2007年5月29日-2012年5月29日。在有效期内双方均有因各自的安全、有关国家规定等暂缓执行本协议部分条款或全部条款的权利。有效期终止六个月之前，双方没有书面语形式的通报，本协议将按五年为单位延续生效。

2007年5月29日

中华人民共和国延边大学
校长

金相根

大韩民国国立国语院
院长

이명준



업무협정서 4

세종학당 개설을 위한 대한민국 국립국어원과 카자흐스탄 카자흐국립대학교 간의 업무 협정서

대한민국 국립국어원과 카자흐스탄 카자흐국립대학교는 양국 국민들 사이에 언어와 문화 교류를 확대하여 양국 문화의 발전과 우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종학당 개설에 협력할 것을 합의한다.

제1조(기본 방향) 양측은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언어와 문화 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어와 카자흐스탄어 교육, 한국어와 카자흐스탄어 연구, 한국어와 카자흐스탄 문화 상품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제2조(협력 사항) 양측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로 성실히 협조한다.

- (1) 카자흐스탄 카자흐국립대학교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강좌의 개설과 지원
- (2) 한국어와 카자흐스탄어, 한국 문화와 카자흐스탄 문화의 비교 연구
- (3)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한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과 교육 자료의 보급
- (4) 카자흐스탄 지역 내 한국어 학습 수요에 대한 실태 조사와 연구
- (5) 양측이 보유한 지식·경험·문화 시설 등의 적극적인 제공
- (6) 그 밖에 양측이 합의하는 사항

제3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양측의 협력 사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되, 이 협의회는 카자흐스탄

이웃



카자흐국립대학의 한국어학과장과 국립국어원의 국어진흥부장이 공동으로 주세한다. 양측은 이 협의회를 통하여 필요한 사업의 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결정하며 실제 사업은 담당 부서에서 맡도록 한다.

제4조(업무 추진 방법) 양측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위 협력 사항 중 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협력 시안을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그 밖의 사항) 이 업무 협정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측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약정은 2007년 5월 7일부터 5년간 유효하며, 양측은 안보, 공공규정, 국가안녕 등의 이유로 본 약정의 시행을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일시 연기할 권한을 지닌다. 양측이 만료 6개월 이전까지 약정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상대방측에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본 약정은 5년 단위로 자동 갱신된다.

2007년 5월 7일

카자흐스탄
카자흐국립대학교 총장

대한민국
국립국어원 원장



업무협정서 4'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Казахским национальны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им. аль-Фараби и Национальной
академи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об открытии
Учеб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Центра «Седжон»**

Казах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им. аль-Фараби и Национальная академ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 целью развития дружественных и культурны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Казахстаном и Кореей и расширения обмена в области культуры и языка между народами заключают соглашение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основании Учеб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Центра «Седжон»

1. Предмет договора

Две организации для расширения обмена в области культуры и языка между Казахстаном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создают разносторонние отношения в таких отраслях как изучение казахского 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ов, исследование казахского 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ов, сравнительное изучение традиционных культур.

2. Две стороны обязуются оказывать содействие в нижеследующих пунктах

- (1) При Казах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открывается Учеб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Центра «Седжон», в котором будет об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по специальной программе. Работу по управлению Учеб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Центром «Седжон» школой ведет КазНУ им. аль-Фараби.
- (2) Национальная академ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финансирует учебный процесс, сравнительн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казахского 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ов, традиционных культур казахского и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ов.
- (3) Национальная академ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и туризм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беспечивают Учеб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Центр «Седжон» всеми необходимыми учебными материалами и делегируют за свой счет профессоров-лингвистов.

4) Учеб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Центр «Седжон» проводит также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требности в преподавани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разных регионах Казахстана.

(5) Посредством деятельности Учеб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Центра «Седжон» налаживается активный обмен знаниями, практическим опытом и проводятся культурные мероприятиями двух договаривающихся сторон.

(6) Пункты, согласованные двумя сторонами:

3. Две стороны для успешной реализации пунктов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организуют Совет Центра, который возглавляет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назначаемый руководством КазНУ им. аль-Фараби. В Совет Центра входит представитель Национальной академи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овет состоит из членов, представляющих две стороны.

4. Две стороны содействуют созданию Ассоциации по из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зяв за основу, задачу расширен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культурного и языкового обмена.

5. Все вопросы, касающиес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е отмеченные в соглашении, подлежат обсуждению и согласованию обеими сторонами.

6. Настоящее соглашение составлено по два экземпляра на русском и корейском языках, по одному экземпляру остается у каждой из сторон. Данное соглашение вступает в силу с момента подписания его обеими сторонами в лице первых руководителей организаций.

07.05.2007

Ректор Казах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м. аль-Фараби
КОЖАМКУЛОВ Т.А.

Президент Национальной
академи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ЛИ САНГ ГЮ

가나

업무협정서 5

세종학당 개설을 위한 키르기스 비슈케크 인문대학과 대한민국 국립국어원 간의 업무 협약서

비슈케크 인문대학과 대한민국 국립국어원은 양국의 국민들 사이에 언어와 문화 교류를 확대하여 양국 문화의 발전과 우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종학당 개설에 협력할 것을 합의한다.

제1조(기본 방향) 양측은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의 언어와 문화 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어와 러시아어 교육, 한국어와 러시아어 연구,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의 문화 상품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제2조(협력 사항) 양측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로 성실히 협조한다.

- (1) 키르기스스탄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세종학당의 개설과 지원
- (2) 한국어와 러시아어, 한국 문화와 러시아 문화의 비교 연구
- (3)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한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과 교육 자료의 보급
- (4) 키르기스스탄 지역 내 한국어 학습 수요에 대한 실태 조사와 연구
- (5) 양측이 보유한 지식·경험·문화 시설 등의 적극적인 제공
- (6) 그 밖에 양측이 합의하는 사항

제3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양측의 협력 사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되, 이 협의회는 비슈케크 인문대학과 한국어교육학과장과 국립국어원의 국어진흥부장이 공동으로 주재한다. 양측은 이 협의회를 통하여 필요한 사업의 담당 부

이웃



서와 담당자를 결정하며 실제 시업은 담당 부서에서 맡도록 한다.

제4조(업무 추진 방법) 양측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위 협력
항 중 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협력 사안을 협의
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그 밖의 사항) 이 업무 협정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해서는 양측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007년 5월 2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인문대학을 대표하여

대한민국

국립국어원을 대표하여

가나

● ● 동북아 문화 공동체 건설 전략 ● ●

I. 추진 목표와 배경

□ 동북 공정, 독도 문제 등 물리적 영토 확장의 국제 정세에 문화권역의 확장으로 대응

□ 문화권역의 확장으로 문화 산업 시장의 확대와 국가 성장 동력의 확보

□ 경제 및 환경 부문의 동북아 공동체 구축을 위한 지역 통합 논의의 대두

□ '90년대 후반부터 서구의 문화 콘텐츠와 경쟁하면서 동북아 지역에 한국 문화를 '한류'로 확산시킴

□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어 학습 열풍의 확산과 한류 선호로 문화 연대 가능성 고조

□ 한국어 보급 확대를 통한 반한류 향한류의 예방과 한류 확산 지속화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대두와 문화적 가치의 증대

지역 환경

정책 과제

지역 환경정책 과제동북아 국가간 교류의 증대와 통합 논의 가속	➔	경쟁과 협력의 체계 구축 필요성
세계 경제 기여도 증가	➔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 가치 증가
반목의 역사와 언어의 다양화로 인한 통합 논의의 저해	➔	문화 교류를 통한 공동체적 가치 구현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국가간 협력의 필요성 증대	➔	공동체적 가치 창출을 위한 문화 연대

동북아 문화 연대를 통한 한국어 문화권역의 확대

지역 환경

정책 과제

한류의 확산과 새로운 문화 가치에 대한 기대감 고조	➔	정보통신(IT) 산업의 확대와 디지털 노마디즘의 구현
경제 및 환경 부문 협력에 따른 다언어 사용자의 필요성 증가	➔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을 통한 한국어 문화 전문가의 육성
지역 국가간 문화 침략주의에 대한 우려 증가	➔	문화상호주의적 한국어 보급을 통한 우려의 불식

가나

II. 동북아론의 개념과 가치

20세기말 동아시아론의 대두와 한반도 정세 변화

- ➔ 관례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을 지칭하는 개념
- ➔ 냉전 체계의 종식과 세계 질서 재편에 따라 한국,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등의 고도성장에 주목
- ➔ 북한을 배제한 미국 중심의 지리 문화적 편향성의 반영

‘국민의 정부’와 아시아 태평양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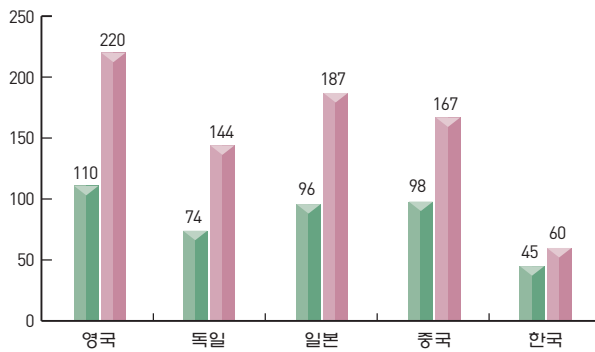
- ➔ 해양 아시아 또는 태평양 연안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미국과 일본에서 선호하는 용어
- ➔ 팽창하는 유럽 세계 경제의 역사적 산물로서 아태재단 및 APEC 설립의 이념적 토대
- ➔ 북한을 배제한 채 지역 간 협력을 논의하는 한계

이 자 비



III. 현황과 문제점 분석

■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수 변화표



열악한 한국어 보급 시설과 한국어 열풍의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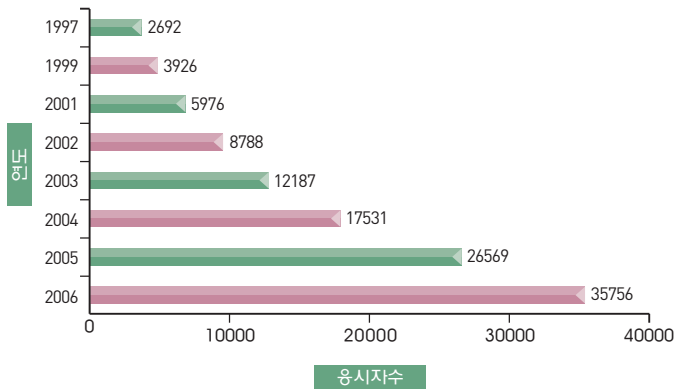
■ 자국어 보급 투자 예산

※세계 주요국의 자국어 보급 시설 현황

	개설 국가 수	보급 기관 수	예산(억원)
영국 브리티시 카운실	110	220	9,280
독일 괴테 인스티튜트	74	144	2,700
일본 해외 일본문화원	96	187	4,380
중국	98	167	3,200
한국 해외 문화원, 교육원	45	60	200

가나

■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수 변화표



※ 한국어 수급 현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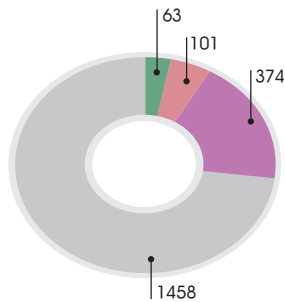
	중국(동북)	중앙아시아	몽골
한국어 가능자	2,450,000	330,000	10,000
한국어 수요자 예측	1,500,000	550,000	150,000
대학의 한국어학과	45(5)	7	18
보급 시설 교육원	2	3	0

- 한국어 가능자는 현지 국적 동포 포함
- 수요자예측은 '현지인 취업가능 인구x한국기업 참여율로 계산한 수치임
- 보급 시설은 문화원과 교육원의 공인된 한국어강좌를 말함



- 현지 대학에 개설된 정규 교과과정 한국어 강좌로는 현지인 한국어 학습 수요 충족을 통한 한국어 대중화에 한계 노출
- 200억의 국외 한국어 보급 예산이 대학을 비롯한 정규 교과 과정 및 재외 동포 한국어 교육에 과도하게 집중
- 한국어 보급 핵심 기관인 국립국어원의 실행 예산이 전체 한국어 보급 예산 200억 가운데 6억3천만 원에 불과

■ 2006년 예산 비중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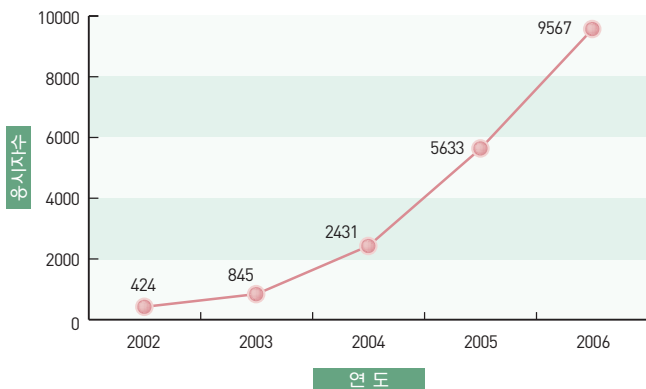
	예산액	주요 보급 특성	해당 기관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	16억4천만 원 (6억3천만 원)	현지인 한국어 보급을 통한 한류 확산	국립국어원 한국문화원 세계화재단
교육인적자원부	37억4천만 원	재외 국민 한국어 교육 치중	국제교육진흥원 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원
외교통상부	145억8천만 원	재외 동포 한국어 교육 치중	재외동포재단 국제교류재단 국제협력단

가나

중국 지역의 현황과 과제

- ➡ 중국 내 한류의 영향으로 중국 현지인의 한국어 교육 열풍 고조
- ➡ 북경 한국문화원의 한국어 학습 응시자수의 급증
 - 1994년 700여 명 - 2005년 10,000여 명으로 증가
- ➡ '한국어능력시험'의 중국 내 응시자 수 급격히 증가

■ 시험응시자 수 변화추이



- ➡ 중국의 산업화와 동북 삼성 조선족 사회의 급격한 붕괴 예상
- ➡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해체와 한족 사회로의 동화 가속
 - 동북 삼성 지역에 대한 중앙 정부의 주목과 간섭의 심화
 - 동북 공정을 통한 역사 왜곡과 한족 이주와 조선족 동화 정책 실시 과제

이웃



과 제

가. 한국어 학습 지원자의 급증으로 인한 교육 환경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한 학급당 20명 내외로 운영되는 '한국어문화학교'의 개설과 지원

- 북경 주재 한국문화원의 경우 1994년 700여 명 정도의 지원자가 2005년 10,000여 명으로 증가
- 현재 1,000명 남짓한 등록자를 한 반에 100명에서 200명 정도로 나누어 운영하기 때문에 수업 환경이 대단히 열악한 실정임
- 중국에는 주말 한글학교와 같은 민간 교육시설이 없으므로 한국어학과 설치한 대학과 계약을 통해 소수자 중심의 '한국어문화학교'를 개설
- 1년에 두 차례 현지인에게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하여 성적 우수자에게 한국의 문화 체험과 한국어 연수 기회를 제공
- 인터넷의 한국어 전문가 커뮤니티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한국어 교육 전문가로 활용.

나. 표준 한국어교육프로그램의 지원

- 다양한 한류 드라마를 한국어 학습 교재로 제작하는 동시에 중국의 견제를 불식하고, 문화 상호주의적 교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한국어 학습 교재의 내용에 중국의 문화와 역사, 영화를 포함함.

다. '한국어문화학교'의 교사로 동북 삼성 조선족의 한국어 교육전문가 채용

- 중국을 5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 지역에 소수 정예의 한국어문화학교 개설하게 되면 다수의 한국어 교육전문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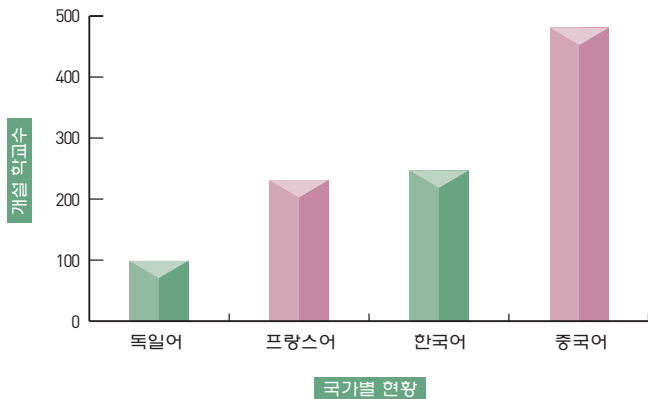
가나

- 본국의 한국어교육전문가를 파견함과 동시에 동북 삼성 지역 한국어 교육 전문가도 채용
- 동북 삼성 조선족 사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학습하면 의식주가 해결된다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

일본 지역의 현황과 과제

➡ 일본 고교에서 영어 이외의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한 곳이 급증하는 추세임

■ 일본고교의 제2외국어 교육 현황



- ➡ 한류로 인한 현지인 한국어 학습 지원자는 증가하나 재일동포들 가운데는 한국어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증가.
- ➡ 일본이 한류 문화상품 시장으로 부각됨과 동시에 한국어 학습 교재 시장으로도 각광을 받음.



➔ 한국학교와 한글학교의 시설을 이용한 한국어문화학교의 개설과 운영

과 제

- 가. 한류 문화 상품을 일본 지역에서 통용될 한국어 학습 교재의 개발 및 지원
- 나. 재일 동포나 일본인들의 한국어문화 체험 연수 기회 확대와 학습 동기 유발
- 다. 한국어 강의를 개설한 고등학교 교장단에 연수 기회 제공
- 라. 우수한 성적의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 연수 기회 제공
- 마. 한국의 일본어 개설 학교와 일본의 한국어 개설 학교들끼리 교류 촉진

중앙아시아(CIS) 지역의 현황과 과제

- ➔ 우즈베키스탄에 20만, 카자흐스탄에 10만, 키르기스스탄에 3만의 동포가 거주
- ➔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 학습자가 급증
- ➔ 한국 전자제품과 문화 산업 시장으로 부각됨

구 분 지 역	교육원수	파견 공무원수	관할 한글학교			관할지역 동 포 수
			학교수	교원 수	학생수	
카자흐스탄	1	1	183	260	6,373	103,676
키르기스스탄	1	2	63	89	2,305	20,394
우즈베키스탄	1	2	112	164	8,907	200,917

※ 중앙아시아의 한국어 보급 시설 현황(2005년 8월 현재)

가 나

과 제

- ➡ 늘어나는 한국어 학습 수요와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어 보급 시설
- ➡ 현지화된 한국어 표준 교육 프로그램의 수요
- ➡ 한국어 교육 전문가의 초청 연수 필요

몽골 지역의 현황과 과제

- ➡ 한류의 영향으로 인한 한국어 학습 열기의 고조와 미흡한 보급 시설
- ➡ 국립몽골대학 등 18개 대학에서 한국어 관련 강의 개설,
- ➡ 구 250만의 몽골인 가운데 한국어 공부하는 학생은 2,500 명
(몽골인 1,000명 중 1명꼴로 한국어를 공부함.)
- ➡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몽골인은 25,000명, 연간 3억 달러를 송금,
몽골의 국내총생산(GDP)인 18억 7천만 달러의 16%임.
- ➡ 한몽골 정상 회담 후에 광물자원 공동탐사 개발, 양해 각서 체결,
교통 분야 협력 양해각서 등 18개 협정 및 양해각서를 체결
- ➡ 경제, 환경 부문에서 협력의 가속화가 예상됨.
- ➡ 한국은 몽골의 네 번째 교역 대상국(5,700만 불, 2000년)
현재 600여 개의 한국 회사가 설립되어 있음

이웃



- ➔ 한국어 학습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어 보급 시설
- ➔ 몽골 현지화된 한국어 표준 교육 프로그램의 수요
- ➔ 몽골 한국어 교육 전문가의 초청 연수 필요

과 제

- 가. 몽골의 한국어 보급 시설은 현재 매우 부족한 상황임
 - 비정규 한글학교 11곳, 한국어 강좌 개설된 대학 18곳
 -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의 정규 보급 시설 전무
- 나. 한국과 몽골 경제와 환경 부문 협력의 심화를 위해서는 한국 몽골 문화 연대의 추구하고 한국어 보급의 전제 필요
- 다. 한국어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소수 정예의 한국어문화학교를 개설 필요
- 라. 한류 관련 교재를 비롯하여 몽골 현지 문화에 기초한 한국어 보급 교재의 개발 필요

가나

IV. 문화공동체 구현을 위한 4대 전략

지 표

▣ 동북아 지역 균질적 번영을 위한 문화 교류와 연대

- ▶ 문화 교류와 연대의 기초인 한국어의 보급과 확산
- ▶ 국가 성장 동력의 확충을 위한 한국어의 보급과 확산



한국어 문화학교의 개설과 운영	온라인 한국어 문화 교육체계 구축	전 세계 교류 협력망 구축과 활용	한국어교사 재교육 및 연수 지원 강화
○ 소수 정예의 지역 밀착형 한국어 문화학교의 단계별 설치 운영 ○ 지역 밀착형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지원 ○ 현지 한국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 온라인 한국어 강좌 실시 ○ 온라인 한국어 문화 교육 방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 ○ 아리랑 TV에 한국어 문화 교육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 제공	○ 한국어 전문가 인적 기관별 네트워크 구축 ○ 한국어 교육 전문가를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운영 ○ 아시아 지역 언어 정책 기관 연합 학술회의	○ 한국어 교육 전문가의 재교육 ○ 동북아 문화공동체 파견 한국어 교육 전문가에 대한 교육 ○ 국어문화학교를 한국어전문가 재교육기관으로 확대 개편



정책 기조

▣ 문화 상호주의적 교류에 입각한 문화공동체 구성



V. 전략 추진 과제와 소요 예산

1. 한국어 문화학교의 개설과 운영

□ 현황

- 동북아 지역의 한국어,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 동북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친밀성 및 경제적 협력 가능성 증가
- 한류의 확산으로 한국문화원이 베이징, 상하이, 하노이, 도쿄, 오사카, 뉴욕, 로스앤젤레스, 파리, 베를린, 모스크바, 런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12개 지역으로 확대 개설

□ 문제점

- 중국과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구러시아 지역(CIS) 지역의 현지인들 가운데 한국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어 보급 체계의 미비로 한국어 학습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

□ 목적 / 필요성

- 몽골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동북아 환경 협력 및 한국 몽골 국가 협력에 대비
- 한류 확산 지역과 전 세계 한국 문화산업 시장의 확대 재생산에 기여
- 외국 노동 이주민의 국가적 수요 증가에 대비
-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국어의 효율적 체계적 보급에 주력

□ 추진 경과

- 한국문화원을 베이징, 상하이, 하노이, 도쿄, 오사카, 뉴욕, 로스앤젤레스,

가나

- 파리, 베를린, 모스크바, 런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개설
○ 각 지역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어 강의 개설 후 한국어 학습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 세부 사업 및 소요 예산

- 가. 해외 한국문화원을 거점으로 지역밀착형 '한국어문화학교'의 설치·운영
- 계약을 통해 현지 교육 시설 이용, 서남아시아·동남아시아로 연차적 확대
- 2007년부터 몽골 지역 공무원 한국어 교육 실시

◆ 제1단계 (2008년~2012년 동북아 벨트 구축, 100개)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중국 지역	10개	10개	10개	15개	15개
중앙아시아 (CIS) 지역	3개	3개	3개	3개	3개
몽골 지역	5개	5개	5개	5개	5개

- 2008년부터 동북아 지역에서 연 30,000명의 한국어 학습 가능
- 2012년까지 동북아 지역에서 연 250,000명의 한국어 학습 수요 충족 가능

- 나. 제2단계에서는 동남아, 서남아 지역 한국어문화학교 개설로 확대
- 동남아 지역(베트남, 타이, 인도네시아) 한국어문화학교 개설로 확대
- 서남아 지역(인도, 파키스탄, 네팔) 한국어문화학교 개설로 확대

- 소요예산 (6,000,000천 원)
- 한국어문화학교 1개교 설립*6,000만 원*100개교



2. 온라인 한국어문화 교육 체계 구축

□ 현황

- 동북아 지역 및 한류 확산 지역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
- 한국문화원의 한국어문화학교 개설만으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수요에 대비 불가

□ 문제점

- 동남아시아 및 서남아시아, 몽골, 구러시아 지역(CIS)의 인터넷 보급이 미흡
- 표준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 및 동영상 교재 개발의 미흡

□ 목적 / 필요성

- 한국어문화학교 개설 및 운영 불가능 지역의 한국어 학습 수요에 대비
- 표준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상시적 보급 가능

□ 추진 경과

- 한류 문화 상품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 표준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모형 개발

□ 세부 사업 및 소요 예산 (20억)

- 온라인 한국어 강좌 개발(1,000,000천 원)
- 인터넷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 방송 실시(1,000,000천 원)



3. 한국어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

□ 현황

- 국외 한국어 교육 전문가의 수요 증대
- 국외 한국어 교육 기관과의 횡적 협력 가능성 증가
- 동북아 지역의 한국어 교육 전문가에게 표준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공급 필요성 증가

□ 문제점

- 국외 한국어 교육 전문가의 실태 파악 미흡
- 한국어 교재의 현지화를 위한 현지인 한국어교육 전문가에 대한 수요 증가
- 국외 각 지역 한국어 교육 전문가의 협력 체계 부재
- 국외 각 지역 한국어 교육 기관과의 협력 체계 부재

□ 목적 / 필요성

- 국외 한국어 교육 전문가를 지속적, 체계적으로 육성
- 국외 지역별 한국어 보급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비
- 한국어 보급을 위한 체계적 지원에 활용
- 한국어 교재의 현지화에 현지인 한국어 전문가 활용

□ 추진 경과

- 인적 기관별 한국어 교육 전문가의 실태 파악 및 네트워크 구축

□ 세부 사업 및 소요예산(10억)

- 한국어 전문가 인적 기관별 네트워크 구축(500,000천 원)
- 한국어 교육 전문가를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운영(400,000천 원)
- 아시아 지역 언어정책 기관 연합 학술회의(100,000원)



4. 한국어문화 전문가의 전문성 제고와 체계적 육성 공급

□ 현황

- 국외 각 지역 및 한류 확산 지역에서 표준 한국어 교육 모형의 수요 확대
- 한류 확산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한국어 교사 수요 증가
- 한국어 교육 전문가에 대한 체계적 강화·육성 교육의 필요성 증가

□ 문제점

- 표준 한국어 교육 모형에 따른 교육 시스템 미비
- 한국어문화 정책 전문가 부재
- 국외 각 지역 한국어 교육 전문가의 지속적 육성책 미흡

□ 목적 / 필요성

- 국외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 가능
- 표준 한국어 교육 모형에 따른 체계적 한국어 교사 양성 가능

□ 추진 경과

- 표준 한국어 교육 모형 개발 중
- 한국어 교원 양성 제도 실시
- 한국어 교육 전문가 초청 및 파견 교육 실시

□ 세부 사업 및 소요예산 (20억 원)

- 동북아 한국어 교육 전문가에 대한 초청과 파견 교육의 보완·확대를 통한 양성(1,000,000천 원)
- 한국어 언어문화봉사단의 전문성 강화 교육 실시(500,000천 원)
-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 파견 한국어교육 전문가에 대한 강화 교육 실시 (500,000천 원)

※ 총 소요 예산 110억 원



참고자료

〈몽골의 한국어 교육 현황〉

1. 현지 기관 중심의 한국어 교육 기관

가. 정부 기관 - MBE(고용조정국, Mediation Bureau for Employment) 1곳

대상자	대상 인원	교 사	교 재	비 고
예비 한국 근로 희망자	10,000명 (연간)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자체 교재	-4주 교육 -2박 3일 직무 교육 -한국 정부의 고용허가제 관련

나. 대학 - 몽골 국립대학교 포함 18곳 (2005년 한국어세계화재단 자료)

번호	대학 이름	학생 수	교수 인원	비고
1	몽골 국립대학교	127명	한3 / 몽4	
2	몽골 국립사범대	95명	한1 / 몽4	
3	몽골 국립인문대학교	242명	한4 / 몽9	몽골한국어옹변대회 연구 발표 대회
4	울란바토르 대학교(사립)	463명	한13 / 몽14	교재 및 사전 편찬
5	몽골 과학기술대학교	194명	한2 / 몽2	
6	오르헨 대학교	113명	한2 / 몽3	
7	세를렉 대학교	76명	한2 / 몽1	
8	한몽 기술대학	27명	한1 / 몽2	KOICA 지원 설립 대학(2년제)
9	오오 대학	44명	몽2	
10	울란바토르 대학교(국립)	300명	한4 / 몽4	
11	후레 대학교	730명	한5	
12	다르항	90명	한1 / 몽1	
13	신다르항 대학교	158명	한4 / 몽1	
14	몽골-소룡고스 칼리지	.	.	



번호	대학 이름	학생 수	교수 인원	비고
15	오토공텡게르 대학교	·	·	
16	몽골 운데스 대학	·	·	
17	징기스칸 대학교	·	·	
18	후레 대학교	·	·	

2. 한인 중심의 한국어교육 기관 실태

가. 정규 한국학교 - 없음

나. 비정규 한글학교 - 몽골 토요한글학교 포함 11곳

번호	학교 이름	학생 수	교사 수	비고
1	몽골 토요한글학교	언어 9명 초등 41명	7명	언어 및 컴퓨터 교육 중심
2	MK 학교	유아 31명 초등 42명	9명	몽골 교육부 승인
3	울란바토르 부속 초등학교	·	·	울란바토르 대학교(사립) 병설
4	제 23중학교	·	·	
5	산사레 사립학교	·	·	
6	몽게니 중학교	·	·	
7	에르데민온드라 중학교	·	·	
8	아르비스 학교	·	·	
9	백두 초등학교	·	·	
10	밝은 미래 학교	·	·	
11	울란바토르 쉐폴학교	·	·	

◇ 집필 책임자 : 최용기(국립국어원 국어진흥교육부장)
이준석(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팀장)

◇ 집필 참여자 : 김문오(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박정아(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구지민(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정은경(국립국어원 실무관)
안수정(국립국어원 분석 요원)
이민성(국립국어원 조사 요원)

국립국어원 2007-1-9

〈2007 세종학당 백서〉

2007년 10월 19일 인쇄

2007년 10월 22일 발행

펴낸이 이상규

펴낸 곳 국립국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길 147(방화3동 827)

전화 02) 2669-9775

<http://www.korean.go.kr>

인쇄처 (주)계문사